

-통일미래센터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
접경지역 문화예술공간 발전방안 연구용역
-DMZ 문화플랫폼'

최종 보고서

2020. 8.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반 도 통 일 미 래 센 터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통일미래센터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문화예술공간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8.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p1	목차
p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필요성과 특성
	1.3. 연구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실태와 동향 등
	1.4. 유사·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1.5.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종합 분석 및 한계 등
p6	2. 연구 과정
	2.1. 연구 개요
	2.2. 연구 목적
	2.3. 연구 방법
	2.4. 연구 추진체계
	2.5. 연구 일정
	2.6. 연구 조직
p9	3. 기본 구상
	3.1. 기본 방향
	3.2. 공간 조성 범위
	3.3. 마스터플랜
	3.4. 주요 공간 조성 사업
	3.5. 전시 개념 제안
p46	4. 주요 공간 구상
	4.1.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4.2.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4.3. 철거 감시초소 문화예술공간 조성
	4.4. 보존 감시초소 문화예술공간 조성
	4.5. 도라산역 문화예술공간 조성
	4.6. DMZ 조망 보도육교 조성
p81	5. 1단계 전시 계획
	5.1. 전시개요
	5.2. 도라산역
	5.3.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출경 뮤지엄’
	5.4. 제진역
	5.5. 통일교육원

p98	6. 2단계 전시 계획 6.1. 사업 개요 6.2. 도라산역 6.3. 출경뮤지엄 6.4. 감시초소 6.5. 야외광장 6.6. 제진역
p110	7. 3단계 전시 계획 7.1. 사업 개요 7.2. 사업 내용 7.3. 사업 홍보
p117	8. 소요 예산 계획 8.1. 1단계 소요 예산 계획 8.1.1. 공간 조성 예산 8.1.2. 1단계 전시 예산 8.2. 2단계 소요 예산 계획 8.2.1. 공간 조성 예산 8.2.2. 2단계 전시 예산 8.3. 3단계 소요 예산 계획 8.3.1. 공간 조성 예산 8.3.2. 3단계 전시 예산
p124	9. 사업 추진 계획 9.1. 사업 추진 일정 9.1.1. 3개년 추진 일정 9.1.2. 1단계 일정('20년) 9.2. 단계별 운영 관리 방안
p133	10. 연구의 기대성과 및 효과 10.1. 정책적 측면 10.2. 학술적 측면 10.3. 향후 활용 방안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 분단 이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남북합의가 없어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과제로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구상'이 제시되었고 이어 '18년 남북 정상간 합의 및 부속 합의 등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18.4.27)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2조1항)하였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18.9.19)를 통해 GP 철수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질조치 등에 합의(2조1항)하였다.
- '19년 정부는 DMZ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조성을 추진하였고, 유엔사와 협의하여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한 대국민 개방을 완료하였다.

1.2. 연구의 필요성과 특징

- 한반도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의 주요 시설물(DMZ내 철거·보존 GP 등과 접경지 인근 통일부 시설물)을 활용, 남북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이다.
- 'DMZ 평화지대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과 북의 평화적 교류가 갖는 문화·예술적 가치를 함유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고품격 평화·통일 랜드마크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 철거 GP 등 'DMZ 평화의 길' 관련 동서지역 접경지 인근시설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컨셉은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화된 시설들을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하고 장소적, 맥락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및 공간 운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본 연구는 부지 및 시설물의 공간 기획과 전시 및 공연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공간 리모델링,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융합 연구의 특성을 가진다.
- 물리적인 범위와 참여 주체가 단계별로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는 만큼, 시간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마스터 컨셉이 제시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주요한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 계획과 수혜 대상, 파급 효과를 확장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1.3. 연구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실태와 동향 등

- '18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문화교류 추진 방향 제시
-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분야별 제안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평화협력단계(1단계)와 번영 협력단계(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문화교류의 사례들이 존재함.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과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 세 개 분야에서 가능한 교류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아우르는 법 제도를 검토하는 등 단계별 가능한 지점을 제안하였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상징적 의미가 큰 사업들(예.개성만월대 남북공동조사사업, 거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다른 국가 관계와 동일하게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지역 재생을 위한 예술 행사

: 에치고는 일본 서쪽의 해안가에 자리한 산간지역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니가타 현(縣)내의 도카마치 시(市)와 츠난 지역, 2개 지자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에치고 츠마리 트리엔날레는 이 지역에서 3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행사로 2000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인구과소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예술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예술 모델을 제시한 독특한 미술행사이다. 농촌지역이라는 특성과 넓은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임을 고려해 주요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메시지를 관리하며 결과적으로 지역과 외부인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을의 주요 공간에 구축된 예술작품이 거대한 에코 뮤지엄으로 기능하면서 전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 유사·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 접경지역 안보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DMZ 및 접경 지역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관광모델의 개발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상시 관광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연구로 이를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지로 하고 생태 관광을 핵심으로 역사, 교육 콘텐츠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필수로 지역의 축제나 이벤트, 상품의 개발, 숙박을 위한 기획 등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별 39개의 주요 관광지점을 선정하고 지역별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관광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접경지역 환경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결과적으로 축제나 행사 위주의 사업에 머물게 되는 한계가 있다.

-> 전세계를 향한 한반도 평화 공존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접경지역이라는 장소성에 대한 문화적 해석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문화교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평화협력단계(1단계)와 번영협력단계(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문화교류의 사례들을 제시한다. 예술분야(문학, 시각, 공연)와 문화유산, 문화산업, 법적제도 등의 분야별 가능한 교류의 내용을 조사하고 단계별 가능한 지점을 제안한다.

-> 교류의 내용을 단계별로 조율하고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각 분야별로 가능한 교류의 성과들을 집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혹은 거점공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5.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 성과 종합 분석 및 한계 등

- > 분야 별, 부서 별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상징화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거점 공간과 지속가능한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 관광자원으로서의 접근을 넘어 DMZ의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평화 메세지의 발신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공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 과정

2.1. 연구 개요

- 연구주제명 : 통일미래센터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문화예술공간 발전방안」연구용역 제안서 - '**DMZ 문화플랫폼**'
- 연구자 : 국립강원대학교 김현준 외 2명(연구원 이상)
- 연구기간 : 2020.4월 ~ 2020.8월 (4개월)

2.2. 연구 목적

- 접경지 남북협력시설을 남북이 함께 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DMZ를 수직적 남북교류로 서로 통하게 하는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DMZ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을 통해 DMZ의 역사, 생태, 문화를 예술을 통해 드러내어 남북한 및 세계시민들이 소통하는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다.
-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남북출입사무소를 중심으로 접경지 인근 통일부 시설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제시한다.
- 분야별, 부서별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상징화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예술 행사로 확장해 나가는 중장기적 비전으로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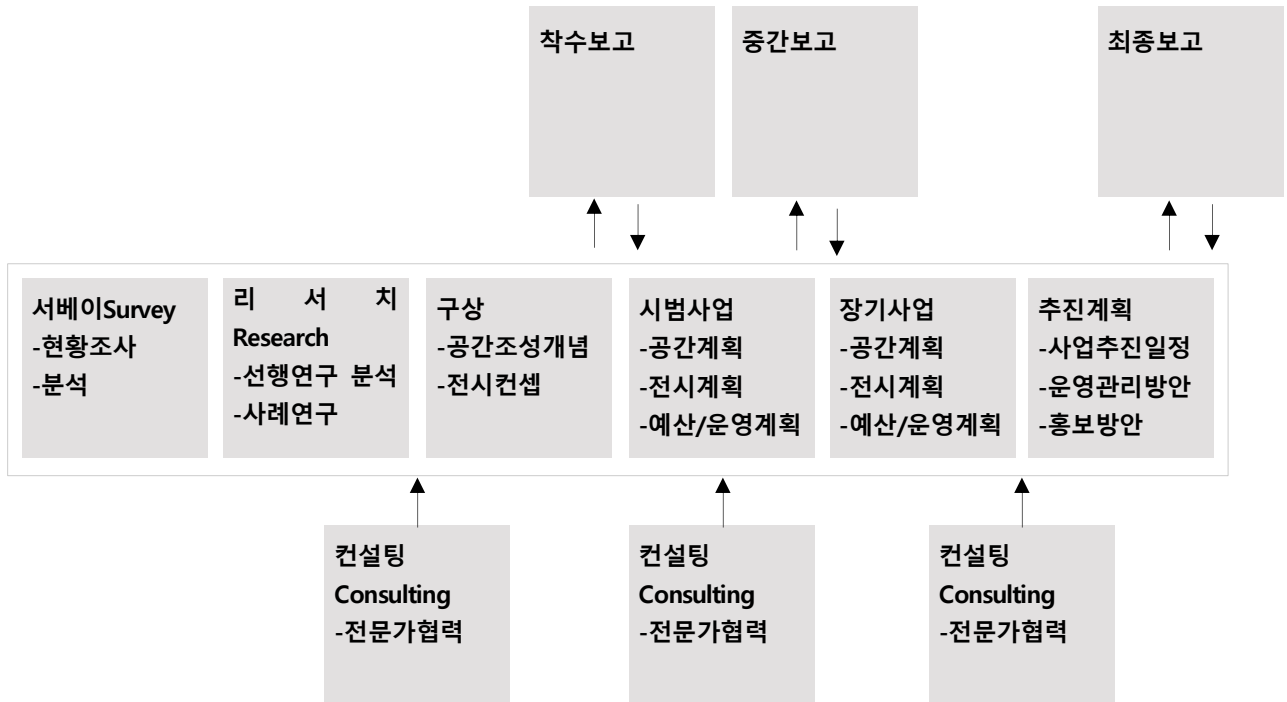
2.3. 연구 방법

연구 초기에는 서베이와 리서치를 통해 현황, 선행연구, 유사사례 등을 분석, 구상 작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공간 구상과 전시 컨셉 연구를 진행하고, 공간과 전시 개념을 조율, 융합한다. 협력 컨설팅은 초기 단계부터 기술, 시공, 콘텐츠, 운영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행한다.

- 서베이 - 기존 내, 외부 공간, 건물의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기록과 분석
- 리서치 - 선행/사례연구를 분석, 유사점과 차이점, 개선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 검토
- 구상 - 시범 및 장기사업을 포괄한 전체 범위를 묶는 공간/전시 구상의 마스터컨셉 제시
- 계획 - 2D/3D 및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공간 및 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현, 소통
- 협력컨설팅 - 리모델링/시공자문, 미디어아트 설치/콘텐츠 제작자문, 운영자문 등 필요에 따라 전문가 협력컨설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계획안에 반영

2.4. 연구 추진체계

- 공간 기획과 전시/공연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공간 리모델링 및 지속가능한 운영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여야 하는 융합 연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 팀 내 소통과 피드백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진행한다.
- 발주처, 자문단, 문화예술인, 협력전문가, 지역민(필요시) 등의 의견 수렴 과정과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5. 연구 일정

기간	연구수행 내용	비고
2020.4.21~5.20	o 과업수행계획 o 연구추진개요, 일정 및 방향 제시 및 협의	4.30.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5.5. 착수보고
2020.5.21~6.20	o 연구 진행	5.25. 자문보고
2020.6.21~7.20	o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연구결과 보고 o 전문가 자문내용 반영	6.23. 중간보고
2020.7.21~8.20	o 중간보고결과 보완, 전문가 평가 및 최종 보완	8.14. 최종보고

일정	2020년											
	4월	5월			6월			7월				
단계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계약 및 착수 준비												
서베이/리서치		0428 제진역	0506 GP	0515 출경동/통일광장		0527 출경동/GP			0624 고성GP			
전문가 컨설팅			조경 자문	시공자문	스토리텔링 자문	조경 자문	시공자문	역사적 건물 리모델링 사례		미디어월 자문		
기본방향 구상												
계획 - 시범사업										1단계사업		

2.6. 연구 조직

이름	구분	연구 경력	본 연구에서의 역할
1. 김현준 (국립강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책임연구원	23년	연구 방향 설정 마스터컨셉 제시 전시장 공간 디자인
2. 김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부교수)	연구원	23년	분야간 코디네이션 공간 마스터플랜 디자인 전시컨텐츠-공간 디자인 통합 연구
3. 구정화 (경기도미술관 책임큐레이터)	연구원	18년	전시 및 컨텐츠 방향 수립 시범 프로젝트 계획수립 단계별 운영방안 수립
4. 김도연 (아트폴리 프로젝트 디렉터)	연구보조원	10년	단계별 운영방안 자료조사 및 작성
5. 이철규 (하우드건축사무소 대리)	연구보조원	7년	모델링 및 디지털 디자인
6. 김태현 (독립큐레이터)	연구보조원	5년	전시 및 시범 프로젝트 계획 작성
7. 허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대리)	보조원	2년	2D/3D도면 지원
8. 천예진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부)	사업지원		계약, 예산집행, 운영 등

3. 기본 구상 (1~3단계)

3.1 기본 방향

※“비무장지대는 이제 국민의 것이 될 것임.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임.”(VIP, 3.1절 100주년 기념사)

-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DMZ 평화지대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출입사무소와 분단의 상징 DMZ 일대를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고, 남북간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 남북출입사무소는 同 사업을 통해 분절적 DMZ(동~서휴전선)를 수직적 남북교류로 서로 '通'하게 하는 핵심 거점으로 'DMZ 평화지대화' 조기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
-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감시초소, 도라산역, 제진역 등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연결하고 'DMZ 평화의 길'의 의미를 문화예술을 통해 체험하도록 한다. 접경지역 내 마을 주민의 삶과 연계하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 DMZ 문화플랫폼을 기반으로 DMZ의 역사·생태·문화를 예술을 통해 드러내고 남북한 및 세계시민들이 소통하는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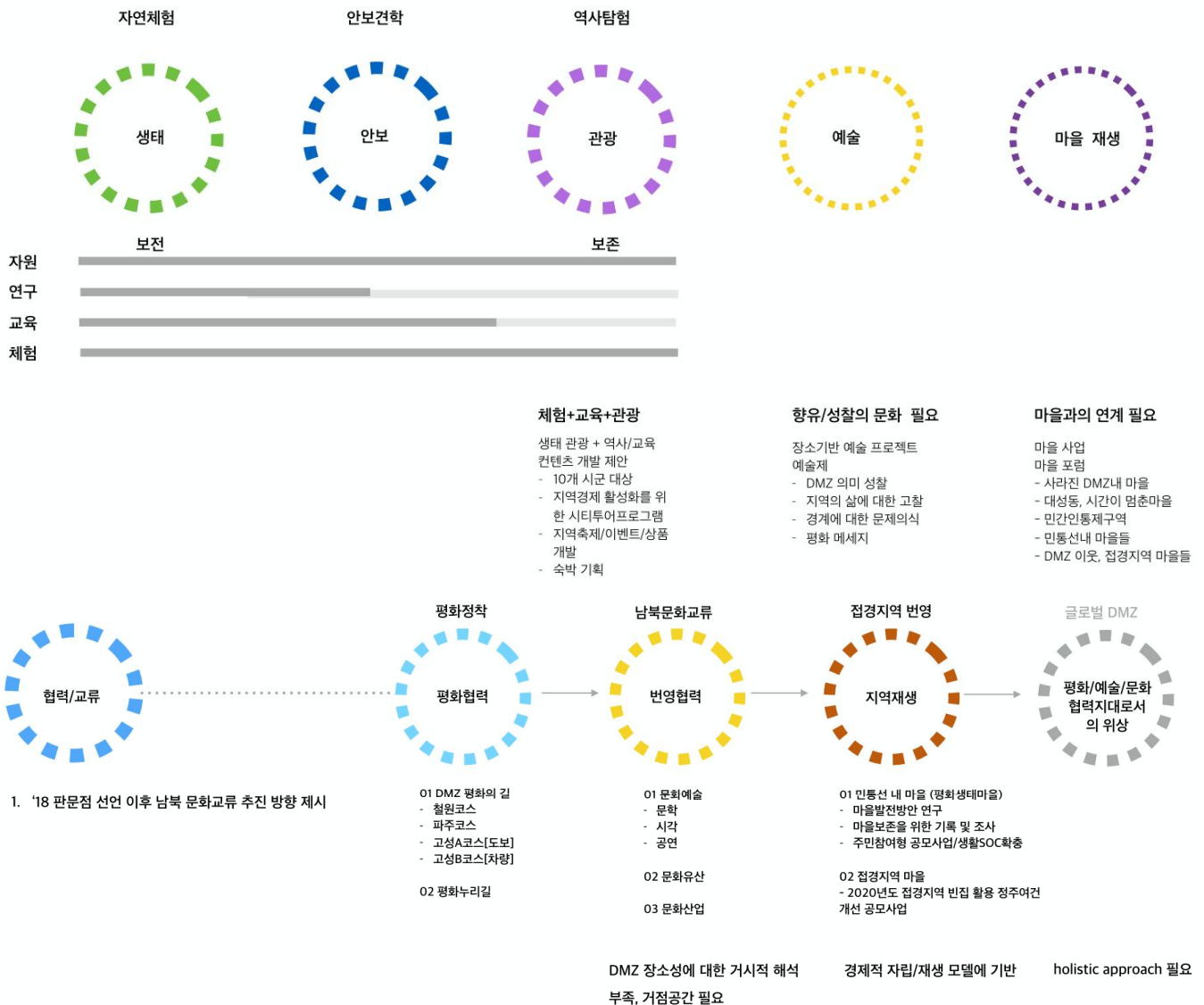
3.2. 공간 조성 범위

- 접경지 인근 통일부 시설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 1) 통일미래센터 통일 광장의 예술작품 설치방안
 - 2) 구 출경동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장 조성방안
 - 3) 파주 철거 감시초소 야외 전시공간 및 추모공간 조성방안
 - 4) 교육원 예술작품 설치방안
- * 발주처의 기본 방향에 따라 파주 보존 감시초소 및 고성 보존 GP 공간조성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장기사업으로 문화예술공간을 확장한다.
 - 1) 도라산역 맞이방(라운지) 미디어월 조성 및 전시 구상
 - 2) 구 출경동 전시장 운영 정착 및 아카이브 기능 강화 구상
 - 3) 철거 감시초소 및 보존 감시초소 전시 구상
 - 4) 도라산역 전시 구상
 - 5) 야외전시장 전시 구상
 - 5) 제진역 전시 구상
 - 6) 국제전시행사 개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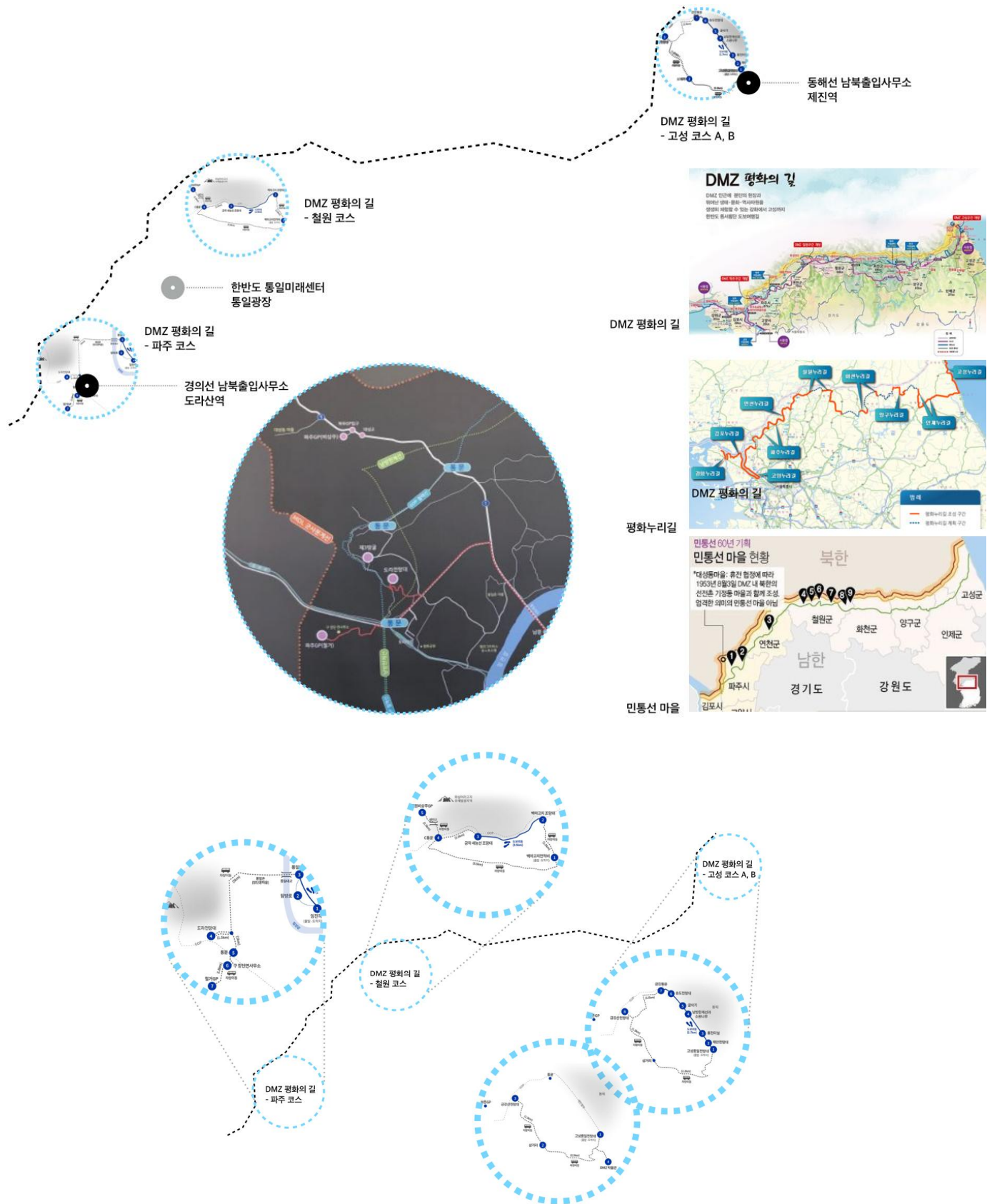
3.3. 마스터플랜

3.3.1 마스터컨셉 - 'DMZ 문화플랫폼'

- o DMZ에 대한 선행 연구의 방향은 자연체험과 결합된 생태자원으로서, 안보교육과 결합된 체험 자원으로서, 역사탐험과 결합된 관광자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높아진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역사,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 나누어 접근하였던 방식을 넘어서 이를, 융합하여 소통하는 창의적 플랫폼이 필요하다.
- o 문화예술은 세계 공통 언어로서 전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고 'DMZ 평화지대화' 구성에 자발적 기여가 가능하다. DMZ의 기억과 역사,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o 문화예술 플랫폼 DMZ는 북한문화예술계와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여 남북이 함께 하는 DMZ를 만들어 가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3.3.2 마스터컨셉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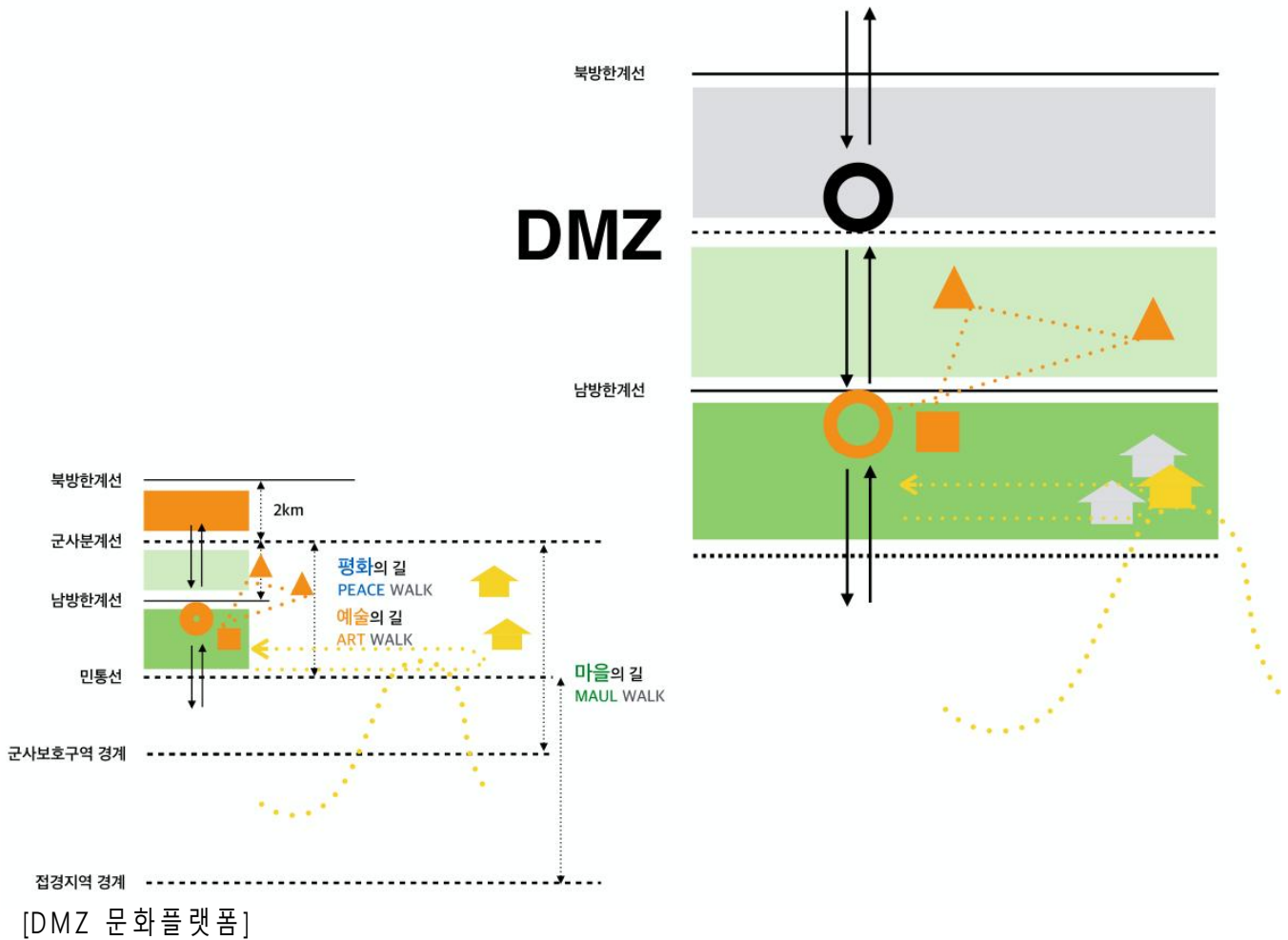


- o 평화의 길과 연계하여 남북이 함께 하는 문화거점, 남북 교류를 상징화하고 시각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거점공간이 필요하다.
- o 이를 토대로 DMZ의 생태, 역사,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이 필요하다.
- o 관광자원으로서의 접근방식을 넘어 DMZ 장소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해석과 이에 따른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o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평화 메시지의 발신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DMZ 문화플랫폼은 자원으로서의 DMZ에 대한 다수의 다양한 접근방식에 대해 문화예술을 통한 연계/융합의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평화의 길을 예술의 길로 확장하고, 나아가 접경지역 마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마을의 길을 포용하기 위한 인프라이다. 국민들의 체감과 참여, 남북문화교류 그리고 지역사회와 세계인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를 함께 실현한다.

DMZ 문화플랫폼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동서방향으로 놓여진 휴전선이 남북 간 수평적 나뉘음을 의미한다면, 출입사무소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수직 통로이다. 문화예술협력의 공간 거점을 조성하여 DMZ 문화플랫폼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한다.
- 2) 출입의 경계로서 남북출입사무소가 가지는 의미와 독특한 장소성의 경험에 가지는 가치를 문화예술협력 공간 거점의 물리적 특성을 담아낸다.
- 3) 경의선 구 출경동과 철거 감시초소 및 보존 감시초소, 도라산역 맞이방과 제진역을 연계하여, 공간 거점을 확장, 연계하는 DMZ 문화플랫폼을 제안한다.
- 4) DMZ의 장소성은 청정자원으로서의 생태적 환경, 역사적 사건들을 수용하며 구축되거나 사라져 간 건조환경의 흔적들, 그리고 전쟁 전에 자리잡았던 마을들에 대한 일상의 기억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재해석하는 예술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
- 5) 이미 시작된 산업, 문화, 예술의 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문화예술 자산으로 구축하여, 미래 세대에 의한 문화예술 협력이 이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접경지대 내 고립된 마을들은 예술로 그 가치를 되찾고 연결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평화의 문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 6) '예술의 길'과 '마을의 길'로 이어지는 '휴전선 횡단여행 DMZ 평화의 길'은 더 많은 국민이, 세계인이 지속적으로 찾는 고품격 체험 자원으로 자리매김한다.
- 7) DMZ 문화플랫폼은 공간의 조성부터 예술작품의 제작, 전시 그리고 향유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이 공감하는 평화예술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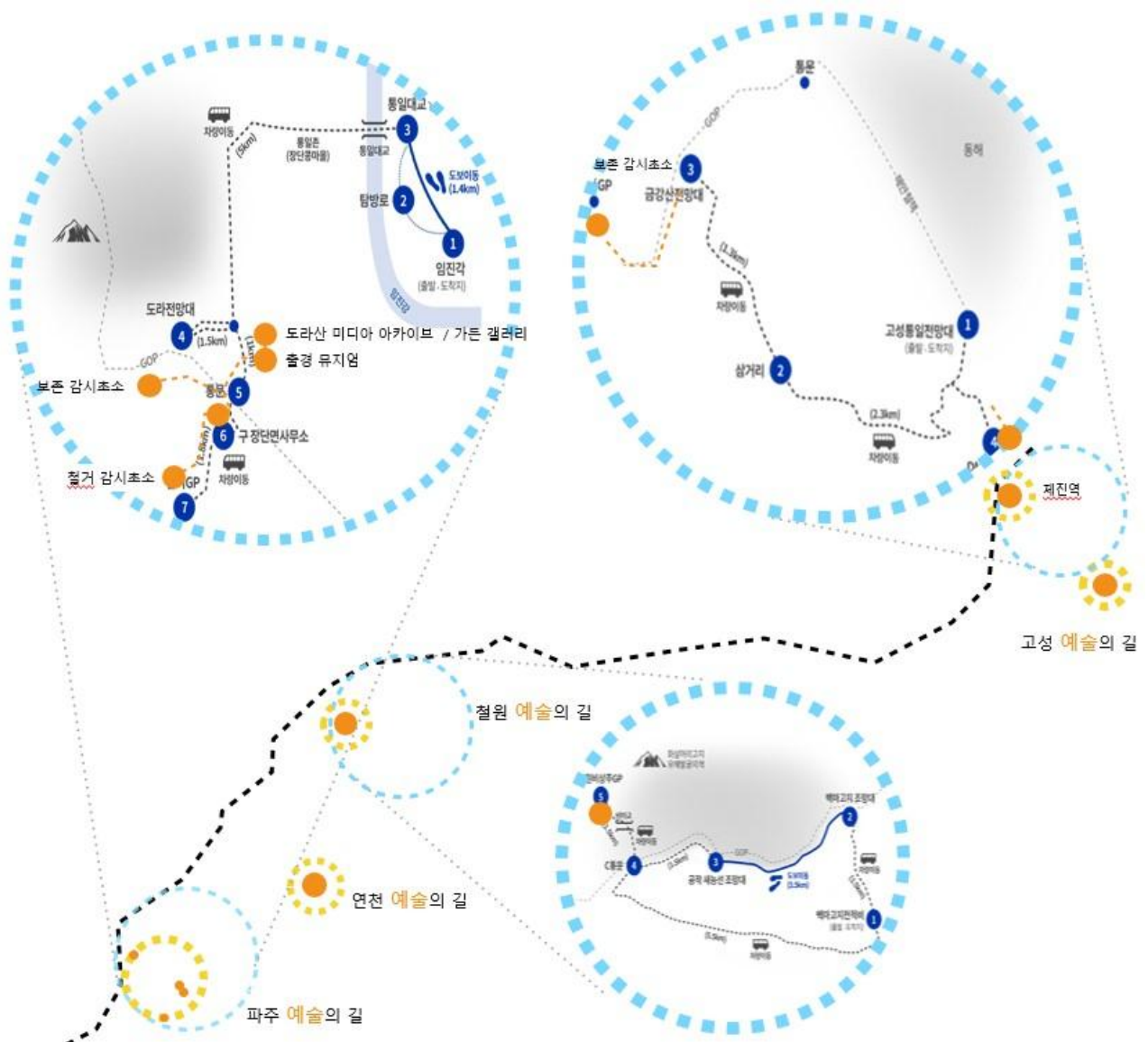
3.3.3 마스터플랜 - '예술의 길'

- o 문화플랫폼은 DMZ의 남북으로 연결, 통로가 되는 접점의 장소들의 특성을 이용해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제한적이지만 운영되고 있는 '평화의 길'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장소특정적이며 공간적이다.
- o '평화의 길'과 남북 수직 통로의 접점에 '예술의 길'을 제안한다. '예술의 길'은, DMZ가 가진 환경 자원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염원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평화의 길'에 더해 남북 교류의 과정을 자원화하고 이를 예술 협력으로 연결하여 '평화의 길'이 가지는 자원과 가치를 더욱 확장한다.
- o 공간적으로 '예술의 길'은 파주 접경지역 통일부 시설물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공간과, 연천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에 조성되는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제진역 및 고성 감시초소 등 동해 접경지역 통일부 시설물을 활용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구성된다.
- o 단계별로는 구 출경동 리모델링을 통한 '출경 뮤지엄'과 감시초소 및 통일광장의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는 1단계, 구 출경동 뮤지엄의 전시 및 운영을 정착시키고 도라산역 미디어월을 조성하며 국제공모를 통해 감시초소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는 2단계, 그리고 구 출경동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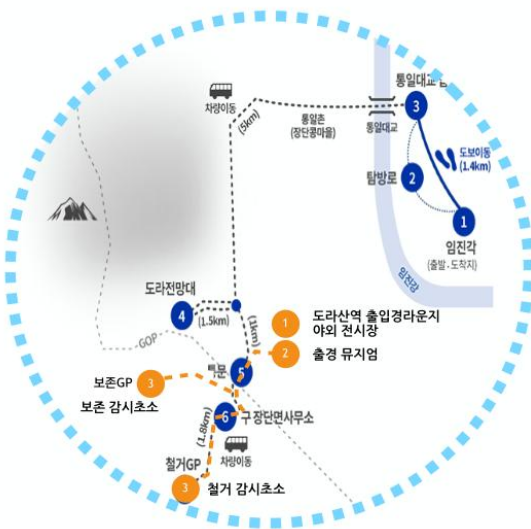
라산역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도라산역 인근 야외전시장 조성과 국제예술제를 개최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o 철원 평화의 길 및 이 외 DMZ 접경지역 평화의 길 확장 구상에 맞춰 예술의 길을 확장해 나간다.

o '예술의 길'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민통선 접근 시 필요한 보안 절차가 똑같이 적용되는 '평화의 길' 운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 관할 주체에 따라 절차가 상이하고 복잡하며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 횡수 및 인원 제한이 있어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술의 길'은 '평화의 길'이 가진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하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후 남북 예술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거점이 되는 문화예술 공간에 전시 및 아카이빙의 형식으로 자원을 축적, '평화의 길'과 연계, 운영하도록 한다.



['예술의 길' 마스터플랜]



보존 감시초소
평화 파빌리온



철거 감시초소
접경지대 희생자 추모 공간



도라산역
출입경 라운지
미디어 월
야외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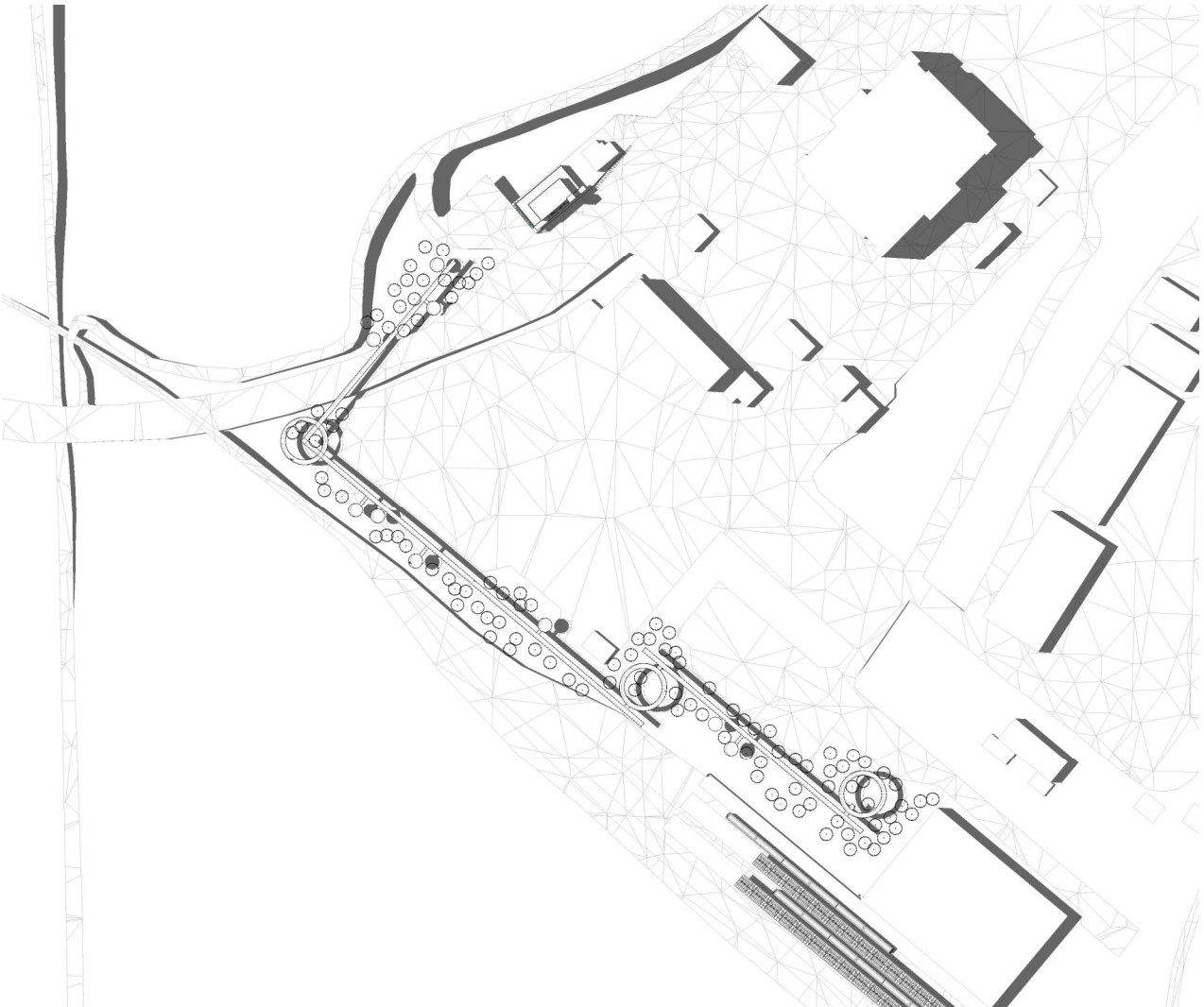
구 출경동
(가칭) 출경 유지엄



구 장단면사무소



[파주 '예술의 길'을 구성하는 장소 - 구 출경동, 도라산역, 구 장단면사무소, 철거 및 보존 감시초소]



[배치] 구 출경동 - 철거 감시초소 - 도라산역 미디어 월 - 야외 전시장 - 도보육교

o '파주 예술의 길'을 위한 고려사항

- 파주 '예술의 길'은 파주 '평화의 길'을 확장한다. 도보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화의 길 일부구간이 보안상 출입 및 보행 접근이 불가능한 점과 출입사무소와 물류이동 등의 기능으로 인해 보행이 고려되지 않은 일부 구간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도보 접근이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예상방문객 숫자 및 수요 조사를 전제로 일부 도보로 접근가능한 구간을 조성할 수 있다.
- 출입사무소와 구 출경동은 보행 연결이 가능하다. 단, 건널목 설치, 바닥 포장 및 조명, 싸이 니지 등 외부공간 통합 디자인을 통해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운드 아트 등 설치작품의 경우 '예술의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이 크다. 화물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차로와의 교차점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아트 서틀 운영 및 '파주 평화의 길' 투어와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 장기 사업으로 도라산역과 구 출경동을 연결하는 도보육교를 고려할 수 있다.

3.4. 주요 공간 조성 사업

3.4.1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 o 통일미래센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문화체험 프로그램, 합수머리 전망대,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민족 공동체 회복 지원 및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평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광장에 기존 존재하는 38선의 의미를 성찰하며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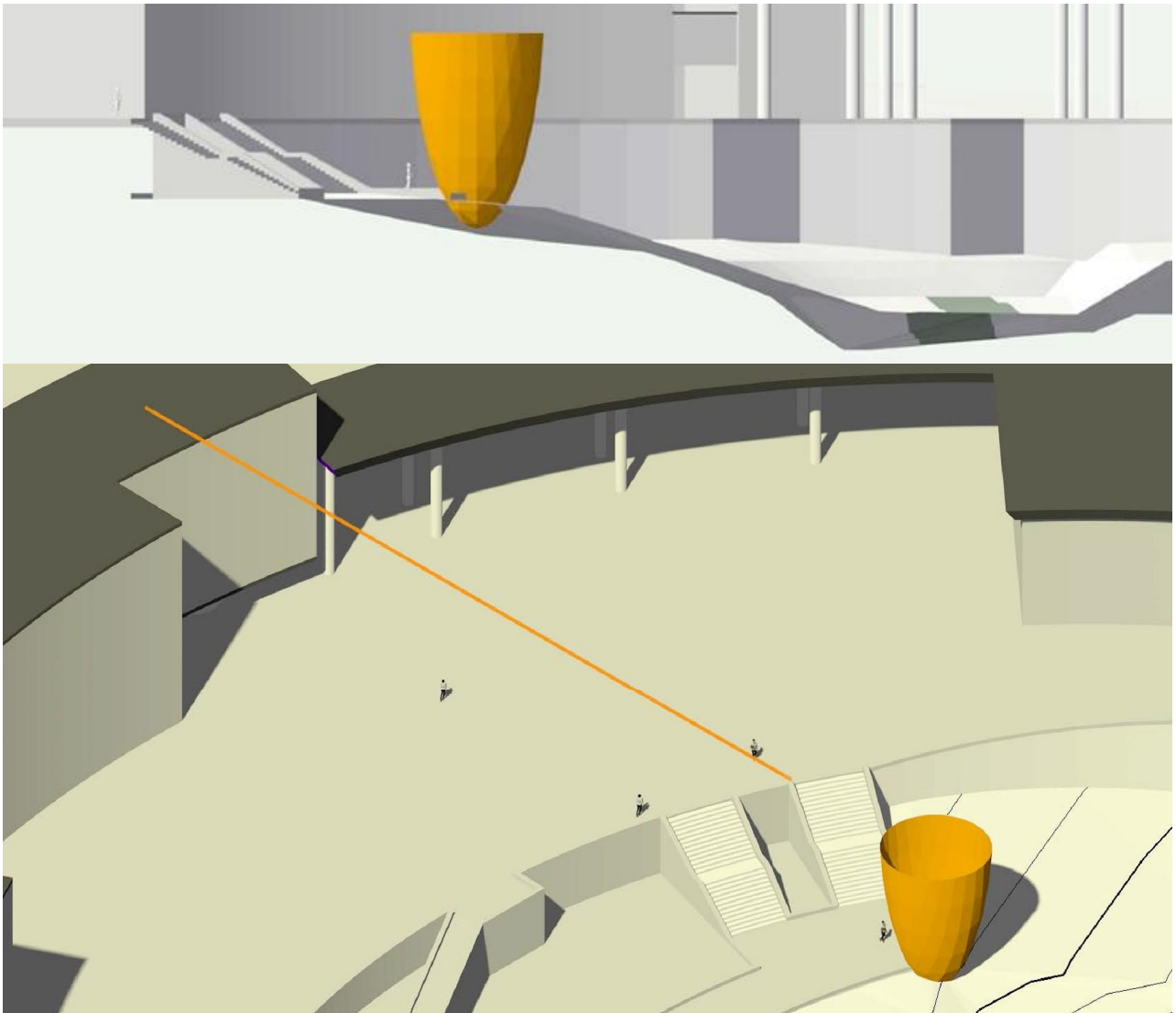


o 장소성을 재해석하며 현대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체험, 휴식, 놀이가 융복합되는 구심점을 조성한다.

o 예술작품 명 : Korean Double, 38' parallel + vessel of peace

- 작가 명 : Goetz Stockmann + Gabriela Seifert (독일)

- 제안 : 5미터~20미터의 지름으로, 계곡 수면위 6미터에, 광장 레벨에 윗면이 맞춰진 랜드마크와 60미터 길이의 수평성을 가지는 라인을 결합한 설치예술로서, 이 두 개의 구별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안이다. 연천 신석기 유적 토기를 연상시키며 통합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의 기하학, 좋은 비례를 가진 건축물은 10mm의 콜텐철판으로 삼각형 패턴모듈을 가지도록 구축되고 토기의 무늬와 유사한 패턴의 타공으로 안과 밖이 연결된 열린 공간으로 확장한다. 30센티미터의 폭을 가지는 38선은 예술적으로 프로그램된 LED의 띠로서 추상화된 메시지를 빛으로 전달, 시간과 거리의 비율에 따라 움직이는 수평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분단을 의미했던 38선은 미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랜드마크로의 지시선으로 전환된다.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당선안]

3.4.2 접경지 인근 통 일부 시설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파주 평화의 길을 확장하는 '예술의 길' :

1. 구 출경동 2. 철거 감시초소 3. 도라산역 4. 보도육교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하여 접경지 남북협력시설에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DMZ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공간 조성 사업은 1) 구 출경동 리모델링 '출경 뮤지엄', 2) 철거 감시초소 야외 전시 순환로 및 추모공간 3)도라산역 맞이방 미디어월, 4) 도라산역과 구 출경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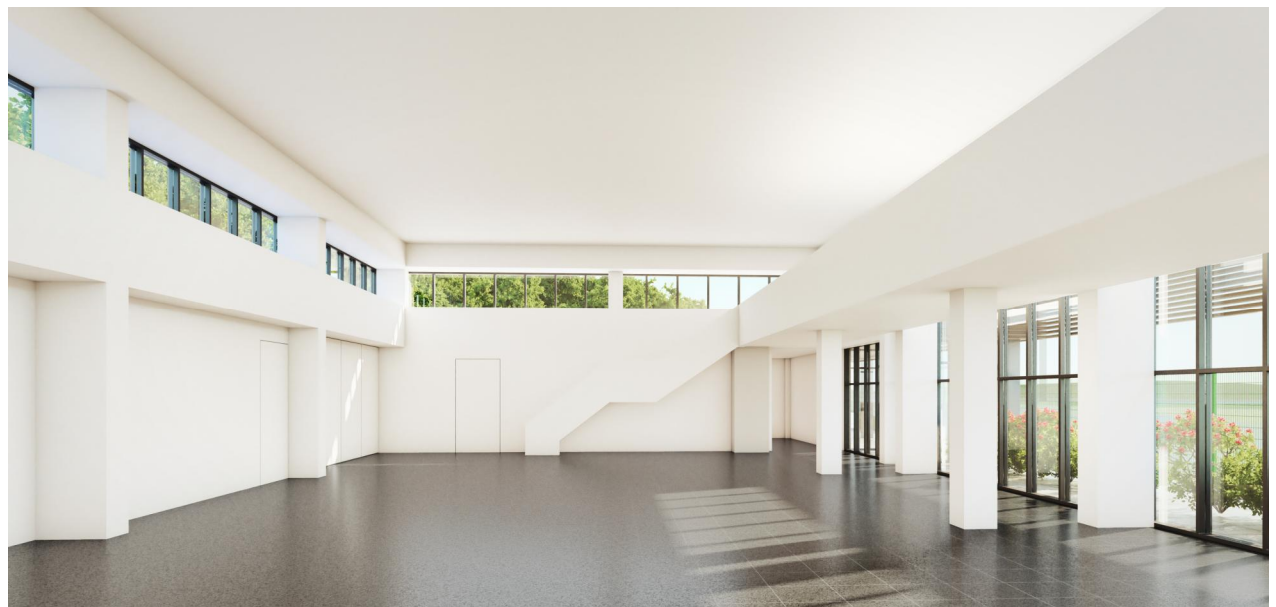
1)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출경 뮤지엄'

- o 임시출입시설로 활용되었던 구 출경동 리모델링을 통해 출경의 기억을 기억하고 미래 남북 예술교류의 시발점이자 구심점이 될 전시장을 조성한다.
- o 위치: 차량 게이트를 지나 우측 세관검역 인접
- o 사업의 범위: 외부 입면 대수선 및 옥외주차장/진입로 개선, 건물 보수, 2층 증축, 1~2층 전시장 조성 및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구 출경동	기존	증축 후
준공일	2003년 1월초	2020년 11월 예정
용도	공공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부지면적	약 2,516㎡	약 2,516㎡
연면적	676.50㎡	759.76㎡
규모	지상 1층	지상 2층

[기 존 현 황]





위. 리모델링 후 외관
 중간. 리모델링 후 내부
 아래. 리모델링 후 배치도

2) 철거 감시초소 야외 전시 순환로 및 추모공간

- 휴전선 감시초소(Guard Post)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에 위치하고 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평화를 약속하며 남북이 함께 폭파시킨 철거 감시초소는 유엔관리 구역이지만 평화의 길로서 제한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 함께 한 협력 중 가장 상징적 공간으로 분단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공간에는 잔해만 남은 감시초소와 철조망이 남겨져 있으며 조성된 길을 따라 멀리 북한을 조망하며 분단의 현실, 공존을 위한 노력의 현재를 느낄 수 있다.
- 감시초소를 통해 적대적으로 대립했던 지난 역사를 체험하고, 장소 및 공간을 조형화 한 작품 및 공연 등 전세계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예술을 매개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사업의 범위: 현재 난간 및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획 중 진입이 가능한 범위이며 기존 초소 건물의 위치는 말뚝 표식으로 가늠 가능하다. 사업의 범위는 전시 및 산책을 위한 순환로, 추모공간(연못 및 조경) 조성과 기존 시설물의 재배치, 간이화장실 재배치, 싸이너지 설계방향 제안 등을 포함한다.

철거 감시초소	기존	조성 후
조성년도	철거- 2018년	2021년 예정
용도	조망데크, 조경, 전시물 등	야외 순환로 및 추모공간
부지면적	약 1400m ²	약 1400m ²
조성면적		데크 560m ² 순환로 211m ² 추모연못 80m ²
규모	지상 1층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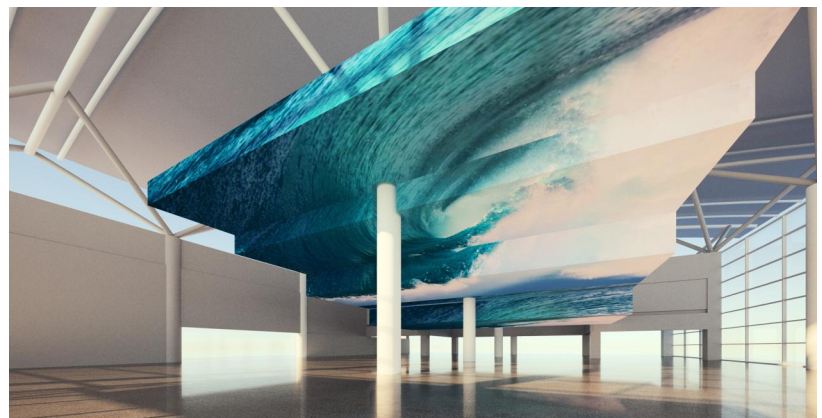
위. 철거 전 및 철거 후
아래. 현황



[야외 순환로 및 추모 공간 이미지]

3)도라산역 맞이방 문화예술공간 (가칭 '미디어 갤러리')

- o 도라산역은 서울역에서 원주까지 이어진 철도가 정차하는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역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교류의 주요한 육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유리과 스틸의 건축구조물이 특징적이며 남북의 물류 및 인적 교류가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이며 현대적인 장소이다.
- o 미디어월을 조성하여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된 역사적 공간이자 출입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이며 미래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미디어콘텐츠를 기획, 운영한다.
- o 사업의 범위: 출입경의 경험을 기념하면서도 콘텐츠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의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장소의 특성과 의미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기획, 운영한다.



[미디어월 예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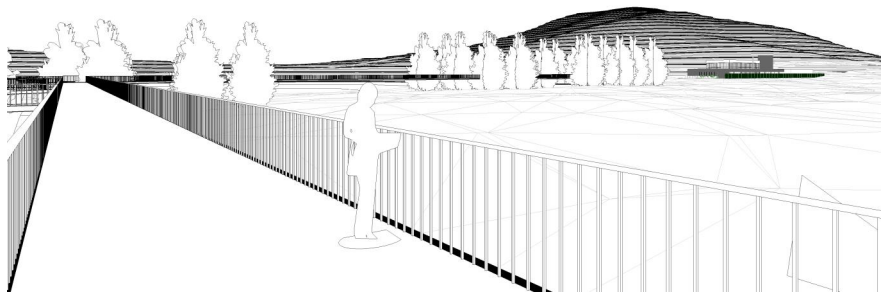
- o 현재 입경과 출경, 라운지 및 화장실 입구의 동선이 모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기존 구조물의 특성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합적인 동선을 허용하면서도 풍요로운 공간감을 만들 수 있는 '천장의 박스'를 미디어월로 조성하여 공간을 적절하게 분화하는 동시에 출입경의 경험을 기념비적으로 기념한다. 2단계에 조성될 예정이며 주어진 예산 내에 최적화된 스케일과 디자인의 천장면을 제안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의 개수 및 분량을 제시하도록 과업내용을 기획한다.

4) 도라산역과 구 출경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o 도라산역과 구 출경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는 출입경 보안절차, 차량 및 화물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현재 내, 외부 공간 및 동선의 특성으로 인해 상호 보행 접근이 어려운 현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o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보호지구내의 저축 여부 및 현재 계획 중인 도라산역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면서도 DMZ를 따라 걷는 특별한 경험, 문화예술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기획한다.

o 사업의 범위: 폭 5m, 길이 650m, 높이 3-4m의 고가 보행로와 길이 50m, 높이 4.2m이상의 보행교와 결합된 보도육교로서 접근을 위한 수직동선, 주요 지점에서 조망 및 휴식의 역할을 하는 조망데크로 구성된다.



[보도육교 예시 이미지]

3.5. 전시 컨셉 제안

3.5.1 사업의 비전

○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내 주요한 장소들을 발굴하고 정비한 후 각각의 장소들을 링크하여 일대를 벨트화 함으로써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존재하는 곳으로 변모시킨다.

○ 과거 남북교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역사적 장소에 남북문화교류의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만들어가는 문화교류의 공간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남북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 거점이 되는 장소에 다양한 기능과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접경지역을 예술을 매개로 한 평화지대화로 점차 조성하여 평화를 위한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켜나간다.

3.5.2 주요 사례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9년 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열린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조성된 작품지도]

(사진출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http://www.apap.or.kr/>)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2005년에 시작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의 지형·문화·역사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도시 곳곳에서 미술·조각·건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고자 한다. 이 행사가 주로 진행되는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다. 2019년 삼성산과 관악산 계곡을 중심으로 약 2km에 조성된 안양예술공원은 현재 58개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안양예술공원에는 지속적으로 내외국인 방문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트 코스나 가족 나들이로 유명한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 예술제의 기본이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유원지의 쇠퇴라는 배경 속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예술을 매개로 한 공공예술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안양시의 의지로 시작되었다.

‘안양 아트시티 21’의 추진 방향이던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속 도시공간을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하며 문화적 자산으로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1) 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화하여 쇠퇴한 이미지를 탈피한다.
- 2) 도심 내부의 공공예술화로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 3) 공공예술을 전체 도시환경 속으로 확대한다.

2) 추진과정과 운영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시가 주최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다. 2004년 5월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된 후 조각공원 자문위원의 일부가 보강된 추진 위원회가 2005년 1월에 구성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공공예술팀이 신설되어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예술도시기획단이 신설되어 프로젝트 및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며 홍보와 교육도 담당하였다. 2007년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예술재단이 출범하였고 이후 안양문화재단과 통합되어 현재는 안양문화예술재단 내의 문화사업부서에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3년마다 열리는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비롯한 프로젝트 실행팀은 전해에 선발하여 운영한다.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미술뿐만 아니라 넓은 건축과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을 모두 포함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다국적 예술가들과 커미셔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세계적인 도시 예술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안양예술공원 부지를 활용한 야외작품 관람객을 제외하고 2019년의 관람객은 3만명이고 예산은 28억 7천 5백만원이다.

안상수 <돌지도> 2005



배영환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 2014



최정화 <무문관> 2016



MVRDV, <전망대>, 2006. 안양예술공원.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설치된 예술작품들]

(사진 출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http://www.apap.or.kr/>)

3) 거점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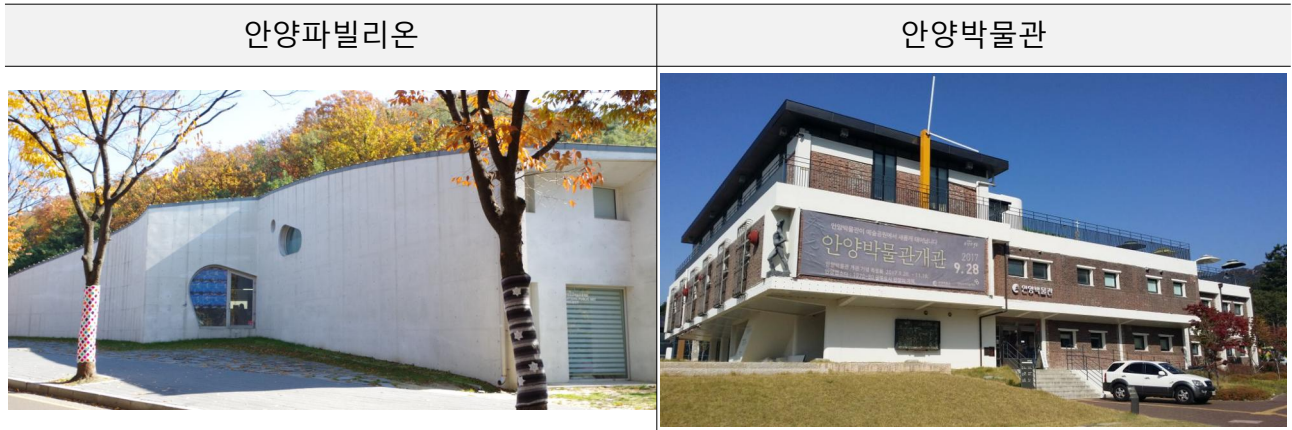
① 안양 파빌리온

그 자체로 하나의 큰 공공예술 작품이자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루 시자 비에아라가 지은 이 건축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내부는 친환경 예술 공간으로 편안하게 디자인 되어 있다. 처음 개관 당시에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유료 전시관으로 지어졌으나 이후 무료 공공예술전문 도서관으로 변하여 다양한 공공예술 관련 도서를 비롯하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탐구 주제 도서와 참여 예술가들의 아카이브도 보관 되어 있다.

② 안양박물관 및 김종업 건축 박물관

안양예술공원의 초입에는 오래된 양식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 안양사가 있던 터에 조성된 이곳에는 현재 안양박물관, 김종업건축박물관, 구안양사지관을 리모델링한 특별전시관, 교육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안양박물관 건물은 처음에는 김종업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건축가 김종

업의 일생과 작품들, 각양각색의 예술품 등을 전시하였으나 2017년에 평촌아트홀의 안양역사관이 이 곳으로 옮겨오면서 안양박물관으로 개칭, 기존의 박물관과 통폐합되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함께 안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며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열리는 해에는 협력프로젝트 혹은 전시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사진 출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 <http://www.apap.or.kr/>), 위키피디아)

4) 프로그램

① 공공미술프로젝트

- 국내 유일의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을 단 지자체 주최의 예술프로젝트로서 1회 프로젝트 이후 도시 속의 공공적 장소를 발견하고 이를 도시의 공적 장소로 의미화하는 예술 작품을 설치해 왔다. 1차 년도의 대상지였던 안양유원지는 현재 안양예술공원으로 변모하여 공원 곳곳에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안양의 구도심과 평촌 중앙 공원 등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 전체에 예술 작품이 설치되면서 예술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 대부분 조각 작품이 설치되면서 공공조각품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조각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관리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② 공공프로그램 운영

-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는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6년에 진행한 퍼블릭 랩/APL은 안양파빌리온과 석수시장에서 진행된 워크숍과 행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외부인의 창의력을 키우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령대에 맞춰 각기 다른 워크숍을 기획하였으며 인종, 나이 등을 배제한 채 서로의 이해를 구축하고 예술과 기술, 지식의 공유를 추구하였다.
- 안양 우주과학 실험실, 안양 똑똑이 실험실, 안양 요리과학 실습실 워크숍, 안양 오픈 퍼블릭 키친 워크숍, 안양 오픈 클럽 워크숍 등 5개의 워크숍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③ 아카이브

- 5회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아카이브 작업은 산재되어 있는 공공미술품을 목록화하고 기록하

고 공개함으로써 예술작품이 시민의 공공자산임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작품의 생산과 유통, 활용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회때 설립된 안양파빌리온에서는 이 아카이브 자료들을 비롯해 지난 프로젝트의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과 결과 자료들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에치고-츠마리트리엔날레

일본 유수의 폭설지인 에치고-츠마리(니가타현 도카마치시(十日町市), 츠난마치(津南町))를 무대로 2000년부터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예술제이다. 우리나라의 서울시와 비슷한 크기에 인구가 7만 5천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산간지역인 이 지역은 심각한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낮은 출산률로 인해 예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트리엔날레로 니가타 현의 6개 지경이 그 무대가 되고 제 1회 16만 2800명에서 제 4회 375만 3,111명으로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재방문율이 70%에 달한다는 성과는 지역민들이 예술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모 상자가 니가타 현이고, 그 안에 회색 부분이 에치고-츠마리 지역]
(그림출처 : 에치고츠마리 홈페이지 <https://www.echigo-tsumari.jp/>참조)

1) 추진 과정

1994년 지역 활성화 정책인 뉴 니카타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에 에치고 츠마리와 니가타 현이 함께 기획한 '에치고 츠마리 아트 네클리스 사업'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 양성, 매력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총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에치고

츠마리 8만명의 참가사업(1998-1999)>을 통해 사진과 단어 대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고 두 번째로 <꽃길사업>은 도로, 거리, 공원 등 공공 공간에 꽃을 심은 생활환경 조성 활동이었으며 다음으로 진행된 '스테이지 정비사업'은 지역의 학습과 정보, 지역 교류의 거점시설을 정비하였다. 에치고 츠마리의 <대지의 예술제>는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에치고 츠마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2) 예술제의 비전

① **인간은 자연에 내포된다** <대지의 예술제>에서는 자연이 하나의 전시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평소 생활하는 공간이 예술제의 무대가 된다.

② **지역, 세계, 장르를 초월한 협동이다** _ '소외지역-노인-농민'과 '도시-모든 세대-아티스트'라는 두 개의 그룹이 다양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짧은 시간에 작품을 만들어가며 자원봉사자가 전시기간 동안의 조력자로 활동한다.

③ **마을과 세계이다** _ <대지의 예술제>는 다수의 해외 아티스트가 함께하여 마을 주민과의 협력으로 작품을 제작한다. 약 200개의 마을에서 각기 다른 세계의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여준다.

④ **장소특정적이다** _ 다른 곳에는 없는 이 지역만의 경관과 작품이 어우러진 경험으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⑤ **문화는 생활의 집적이다** _ 기존의 미술품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예술을 발견하며 필요 없어진 공간이나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예술로 탄생시킨다.

3) 거점 공간 (사진출처 : 에치고츠마리 공식 홈페이지 www.echigo-tsumari.jp)

- 넓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어 주요한 시설들을 정비하여 거점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마쓰다이 농무대>

에치고 츠마리의 지역문화와 농경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네덜란드의 건축 스튜디오 MVRDV가 설계하였다. 전시회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이 상시 펼쳐지고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미나 시리즈도 열린다. 버려진 채소밭에 양부모 찾아주기, 도교와 지역산물 거래하고 카페테리아에서는 현지 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이를 운영한다.



<빛의 사원>은 1회 에치고 츠마리에 초청된 세계적인 작가 제임스 터렐이 공간을 자신의 작품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향후 에치고 츠마리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다. 방문객은 산간지역에서 예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빛의 사원>



토오카마치 시의 메인 전시 장소로 현재는 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의 이름은 "키나-레"인데 2003년에 제작된 작품의 하나이다. 기모노 역사관과 체험공방, 공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의 교토 역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 하라히로시(Hara Hiroshi)가 설계한 것이다.

<사토야마 현대미술관>



<숲의 학교 코로로>는 곤충박물관으로 '마을산학회'를 구성하여 산촌의 자연을 연구하고 있으며, 하경동독(하절기에는 일하고 동절기에는 공부를 하다) 철학 아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산촌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또한 대학교나 초등학교 등과 연동해 '산촌 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숲의 학교 코로로>

4) 프로그램

① 야외조각 프로젝트

'인간은 자연에 내포한다'는 기조아래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근대문명사를 비판하고 근대 문명이 잃어버린 정신적 고향 찾기를 제안한다. 오래된 산간지역의 유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설치된 야외 조각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자연 안에 어우러진 작품으로 설계되고, 설치, 관리된다. 지금까지 에치고 츠마리 전역에 300여개가 넘는 작품들이 설치되었다.

② 빈집 프로젝트

사라진 것들을 기억하고 장소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프로젝트는 인구감소로 사용하지 않게 된 빈집과 폐교 등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빈집프로젝트 폐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말끔하게 정비된 실내 공간은 감상의 쾌적함을 더해 준다. 전통 목조 주택으로 지어진 빈집은 그 자체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아내며, 잘 정돈된 몇몇 곳은 관람객을 한 숙박 장소로도 대여되고 있다. 폐교 역시 카페 시설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③ 공공프로젝트

- 에치고 츠마리에서 선보이는 모든 작품은 디자인 및 건축, 조경의 영역과 협업한다. 주차장, 길, 집 등의 리모델링을 예술가와 협업하여 예술을 매개로 장소성을 드러낸다. 작가들은 장소성을 담기 위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짧게는 몇 주일, 길게는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을 방문하여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를 반영한다.

④ 크로스 컨트리-양부모 제도

도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간지역 논밭의 유지를 담당하는 '논밭 양부모' 공모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논밭 관리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운영자금과 농번기 작업을 '논밭 양부모'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확한 작물은 '논밭 양부모'에게 돌아간다.

⑤ 고향납세 제도

고향납세 제도는 눈 축제 행사나 에치고 츠마리 트리엔날레 개최, 작품관리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기부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기금 운영 제도이다. 기부금을 내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된다.

⑥ 자원봉사자 시스템 코헤비(こへび)

에치고 츠마리에는 작은 뱀이라는 뜻의 자원봉사자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것을 독려하고 참여를 돕기 위한 단체로 이들은 작품의 관리, 제작, 방문객의 가이드 역할 등을 하며 이벤트의 운영을 돕는다. 코헤비가 존재하기 전에는 프로젝트 내에 작품의 제작과 사업에 지역 주민의 협력을 구하지 않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코헤비는 지역 진흥과 예술의 연결,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학습하며 지역 주민이 느끼는 일상적 경험을 공유한다. 외부인인 '코헤비'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끌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와 지역민의 중간매개체가 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의 호감도를 높이고 작품의 완성도와 행사의 운영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⑦ 관광시스템 구축

다양한 예술 행사 및 연구 활동과 함께 관람객이 이 곳을 다시 찾도록 이 지역의 자연과 자원

을 활용한 숙박, 음식, 기념품과 같은 관광의 기본 요소들을 개발하고, 특성화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아키코 우즈미 <잃어버린 많은 창문을 위하여> 2006	<폐교프로젝트 내의 식당> 2009년 방문시 촬영
	
폐교프로젝트: 크리스티안 불탕스키의 <마지막 교실> 2009	일리아 & 에밀리아 카바코프(Ilya&Emilia Kavakov)의 <논 The Rice Field> 2000
	

(사진출처 : 에치고 츠마리 공식 홈페이지 /www.echigo-tsumari.jp, 일부 연구용역팀)

3.5.3 DNZ 문화플랫폼 운영 방안

○ 운영의 목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내 주요한 장소들을 발굴하고 정비한 후 각각의 장소들을 링크하여 일대를 벨트화 함으로써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존재하는 곳으로 변모시킨다.

- 1) 주요 장소의 발굴 및 새로운 기능 부여를 통한 공간화
- 2) 남북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의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3) 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평화지대 활성화

○ 운영 전략

- 1) 과거 남북교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역사적 장소에 남북문화교류의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만들어가는 문화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남북문화교류의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 2) 거점이 되는 장소에 다양한 기능과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나감으로써 접경 지역을 예술을 매개로 한 평화지대화로 점차 조성하여 평화를 위한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간다.

○ 거점 공간



<도라산역>

(사진출처: 연구용역팀)

도라산역은 2000년 9월 남북합의로 시작된 경의선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3월 말 완공되었다. 당초 DMZ에 복원하기로 했던 장단역이 취소되면서 남쪽의 문산역과 북쪽의 봉동역 사이에 신설되었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도달하는 최북단의 역으로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다. 유리과 스틸로 된 건축물은 전형적인 기차역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출입국수속을 밟을 수 있는 국제역의 기능을 갖고 있다. 향후 미디어 월을 조성하고 상설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구출경동>

(사진출처: 연구용역팀)

출입국사무소의 차량게이트를 지나 우측 세관검역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다. 2003년에 입, 출경동을 신축하였으며 육로의 출입을 담당하였다. 현재는 출경동만 유지하고 있으며 개보수하여 향후 남북교류의 자료와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뮤지엄 기능을 갖추어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비상주 감시초소>

2018년 남북의 정상회담이 DMZ내의 감시초소를 함께 철거하기로 합의한 후 철거된 감시초소는 남북한 구성원이 염원하는 평화적 관계를 상징한다. 비상주 감시초소와 함께 국내외 예술가 공모를 통해 정기적으로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DMZ의 의미를 전 세계인과 공유한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371469>)



<제진역>
 (사진출처: 연구용역팀)

동해선 복원사업에 따라 2006년 3월 복원된 최북단 기차역으로 다음 역은 북한의 감호역이다. 2007년 남북간 동해선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운행하지 않고 있다. 도라산역과 함께 남북교류의 상징성을 담은 장소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이곳을 공예 등 지역성을 담아내는 현대미술관으로 운영하여 향후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시에 중요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

■ 출경 뮤지엄 용어 사용과 관련한 사항

- 용어 사용 : 뮤지엄(박물관, 미술관) 용어 사용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ex: 경기도의 에코 뮤지엄, 김종영 미술관 등)
- 뮤지엄설립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경 뮤지엄의 개념 사례 - 리빙뮤지엄

최근 뮤지엄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체험과 공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주도적인 이해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생활사 박물관의 한 형태로 출발한 리빙뮤지엄은 역사적 재연을 통해 공간과 관객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미션이 우선하는 뮤지엄이 된다.

리빙뮤지엄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대상과 관련된 역사의 재연을 통해 관객이 역사를 체험하고 환기하며 현재의 경험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 일반적인 박물관의 오브제로서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그 건물의 역사성, 혹은 그곳이 위치한 장소적 맥락,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 그 공간과 장소성을 해석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들을 관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특히 부정적 문화유산이었던 재난이나 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를 이러한 살아있는 뮤지엄의 관점에서 해

석하고 매개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재연과 예술을 매개로 한 새로운 경험의 창조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록해가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자료 출처 : 박소현, 「리빙뮤지엄과 해석의 문제 : 살아있는 뮤지엄을 위하여」, 『인문과학』 107호 (연세대인문학연구원, 2016.8))

○ 문화플랫폼 사례

1) 히로시마 평화공원 (Hiroshima Peace Memorial Park 広島平和記念公園) - 일본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1945년 세계 최초 원자폭탄의 피폭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던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기억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조성되었다. 1955년 히로시마평화회관 원폭기념관이 개관한 이래 2번의 큰 개보수 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며 1998년에는 히로시마국제회의장과 함께 공공건축백선에 선정되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는 평화기념자료관, 원폭위령비, 원폭어린이상, 한국인위령비 등이 있다. 한국인 위령비는 전쟁 당시 히로시마에 살았던 한국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70년에 만들어졌다.

평화기념자료관은 본관과 동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피폭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공원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상한 모습의 원폭 돔이 있는데, 이 건물에는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인류의 역사적 비극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 1996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015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조사한 “일본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 20선” 가운데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이 2위에 올랐으며 특히 미국 관광객들에게는 1위를 기록했다.

2) 911 메모리얼파크 (9/11 Memorial & Museum) - 미국

911 메모리얼 파크는 2001년 9월 미국 대폭발테러사건에 의해 붕괴된 뉴욕 세계무역센터 부지에 건립된 기념관이다. 2001년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은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이 공격당한 항공기 자살테러로 30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이후 2011년 이스라엘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의 디자인으로 ‘부재의 반추(Reflecting Absence)’라는 이름의 추모공원이 건립되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세계무역센터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2천 977명이 희생된 자리에 10년 만에 추모공원이 들어섰다. 건축가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무역센터 빌딩 자리에 두 개의 풀을 만들었으며 지상 면에는 76개의 청동패널에 약 3천명에 달하는 희생자의 이름을 새겼다. 거대한 풀로 떨어지는 물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흘린 많은 이들의 눈물을 뜻하며 이 주위를 희생자들의 이름이 둘러싸고 있다. 특히 희생자들의 이름들은 뉴욕 디자인 회사 ‘로컬 프로젝트’에 의해 단순한 알파벳이나 생년에 의한 순서가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마치 ‘페이스북 친구 찾기’처럼 서로 연관성 있는 고인들의 이름끼리 비슷한 위치에 새겨져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메모리얼 파크 지하의 추모박물관도 개관하였다. 추모박물관은 ‘마지막 기둥’과 같은 당시의 유물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 당시의 사건을 재구성, 이후 미국의 재건에 대한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온했던 911 아침의 풍경부터 생존자들의 독백, 희생자들에 의해 남겨진 메시지들이 소리, 영상, 사진과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다.

3)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The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 독일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로도 불리는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이다. 1980년대 중반 유대인 단체들이 설립을 건의하여 1999년 미국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의 설계안으로 공사가 확정되었고,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69주년인 2005년에 그 문을 열었다. 1만 9073m²의 부지에 콘크리트 비석 2,711개가 격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두께 0.95m, 너비 2.38m의 검은 비석은 다양한 높이로 세워져 있으며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높아진다. 아무런 설명이 없음에도 이 비석들 사이를 걷는 체험은 그 자체로 관람객에게 침묵과 단절을 경험하게 한다. 지하에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정보 센터가 있어,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 제공한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이름이나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지하의 추모관의 전시는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홀로코스트의 연표, 희생자들의 편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이름의 방 (Room of Names)에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나며 호명되고 있다.

○ 주요 이용 대상자

- 1) 개인 및 가족 단위 관람객
- 2) 각 급 학교의 단체 관람객
- 3) 안보관광의 관람객 , 해외 관광객
- 4) 관련분야 전문가

○ 주요 사업

1) 상설전

① 운영방향 : 상설전은 해당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전시품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전시를 구성한다. 전시기간은 전시품의 성격, 공간의 환경(온습도 등), 전시유지비용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시장소 : DMZ문화 플랫폼의 성격을 반영한 도라산역의 미디어월을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아카이브 전시를 운영다.

③ 전시방향 : 아카이브 전시

- 아카이브(Archive)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 기원을 두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영구 보존자료를 선별하고 수집하여 보존하는 장소 '기관'을 지칭하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아 선별된 '보존자료'를 말한다. 특히 아카이브는 기록물이 생산되고 활용된 맥락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력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에 소장품의 유일성과 원본성이 중요시되며 증거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점에서 도서관, 인쇄물 중심의 도서관 또는 자료실과 아카이브가 크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 남북 교류 및 DMZ와 관련한 기록물, 연구들을 수집하고 정리, 연구한 텍스트 및 이미지를

※ 아트 아카이브

일반적으로 아트 아카이브는 개인 및 미술관련 조직이 수행하는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되어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미술의 역사는 재구성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목받게 된 예술적 학문적 자료를 의미한다. 시각미술에서는 2000년대 이후 아카이브를 하나의 전략과 수사학으로 제시하면서 다양한 아카이브 형태의 전시를 수행해왔다. 특히 디지털 세대에게는 비선형적 시간개념이 친숙해지면서 시간의 혼재를 통한 효과를 발휘하며 유동적이고 상상적인 역사공간이 현실화되는데 성공하는 전략으로 선택된다.

④ 아카이브 전시 사례



《개성공단》아트 아카이브 전시(2018)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nth2k>)

유동적이며 일시적인 남북교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과 관련한 자료를 전시품으로 활용하여 전시의 콘텐츠에 다양한 층위를 제공하였다. 관람객들은 현대미술 작품 외에 이 자료들을 통해 남북 교류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교류의 의미를 암묵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전시 구현에서도 설득력을 갖는 방법이다.



도라 가르시아 (DoraGarcia·스페인) <녹두서점>
광주비엔날레 2018
(사진출처: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

아카이브 자료들을 활용한 전시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 재현의 전략으로 활용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 설치된 녹두서점은 5.18을 기억하고 경험하기 위한 전략으로 당시 녹두서점이 매개한 메시지와 행위 등을 책과 자료들을 통해 구현한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이 새롭게 수집되면서 아카이빙의 다양한 방안을 보여준다.

- DMZ와 관련한 역사적, 환경적, 행위적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이를 연구 주제화 하 하는 아카

이브 프로젝트 통해 흩어져있던 자료와 기억을 모아 새로운 전시품으로 재생산하고 상설전에 활용한다.

-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상설전으로 활용한다.

2) 기획전

① 운영방향 : 기획전은 상설전과 함께 개관 전후 해당 공간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한 행사로 연 1회 이상 운영한다. 남북 교류와 관련한 특정한 이슈, 장소가 갖는 특징(장소성) 및 시의적 상황을 고려해 최소 3년의 기간을 두고 주제 연구를 통해 준비한다.

② 전시장소 : 출경 뮤지엄

③ 전시방향 : 남북 교류의 영역 안에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주제 및 분야를 선정한다. 공통으로 활용하거나 공유한 자원 및 환경, 사람 등을 주제로 한 교류에 초점을 맞춘 전시로 기획한다.

④ 전시 주제

<사이의 풍경>	<사람들>
75년이라는 분단의 시간 동안 남과 북은 나누어져 각자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다. 인간이 나눈 경계는 자연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경계를 자유롭게 오고가는 DMZ의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나무는 우거지고 뒤얽힌 채 자라나고 강은 그 사이를 흐른다. DMZ 라는 장소를 다양한 분야의 그룹이 해석하고 상징화한 작품들을 초청한다.	남북 분단이래로 헤어진 사람들은 이산가족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만날 수 없다. 문화적 교류의 의미로서 남북이 협의를 통해 월북, 월남한 예술가, 학자, 전문가 등을 조사하여 분단이후 이들의 업적과 예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를 마련한다.

⑤ 남북 교류의 사례

<개성공업지구>

흔히 개성공단으로 불리며, 남한과 북한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이다. 개성특별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 합의 당시에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읍(봉동리)·삼봉리·전재리 지역이었는데, 개성공단사업 직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판문점 인근이 개성특급시 관할이 되었다. 개성특급시의 도심 외곽에서 남동쪽으로 2 km ~ 6.5 km 사이에 위치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최단거리가 2.5km로 비무장지대에서 서쪽으로 고작 500m 떨어져 있으며, 그 규모가 개성시의 도심 면적을 능가한다. 북한의 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6년 2월 10일 남한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고, 다음날인 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남한 측 종사자들을 전부 추방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고려 황궁 만월대는 고려황제와 왕조를 상징하는 정궁(正宮)

으로 470여 년간 지속되다가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됐다. 북한국보유적 제 122호로 지정돼 있으며 만월대를 포함한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제 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만월대 터 약 25만㎡ 중, 서부 건축군 3만3000㎡를 남북이 함께 발굴 조사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약 40여동의 건물터와 금속활자, 청자, 도자기 등 약 1만79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2019년 이의 성과를 전시하였으며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하였다.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 조사>

현재 러시아에 속해 있는 해당 지역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인 1587년 42세 때 조산보(현재의 함경북도 나선시) 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으로 활약했던 곳이다. 이순신 장군은 명·청 교체기를 맞아 세력이 강성해진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고 녹둔도 전투(1587년)에서 크게 승리했다.

현재 함경북도 나선시에는 1882년 지방관이 건립한 이순신 공적비인 '승전대비'와 이순신 사령부가 있던 조산진성이 현존하고 있다. 옛 녹둔도 지역에는 녹둔도 전투의 현장인 녹둔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15세기의 '동국여지승람'부터부터 '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문서에 기록돼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가 교착 상태인 점을 고려해 한·러 분과, 북·러 분과를 각각 구성해 사전조사와 현장답사, 학술대회 등을 마쳤다. 지난해 12월1일(현지시간)과 6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선-둔녹도 이순신장군 유적조사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궁예도성 발굴>

'태봉국 도성', '태봉국 철원성'이라고도 불리는 궁예 도성은 후삼국 시대 905년 궁예가 개성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쌓은 성으로, DMZ 안에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궁예 도성의 외성(外城)은 철원 흥원리 풍천원 일대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걸쳐 있으며, 왕궁터는 북측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는 이곳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무더기로 발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2005년 2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우리말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결성해 집필 중인 국어사전이다. 2018년 기준 남북이 공동회의를 통해 겨레말큰사전의 표제어로 선정한 단어는 약 33만 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는 2005년 결성 이후 2009년까지 총 20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와 4회의 공동집필 회의를 진행하며 편찬 작업을 계속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발하자 5·24대북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공동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4년 7월에 작업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로 2016년에 다시 중단된 바 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시민청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며 대중들에게 겨레말큰사전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관심을 유도하였다.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남북협력구상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한반도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문화재청에 공동 등재를 위한 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DMZ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 및 조사할 때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통일부 주최 교류사업은 별첨 자료 참조

3) 거점공간 프로젝트 지원

① 운영방향 : 프로젝트 지원은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드러내는 프로젝트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한다. 해당연도 전해에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다음해에 작품을 설치하고 오프닝행사를 한다.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심도 깊은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전시장소 : 감시초소 등

③ 전시방향 : DMZ의 장소성을 반영한 예술프로젝트

④ 공모방법

- 장소 및 작품의 방향, 예산의 규모를 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공모한다.
- 신청자격 기준을 제시한다.
- 예술가 제안서를 공모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심의한다.
- 서류접수에 통과된 예술가를 초청한다.
- 현장 워크숍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최종 완성한다.

4) 작품 및 자료의 수집

① 수집대상

- 남북 분단의 역사와 교류,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삶과 변화들을 보여주는 자료와 작품을 수집한다.
- 남북출입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 기획전과 상설전에 출품된 작품과 자료
- 지류 외에도 사진, 영상, 오브제 등을 포함시킨다.
- 국내 및 해외자료도 수집대상에 포함시킨다.

② 수집방법

-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작품을 목록화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소장품 수집 계획을 수립한다.

- 기획전 및 상설전 출품작도 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작품 수집심의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한다.
-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 및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한 자에게 기증 증서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기증 자료는 평가위원회(수집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액의 20%범위 내에서 기증보상금을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집을 위한 조건

- 소장품과 자료는 기관의 성격과 정체성을 좌우하는 요소이기에 소장품(자료) 수집 정책은 충분한 조사 및 연구와 함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아카이브의 활용성, 중장기 기획 전시의 가능성 등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해야 한다.
- 개관 시 수집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며 수집 예산은 매년 책정되어야 의미있는 수집이 가능하다.
- 작품 및 자료의 보존 및 관리, 활용 시스템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5)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기본방향

- 문화플랫폼을 방문하는 주대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한다.

② 세미나 및 포럼

- 기획전과 연계하여 DMZ의 장소성, 남북 교류의 역사 등을 주제로 국내외 해당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를 초청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 전시 및 비엔날레 등의 행사 개최를 전후로 대학교 학기기간을 이용하여 미술과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DMZ의 장소성을 의미화하는 작업에 한반도의 미래 세대들을 참여시킨다.
- 윈스터 조각프로젝트의 경우 전시의 전후 여름, 겨울학기에 학생들이 작가들과 함께하는 프리뷰를 열고 있으며 향후 출판물로 결과물을 전 세계에 공유한다.

③ 워크숍

-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과 외부인, 예술인과 비예술인이 함께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한다.
- 에치고 츠마리<대지의 예술제>에서는 에치고츠마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산간지역에 자생하는 채소를 하바리움이라는 식물표본으로 만드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산품인 식물을 지역 외부의 방문객들이 함께 보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DMZ 지역 또한 자생 식물을 비롯하여 장단콩 등 대표 농작물들을 활용하여 방문객과 더 가까이 교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④ 아트투어 프로그램

- DMZ지역과 접경지역의 경우 안보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일반시민 및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DMZ 문화플랫폼도 개인과 단체를 위한 아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다국어로 진행되는 투어 프로그램은 DMZ를 분단의 상징이자 현실만으로 이해했던 외국인들에게 더 다층적인 의미에서 한반도의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작품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현재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하다.

⑤ 자원봉사 프로그램

- 외부의 예술애호가, 예술전공 대학생,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진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전시 진행과 운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 지역출신의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에치고 츠마리 <대지의 예술제>의 경우 '코헤비'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작가와 지역민의 매개체로 역할하며 현지와 관계 맺는 작품의 결합도를 높이고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5) 조사연구

- 조사 및 연구 업무는 전시, 수집,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DMZ 문화플랫폼의 조사, 연구 업무는 전시방법론 및 정기 전시기획을 위한 연구와 상시 이루어지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료수집과 연구 그리고 학술 및 학예 관련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 조사의 사례

75년, 접경지역의 기억	분단국가 예술연구
1945년부터 분단부터 접경지역에 거주해 온 거주민들은 이미 75세, 노인이 되었다. 이들의 기억 속 분단과 그간의 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아카이빙한다. 크게 간추려지고 생략된 현대사와 분단의 과정의 기록 뒤에 묻힌 개개인의 역사는 이후 분단과 이후의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라고 이야기되지만 독일과 베트남도 분단의 역사를 겪고 통일된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도 사회체제의 차이로 두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기억을 표현하고 있는 해외작가들을 조사하고 서로 다른 배경 아래 분단이 어떻게 다르게 작품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공통점은 무엇인지 조사해볼 수 있다.

6) 교류사업

- ① 방향 : 교류사업은 학예역량의 지속적인 역량과 경험 확대, 네트워크 확장 및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 발전을 통해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② 인적교류 : 외부교육/훈련은 일회성이나 단기 및 중기 등이 다양하게 있으므로 내부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추천된다. 특히 홍콩의 아시아 아트아카이브의 경우 예술분야에 국한되기는 하나 DMZ 문화플랫폼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아카이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기관이다. 단기연수 과정 등을 통해 미술의 현장을 체험하는 한편 아카이빙과 그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ex) Asia Art Archive, Hong Kong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ashington, D.C., 통일인문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③ 기관 교류: 외부 전시기관 및 비엔날레 등과의 교류는 DMZ 문화플랫폼의 정체성과 방향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기존 소장품의 대여, 협동 전시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기획전의 경우 해외 한국문화원 및 관련 기관에서 전시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DMZ 문화플랫폼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ex) 서울미디어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원트리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등)



7) 홍보 및 마케팅

① 목적: 홍보 마케팅은 관람객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관람 환경을 조사하며 관람객의 요구와 기대를 분석해 그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 및 개발하고 이에 대한 재정, 인프라, 촉진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분석 및 조사

- 기존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잠재관람객 분석한다.

구분	항목
인구특성 :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지리특성 :	거주, 미술관에서의 거리, 직장 등
심리적 특성 :	태도 및 기호
방문특성:	단체, 체류시간, 목적, 방문경로

- 매력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할 요구내용을 파악한다.

- 전시와 작품의 효과적인 전달방식에 대한 파악한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계획'을 수립한다.
- 마케팅의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한다.

③ 방안

- 상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 전시 작가와 연계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매체를 다양화한다.
- 셔틀버스 등 이동수단을 활용해 광고물을 게시한다.
-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제공한다.

4. 주요 공간 구상 (지침, 공간별, 구상, 2D/3D)

4.1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1단계)

- 통일미래센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초·중고 학생 단체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문화체험 프로그램, 합수머리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민족 공동체 회복 지원 및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평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광장에 기존에 존재하는 38선의 의미를 성찰하며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 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의 장소성을 재해석하고 현대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체험, 휴식, 놀이가 융복합되는 구심점을 조성한다.

4.1.1 통일광장 현황

- 통일미래센터 정문 차량게이트를 지나 정면에 가로로 펼쳐진 광장으로 3.8선이 지나가고 있다. 연장된 건물 차량의 기둥들이 배치되어 있는 광장에 일정한 간격의 나무들이 배치되어 있다. 광장의 가장자리에 위도 38도선을 가리키는 붉은색 라인이 지나가고 그 끝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공원이 있다.
- 기둥의 물리적 시각적 주목도가 강하며 상대적으로 통일미래센터의 주요한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이나 3.8선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황]

4.1.2 기본 구상

- 중요한 의미를 갖는 3.8선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점에 현재는 띠로만 표현된 38도선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 방문객들이 분단의 시작점이 된 이곳에서 통일미래센터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선에 내러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38선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건축 기둥과 시각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바닥이나 건물 벽면을 활용한 작품을 설치한다. 지면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레벨에 조형물을 설치한다.
- 차로를 가로지르거나 조경과 만날 경우, 시작과 끝 등을 섬세하게 다룬다. 바닥 마감재료의 교체, 조명 등을 함께 고려한다.
- 예산이 확보될 경우 건축 기둥과 천정 구조 등 건축 구조를 활용한 작품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과 교차하는 부분의 공간 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공공미술 사례:



베를린 홀로코스트 미모리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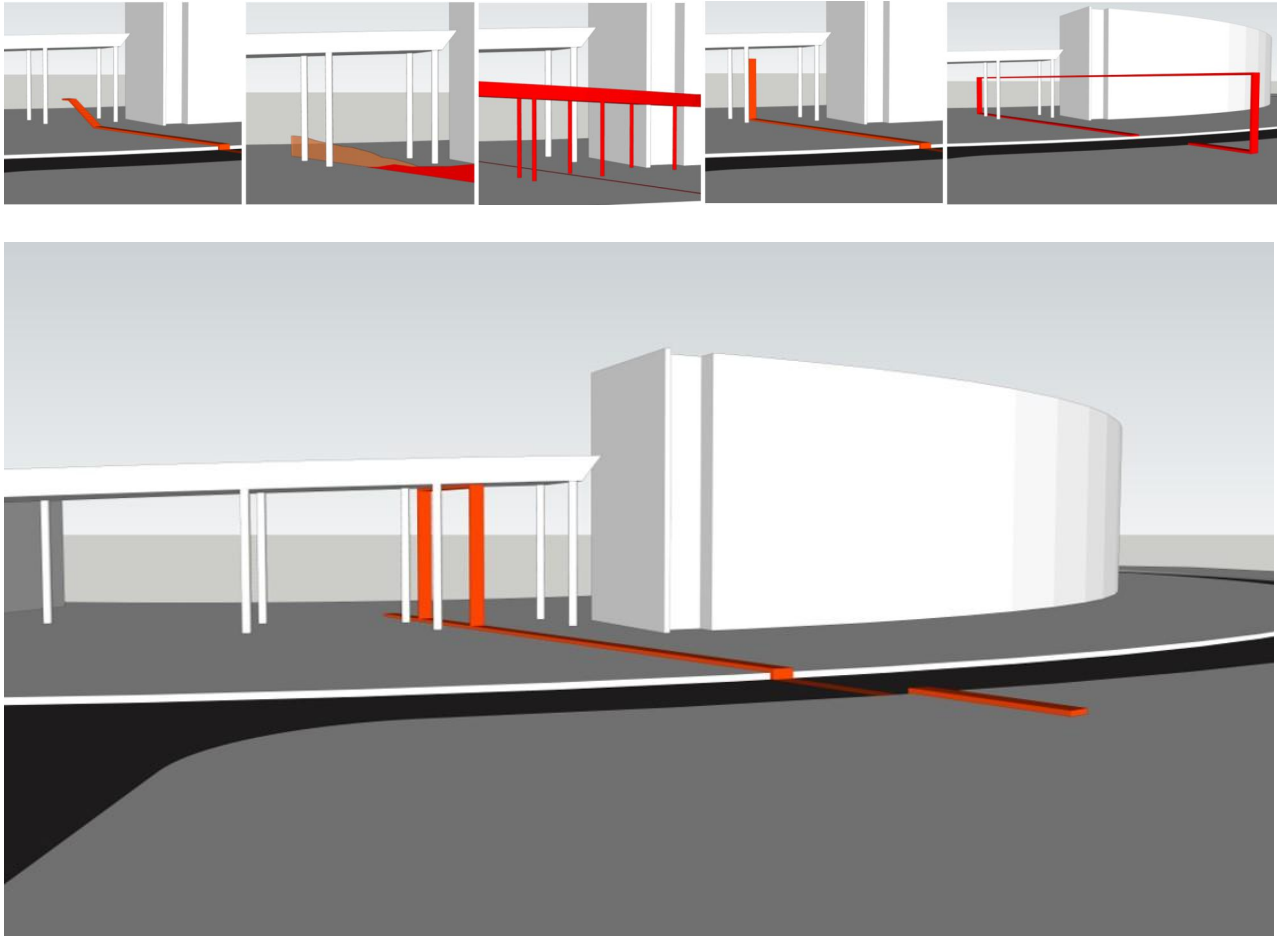
라인 작업: 프란시스 알리스(Francis Alÿs)는 벨기에의 현대미술작가이다. 건축을 공부한 그는 1986년 멕시코 대지진 이후 복구를 위한 국제구호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이주한 이래 멕시코에 정착하여 작품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린라인>은 접경지역의 경계를 따라 걸으며 평화를 상징하는 그린색의 선을 표시하는 퍼포먼스이다.



바닥 작업: 나치 시절에 20만여권의 분서가 일어났던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의 서고를 베벨광장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은 유리로 마감된 바닥아래의 비어진 흰 서가를 감상할 수 있다. 그 옆에는 하이네 시인의 “책을 불사르는 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다. 그는 인류를 불사르는 것이다”라는 시구가 함께 있다.

o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스터디

- 수직적 요소로서 랜드마크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착수 보고 - 기본 방향 제시]

o '분단에서 평화로'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방향 제안

- 중요한 의미를 갖는 3.8선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점에 현재는 띠로만 표현된 38도선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 방문객들이 분단의 시작점이 된 이곳에서 통일미래센터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선에 내려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38선의 의미를 부여하여 분단의 기억에 대한 상징성을 장소성으로 해석하는 1단계, 기존 지형을 따라 원형의 산책로와 조망데크로 확장하고 평화정원의 인프라설비를 구축하는 2단계, 남북 수종이 공존하는 평화정원을 조성하고 부지 전체로 통일된 디자인을 데크 및 바닥마감에 반영하는 3단계로 나누어 시간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
- 한반도 통일미래센터가 가지는 연수/교육 기능과, 지리적, 물리적 환경자원을 고려하여, 분단의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평화의 미래 메시지를 결합할 수 있는 예술+조경 예술의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

o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단계

1) 기존에 설치된 예술 자원을 통합한다.

- 38도 표식
- 베를린 월

2) 물리적 환경 자원을 통합한다.

- 통일광장 중심의 계곡 및 원형 산책로
- 외부 계단 및 무대
- 합수머리 전망대

3) '분단에서 평화로' 이어지는 메시지를 장소성과 결합한다.

- 기억의 예술로서 38선을 확장하는 라인아트
- 건축 캐노피 구조물의 스케일에 대응할 만한 랜드마크 설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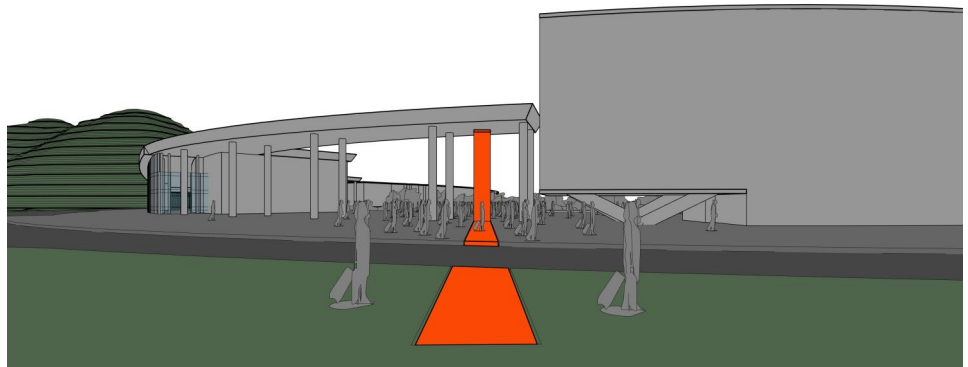
4) 이를 보완하는 요소로서 건축/조경 요소 및 공간개선의 계획을 수립한다.

- '평화의 정원(가칭)'과 원형의 산책로
- 그늘막, 뷰 코리더, 난간, 파볼라, 외부 조명, 데크 디자인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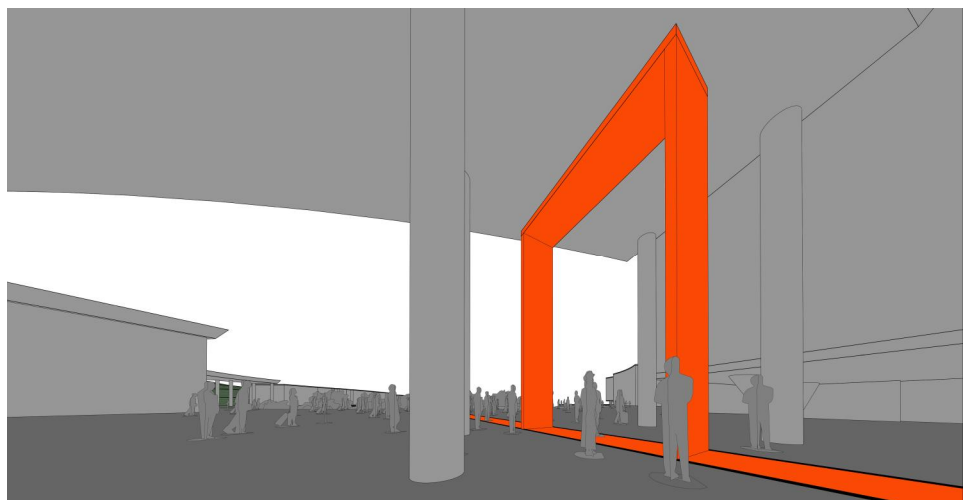
5) 예술과 조경 예술을 결합한다.

- 파빌리온 등 장소기반 예술
- 조망 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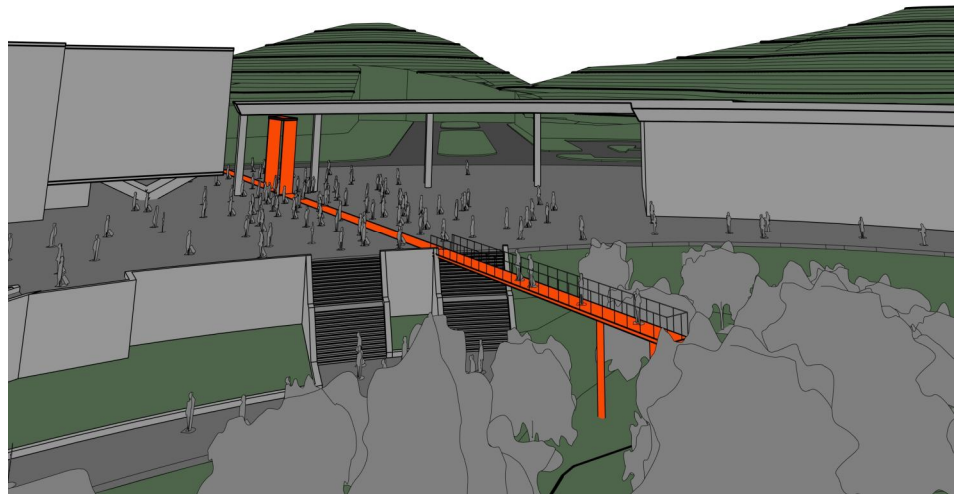
진입도로 > 광장



랜드마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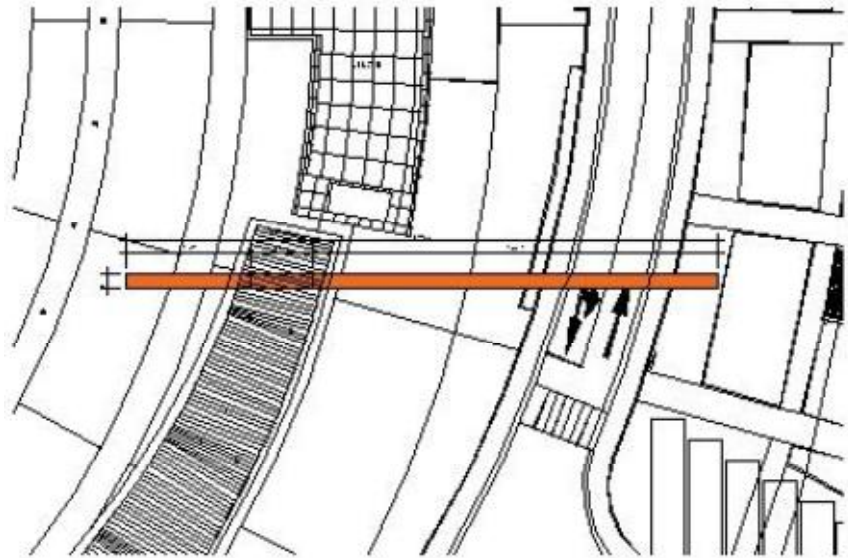
평화의 정원을
조망하는 전망대



- 중간보고 결과, 분단선으로서 38선이 수직적으로 입체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수렴하였고, 과업의 초점을 미래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맞추기로 조정되었다.
- 향후 미래센터의 정체성 논의와 마스터플랜의 수립은 필수불가결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마스터플래너를 선정,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4.1.3 과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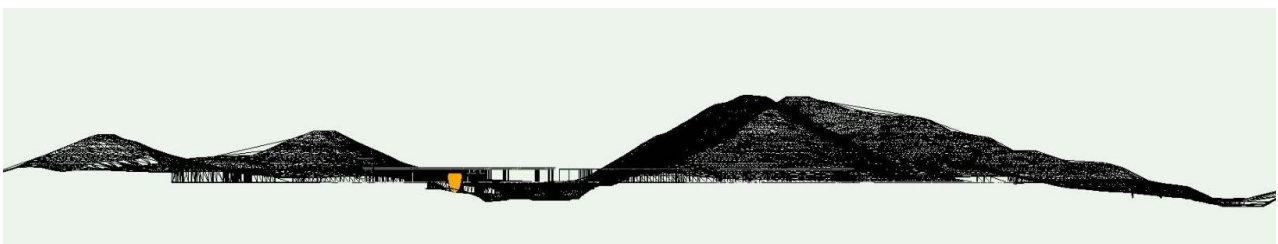
- o 과업명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 o 과업일정 : 2020년 7월 공고
 - 2020년 7월 31일 제안서 심사 및 용역수행자 선정
 - 2020년 8월 17일 공사용역 계약 체결
 - 2020년 8월 31일 계획안 보고
 - 2020년 9월 공사 용역 수행
 - 2020년 10월 오픈
- o 과업비 : 금240,000,000원 (작가비 4천8백만원, 설치비1억9천2백만원)
(조사분석, 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시공비, 예술작품비, 부대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 o 과업 범위 :
 - 38선을 현대적으로 해석, 새롭게 읽어내는 장소기반예술을 조성한다. 기존 설치된 38건 구간을 포함하여, 통일광장으로 확장하여 바닥면에 매입된 라인 아트(line art)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조명 및 바닥마감 재료 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진입도로 부근에 위치한 베를린 월 기증작품과 38도 표식을 포함하여 시작점의 디자인을 제시한다.
 - 기존 건축물의 캐노피 하부 또는 통일광장에 장소성을 고려, 기념비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예술작품(조형물)을 제안한다. 장소적 특성에 따라 수직성과 수평성이 분화되면서도 재료의 통일성, 디테일의 일관성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연속성 있고 통합된 디자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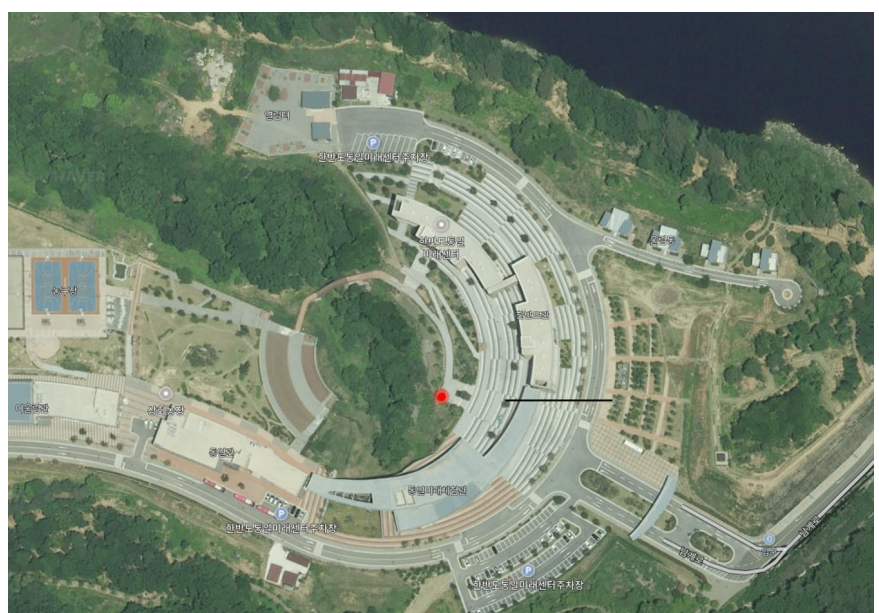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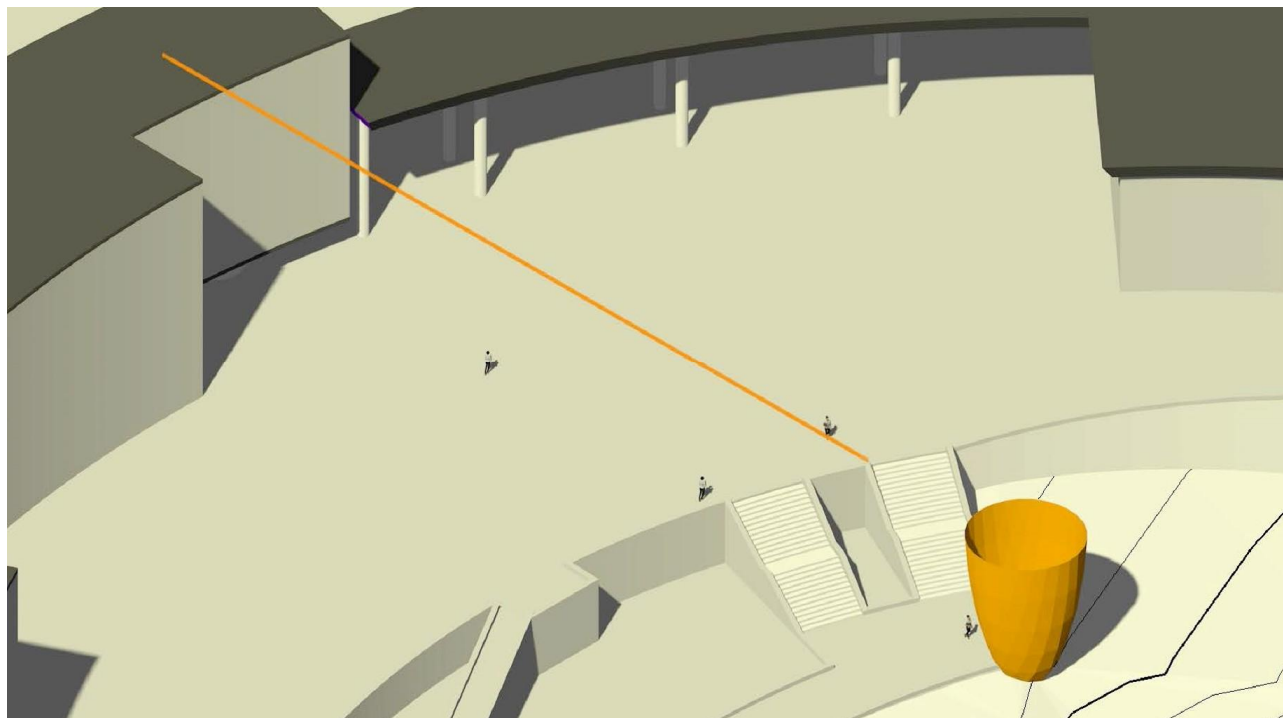


[38선을 확장하는 라인 아트
설치 구간]

4.1.4 작품 선정 - 'Korean Double'

- o 작가 선정 : Goetz Stockmann + Gabriela Seifert (독일)
- o 예술작품 명 : Korean Double, 38' parallel + vessel of peace
- o 공사용역대상자 선정 : 아트인테크
- o 작품 개요 :
 - 5미터~20미터의 지름으로, 계곡 수면위 6미터에, 광장 레벨에 윗면이 맞춰진 랜드마크와 60미터 길이의 수평성을 가지는 라인을 결합한 설치예술로서 두 개의 구별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안이다.
 - 수직요소인 '용기vessel'는 연천 신석기 유적 토기를 연상시키며 통합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원형의 기하학을 제안한다. 10mm의 콜텐철판으로 삼각형 패턴모듈을 가지도록 구축되고 토기의 무늬와 유사한 패턴의 타공으로 안과 밖이 연결된 열린 공간으로 확장한다.
 - 수평요소인 30cm의 폭, 40cm의 깊이의 금속 박스로 매입되는 38선은, 예술적으로 프로그램된 LED의 띠로서 추상화된 메시지를 빛으로 전달, 시간과 거리의 비율에 따라 움직이는 수평적 움직임을 보여준다. 분단을 의미했던 38선은 미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랜드마크로의 지시선으로 전환된다.





52

4.2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가칭 '출경 뮤지엄') 조성 (1단계)

- o 동서방향으로 놓여진 휴전선이 남북간 수평적 나뉘를 의미한다면, 출입사무소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수직통로이다. 구 출경동은 구 장단면 사무소를 거쳐 철거 감시초소로 향하는 파주 평화의 길 길목에 위치한다.
- o 출입의 경계로서 구 출경동이 가지는 의미와 독특한 장소성의 가치를 문화예술협력 공간 거점의 물리적 특성으로 담아낸다. DMZ 내 최초의 전시장으로서 문화예술을 통해 미래 통일 인프라와 연계되는 창조적 공간이 될 것이다.
- o 공간의 조성부터 예술작품의 제작, 전시, 그리고 향유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세계인의 참여를 지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평화예술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4.2.1 구 출경동 현황

- o 출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가진 구 출경동은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던 시절, 남쪽의 기업들이 출입절차를 밟던 곳이다. 출입시설 신축 당시 임시 입출경 2동을 신축하여 출입시설 준공까지 임시출입시설로 활용하였으며, 현재의 출입사무소로 기능이 이전된 이후 입경동은 철거되었고 출경동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o 구 출경동은 5미터의 천장고를 가지는 홀을 주변으로 ㄷ자 형태로 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홀은 콘크리트 가구구조가 드러나는 오프닝 및 벽체의 삼면과 출입게이트를 조망하는 커튼월, 상부의 측창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o 외관의 목재프레임 타워는 준공식 등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재료가 노후화되어 개선 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으나 디자인의 연속성은 유지하도록 한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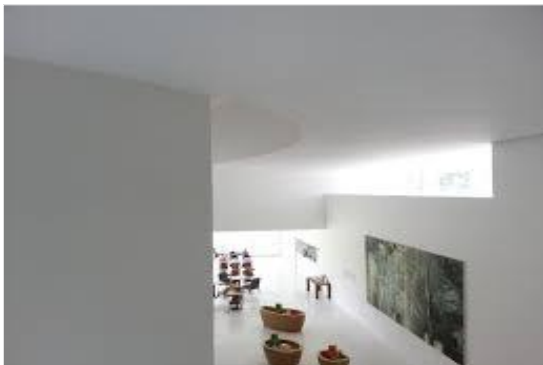
4.2.2 기본 구상

- 구 출경동 공간이 가진 속성을 최대한 살려 역사성과 공공성을 살린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한다. 부가적으로 덧대어진 마감재를 철거하고 주된 홀은 화이트박스로, 이보다 천장고가 낮은 인접실의 일부는 블랙박스로 계획한다.
- 남북 교류를 주제로 한 전시공간으로 기획하며, 조망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출입구 부분을 리모델링한다.
- 남측 방풍실의 외벽으로 조성된 목재프레임의 타워는 출경동 개관식부터 역사적으로 상징성을 가져 온 요소이다. 현재 노후화되어 개선이나 교체가 필요하나 원래 가지고 있던 요소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주차 및 진입 광장에 면한 측벽이 일반인의 접근 시 주된 외벽면이 되므로 마감재 및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주된 파사드로 역할을 하도록 하며, 더불어 측창과 입구 캐노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

○ 리모델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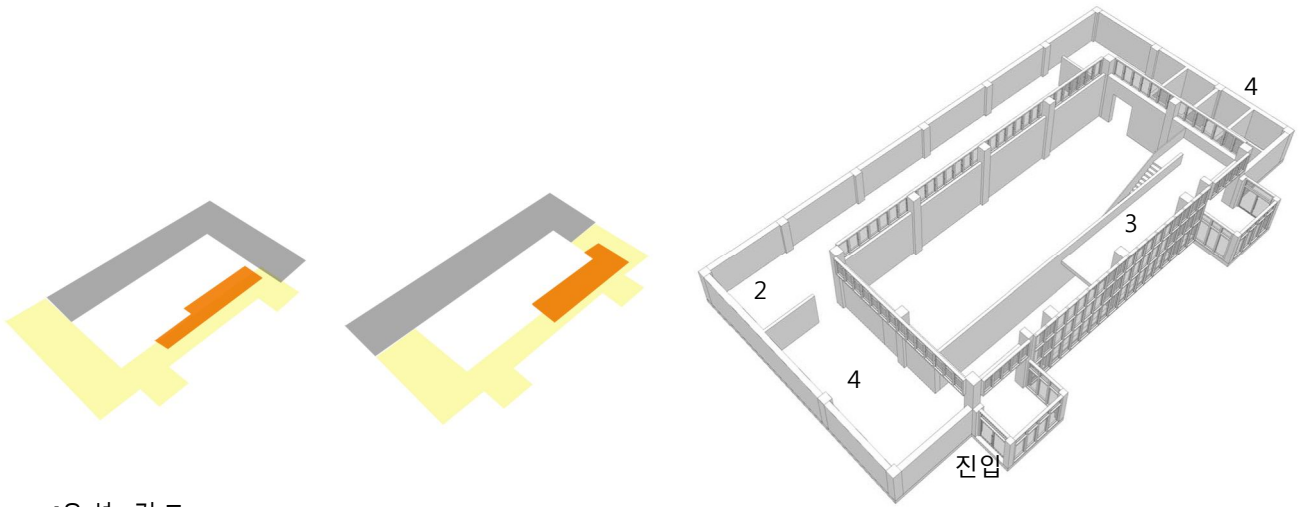
Neue Museum, 베를린, 데이비드 치퍼필드
베를린의 뮤지엄 아일랜드에 위치하며, 프리드리히 오거스트 스톨러가 1841년~1859년에 설계, 준공된 Neues Museum을 영국의 데이비드 건축가가 리모델링한 작품이다. 원래의 볼륨을 완성하고 2차대전 때 파괴되고 남은 부분들의 복구와 회복하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 베니스 현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고고학적 복구를 시도하였으며, 보존의 서로 다른 상태에 따라 추가된 역사적 구조물을 존중함을 주된 디자인 의도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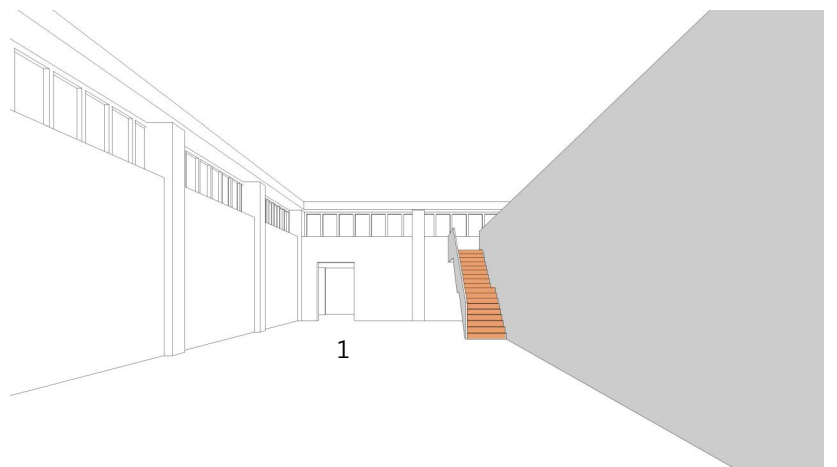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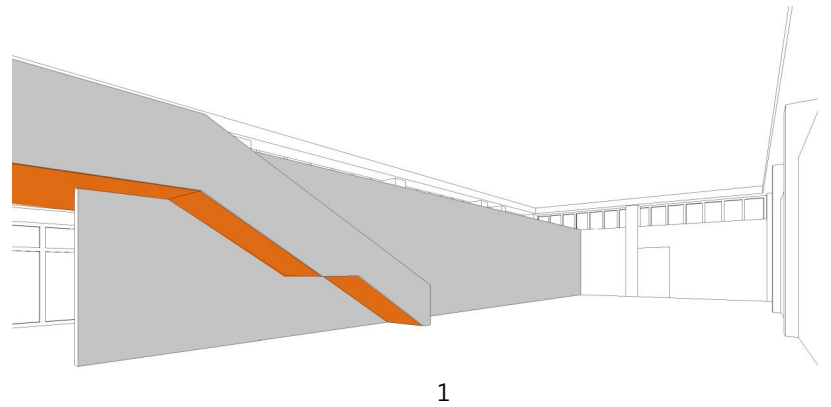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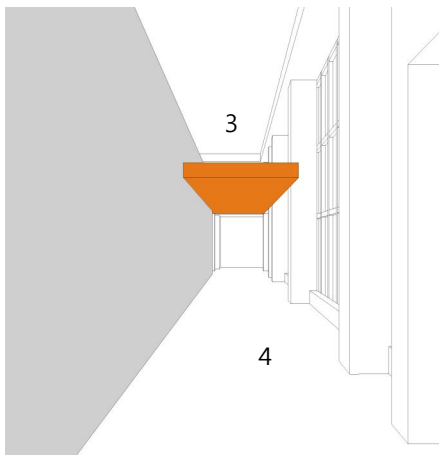
미메시스 뮤지엄, 파주, 알바로 시자
"원리에 있어 매우 닫혀있고, 모든 빛은 지붕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건축가 시자의 말처럼,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흰 벽면과 지붕이 만나는 틈의 측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전시공간의 주된 특징이다. 외부 맥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물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던 설계 조건을 반영한다. 매우 내향적이고 몰입감을 강조하는 전시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기본 구상을 위한 스터디

- 미술관의 공공 영역과 전시 영역의 구성에 대한 초기 검토를 진행하였다.
- 건물이 가진 전면성을 강조해 공공 영역(노란색)을 두고 부속실의 일자형 배치를 활용해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옵션 2가 기본방향으로 채택되었다.
- 중층을 두어 조망과 휴식을 겸한 느슨한 전시실(주황색)을 설치하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중층이 설치될 경우, 전시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과 함께 피난 및 안전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과 구조보강 등 관련 법제 및 계획 고려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옵션 검토 -
화이트박스과 블랙박스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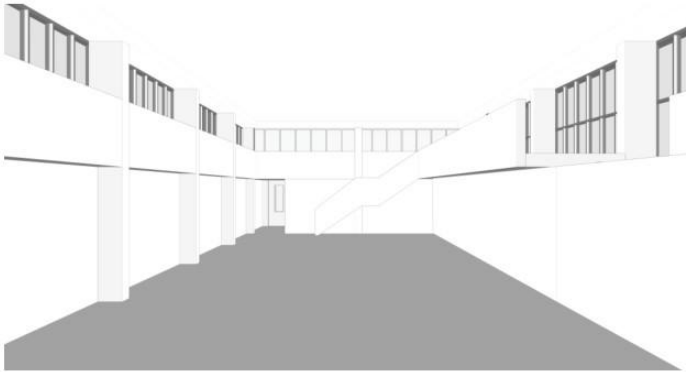


- (1) 메인 홀을 화이트박스로 구성
- (2) 인접 실을 블랙박스로 계획
- (3) 중층 전시실+전망데크
- (4) 인포-카페 / 화장실
- [기본 방향으로 선정된 옵션 2]
- [중간보고- 출경 뮤지엄 (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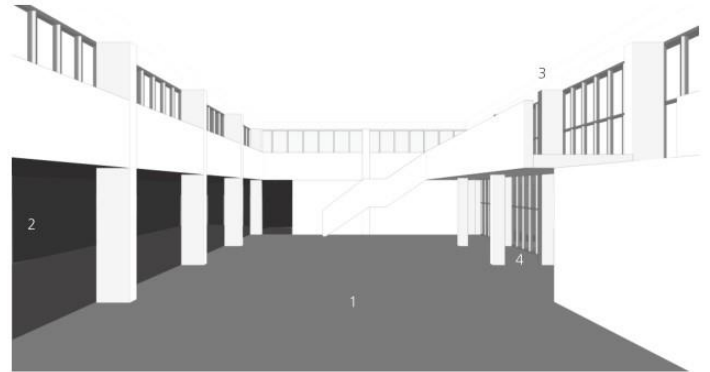
DMZ

아트플랫폼

출 경 뮤지엄
博物館出境
Museum Chul G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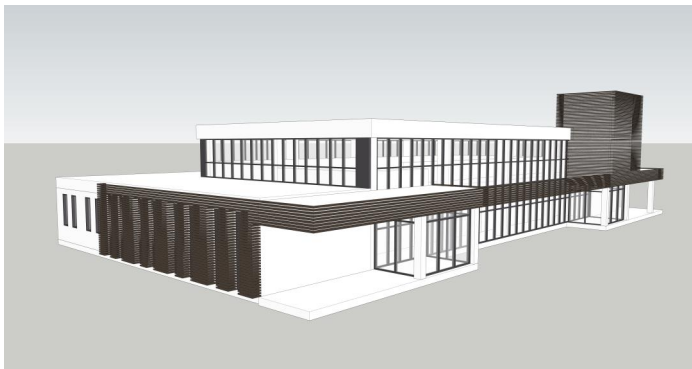
화이트박스 - 닫혔을 때



열렸을 때

1. 화이트박스
2. 블랙박스
3. 조망갤러리
4. 복도갤러리

- 채택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시공간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융통성있는 계획 방법을 검토하였다. 화이트박스에 인접한 블랙박스의 일부 벽을 폴딩 또는 슬라이딩의 방식으로 열고 닫는 방법이다.
- 자문회의를 거쳐, 다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수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 확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중층 및 라운지에 면한 벽체를 여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 주된 출입구는 진입로 및 주차장에 인접한 방풍실이 사용될 예정이다. 남측 방풍실의 경우 작지만 외부에 면한 '글라스박스' 전시실로 몰입도가 높은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게이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경 차량을 조망하는 동시에 전시 관람이 가능한 중층 전시실과 함께 구 출경동의 독특한 속성을 담아내는 전시공간이 될 것이다.



[외관 리모델링 검토]

4.2.3 과업 개요

- o 과업명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
- o 과업일정 : 2020년 8월 용역수행자 선정
2020년 9월~10월 설계용역
2020년 11월 공사용역 수행자 선정
2020년 12월 준공
- o 사업비 : 금 1,738,484,000원 (설계비 83,613,000원, 감리비 20,926,000원, 시공비 1,630,196,000원, 시설부대비 3,749,000원)
*철거 및 보존 감시초소 사업비 포함된 금액임.

- o 과업 개요 :

구 출경동	기존	증축 후
준공일	2003년 1월초	2020년 11월 예정
용도	공공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부지면적	약 2,516㎡	약 2,516㎡
연면적	676.50㎡	759.76㎡
규모	지상 1층	지상 2층

- o 실별 면적 :

	실명	면적(㎡)	비고
1층	방풍실	12.45	
	홀	54.90	
	복도	55.00	
	화장실(남)	11.02	
	화장실(여)	9.79	
	기계실	41.55	분전반, 알람벨브실, 소화수조 등
	전시실1	257.04	
	전시실2	53.10	
	전시실3	37.80	
	전시실4	75.60	
	전시실5	37.80	
	전시실6	36.00	
2층	전시실7	12.45	
	전시실8	65.26	휠체어리프트 포함
합계		759.76	

* 현장 조건 및 기계실 계획에 따라 면적 조정은 가능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시실의 구성 및 면적에 대한 변경은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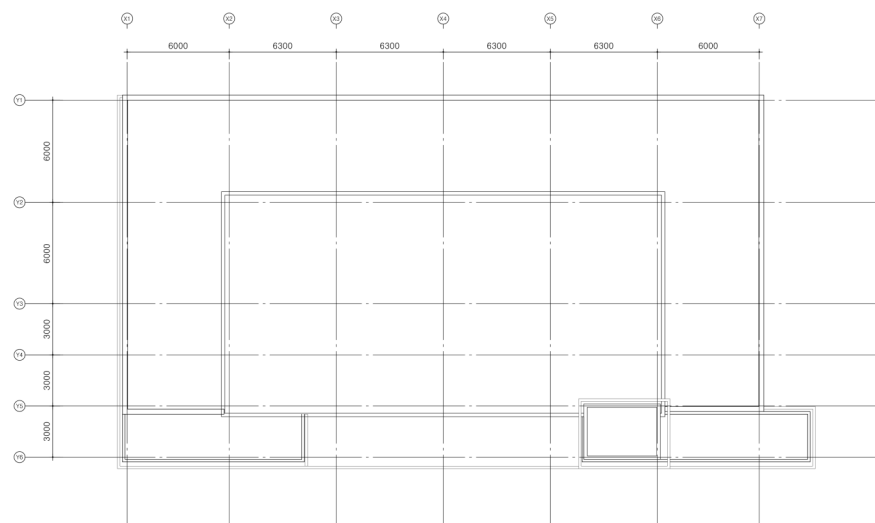
- o 과업 범위 :

- 전시장으로서의 용도변경, 증축 및 대수선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포함하여,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전시 인테리어 기본 및 실시설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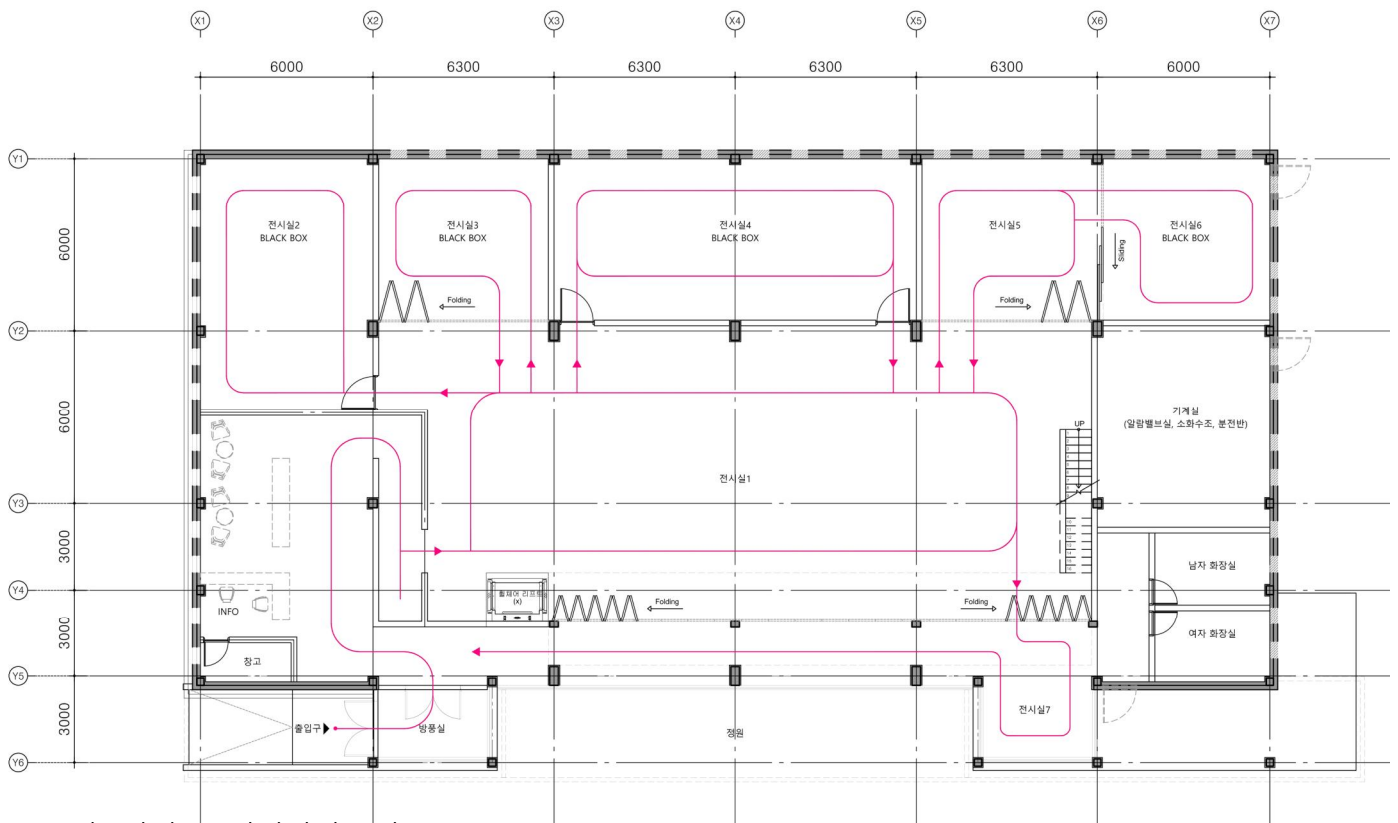
- 주차 및 진입 광장에 면한 측벽이 일반인의 접근 시 주된 외벽면이 되므로 마감재 및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주된 파사드로 역할을 하도록 하며, 더불어 측창과 입구 캐노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외관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한다.
- 두 방풍실의 내, 외부 창호 및 천장재 교체를 통해 단열성능 및 외관을 개선한다.
- 남측 방풍실의 외벽으로 조성된 목재프레임의 타워의 외부마감 개선 또는 교체를 포함하며, 파사드의 통일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전면 커튼월에 면한 방풍실 사이 외부 공간에 대한 조경 계획을 포함한다.
- 기존 외부 마감재 및 창호 개선 또는 교체, 지붕 방수 및 파라펫 보수 등 건물의 방수 및 단열성능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 옥외 주차장의 주차구획 재배치, 진입 마당 및 진입로 계획을 포함한다.
- 내부 비내력벽 벽체는 기본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전시 개념에 따라 전시장을 조성한다. 부가적으로 덧대어진 마감재를 철거하고 주된 홀은 화이트박스로, 이보다 천장고가 낮은 인접실의 일부는 블랙박스로 계획한다.
- 조망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담는 열린 전시실로서 중층을 계획하며 내부 계단 및 장애인휠체어승강기를 계획한다.
- 중층에서 연결되는 옥상정원 조성 또는 외부 테라스 증축 가능성을 검토하며 이에 대한 구조 보강, 창호 교체, 지붕 공사 범위를 비교, 검토 후 선택된 안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2.4 기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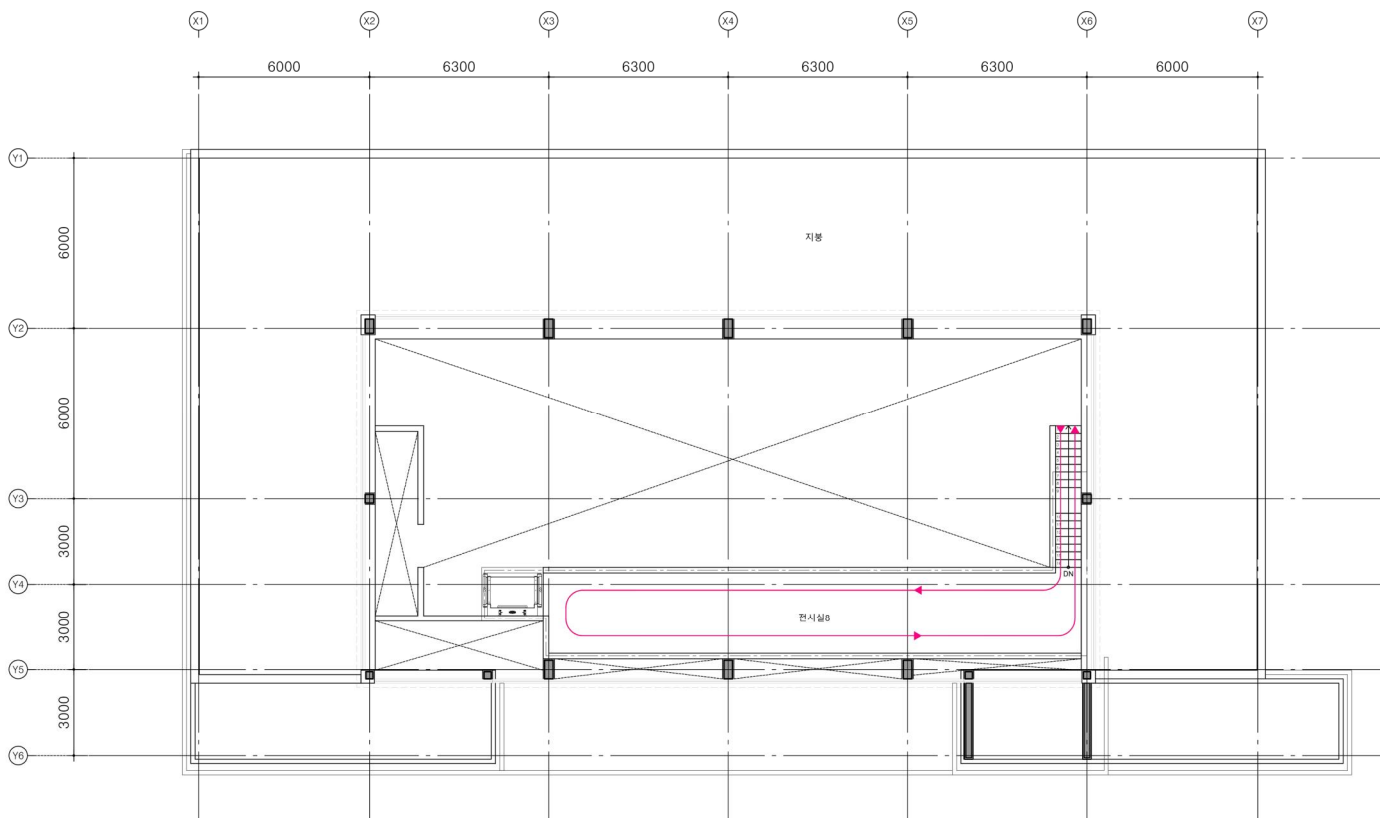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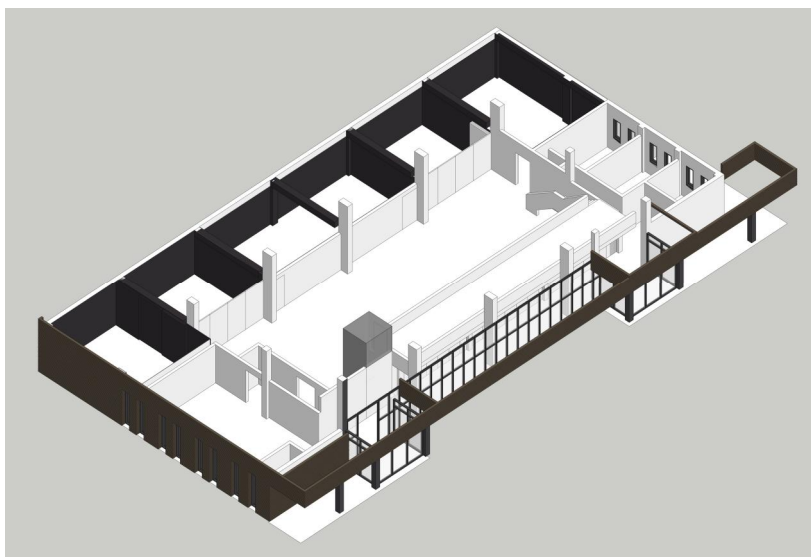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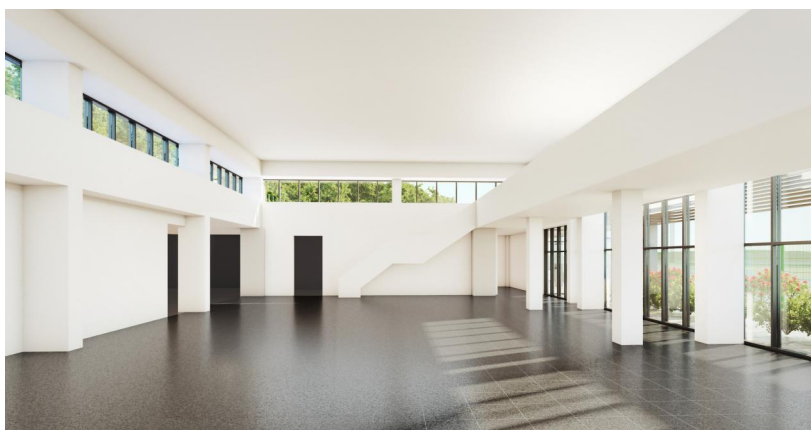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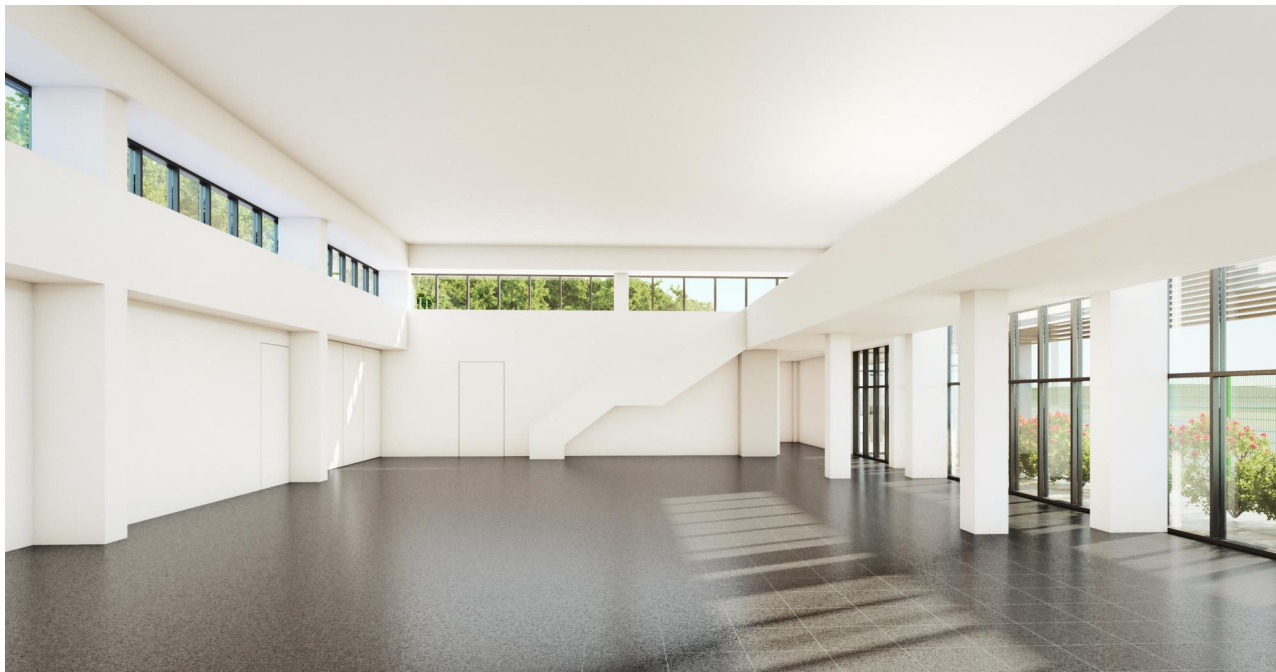
100%	이원도출력지(주)	000000	0000	0000.00	0000	1:2000000
김포시의 문화예술공간	출판물 관리	100%	배치도	00		



[1층 평면도 + 전시관람동선]



[2층 평면도 + 전시관람동선]



[전시장 내부]

* 전시조명 등 인테리어 계획을 반영하기 이전으로 전시장 구성을 반영하는 참조 이미지이다.



[구 출경동 외부]

4.2.5 추가 검토 사항

○ 인허가 관련 법규 검토

- 용도변경 : 구 출경동은 건축물대장상 공공업무시설임.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로 변경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건축법제19조제2항).
- 증축 및 대수선 : 본 과업의 전시장 조성은 약 65m²의 면적 증가가 수반되므로 증축에 해당하며, 외벽면적 30m²를 넘는 외관 재료의 교체로 인한 대수선에 해당한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m² 이상이며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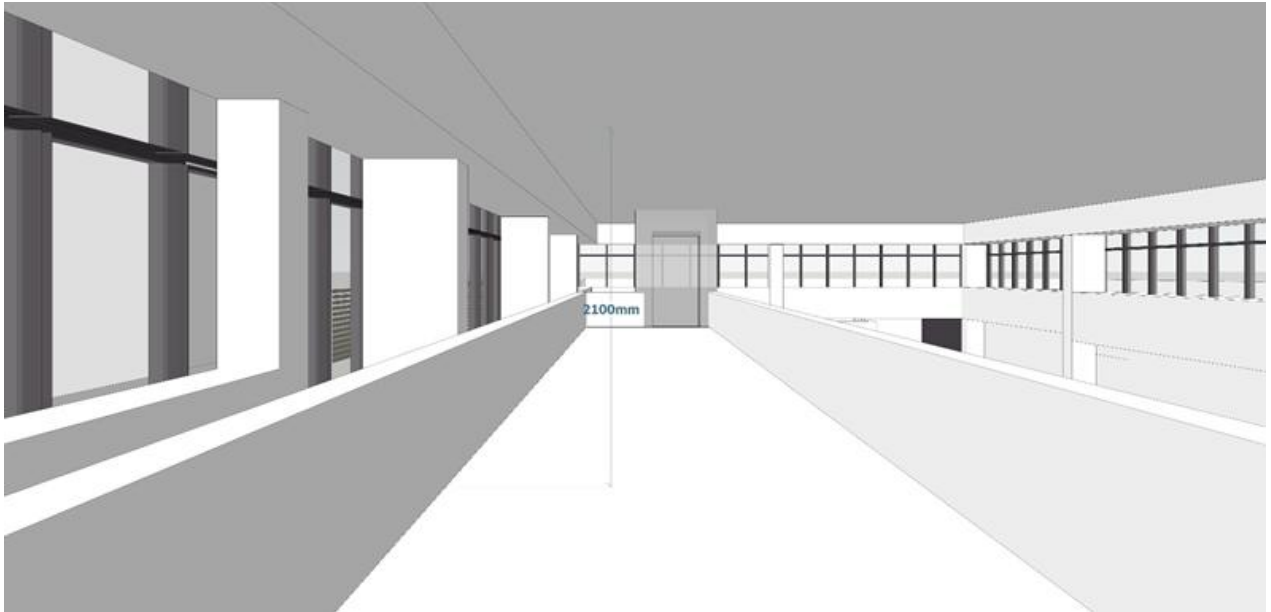
○ 내화/방화/피난 법규 검토

- 내화구조에 해당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한다 (건축법제12조제1항). 최신 소방법규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시 면제 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
-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에 접하는 피난 복도의 경우 폭 1.8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 피난동선에서 거리가 먼 전시실의 경우 별도 피난출구를 검토한다. 화장실 인접 복도에서 직접 피난출구를 검토하여 라운지를 통과하지 않는 피난동선이 가능하도록 한다.

○ BF 인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여부 검토

- BF 인증의 경우 공공이 발주하는 신축공사에 적용하며, 본 사업은 증축공사로서 해당되지 않는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문화및집회시설 중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장은 설치 대상이다. 공공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에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편의시설 기준 및 종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중 대변기,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 및 경보/피난설비, 그밖의 시설로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이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4조 참조).



[기본 계획 - 중층 전시공간 및 장애자휠체어승강기 설치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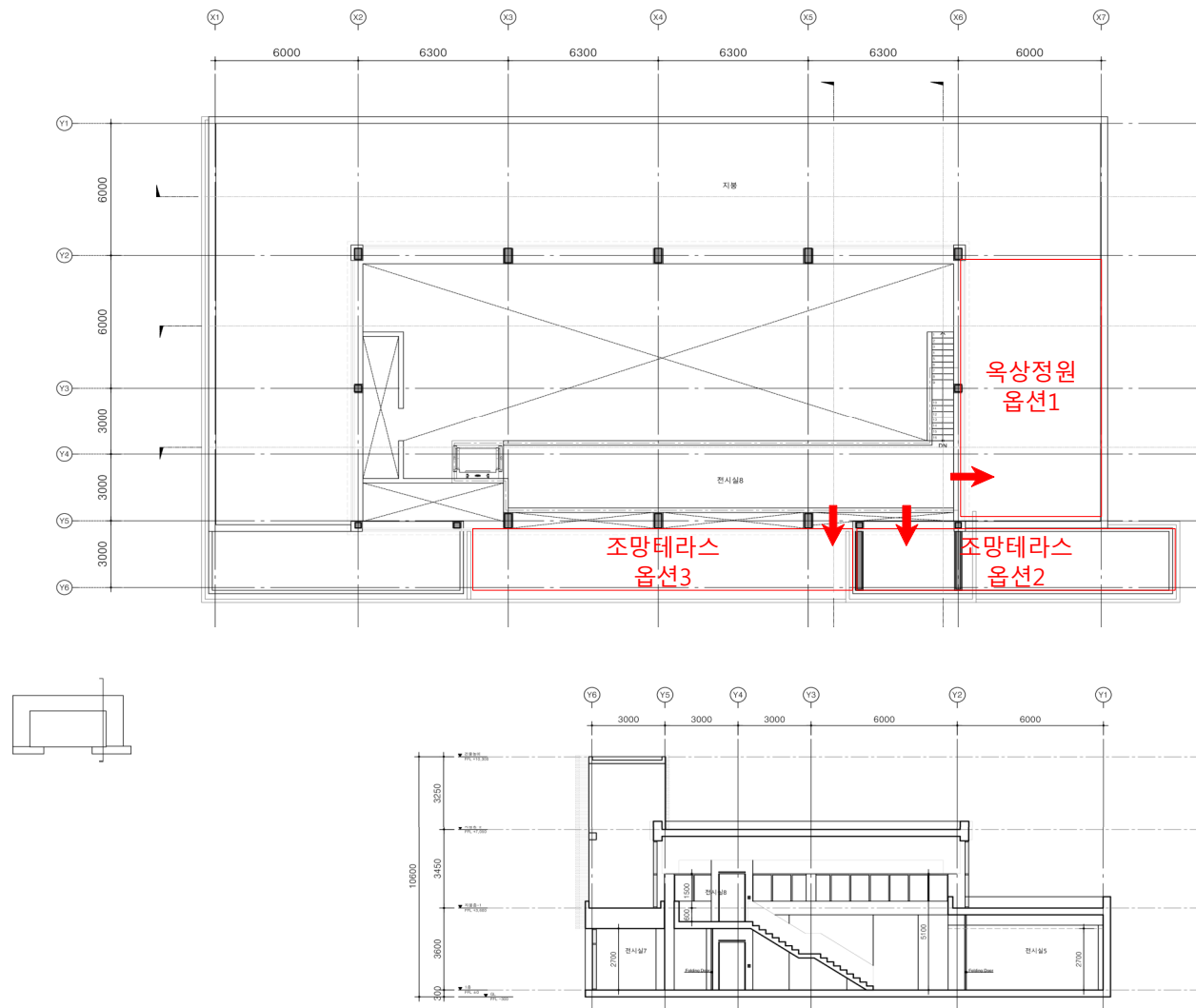
o 구조 보강 검토

- 공공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로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장애자휠체어리프트 설치 시 구조 보강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용도변경에 필요한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설계와 중층 공사를 위한 구조보강설계에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o 소방설비 법규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며(영 별표5 제1호 가목의 1) 연면적 33㎡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다(영 별표5 제1호 라목 1)의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수용인원 산정은 영 별표4 제2호 나목 해당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를 근거로 했을 때 약 165인이므로 해당 대상이다.
- 구 출경동에 비상경보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비상경보(단독형 발신기)설비 및 유도등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o 옥상정원 가능성 검토



- 옵션1은 기존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는 안이며, 옵션2는 기존 목재프레임으로 마감된 타워를 통해 캐노피 천장을 조망 데크로 조성하는 안이며, 옵션3은 중층과 같은 레벨에 새롭게 철제 루버 바닥을 설치하여 조망 테라스를 조성하는 안이다.
- 옵션1은, 새로 증축되는 중층 레벨과 옥상정원 레벨 차가 있어 이를 연결하는 계단 또는 경사도가 필요하다.
- 전시 홀의 천장고는 현재 5.1m이며 천장 존치를 전제로, 중층의 천장고를 2.1m로 기본 방향을 잡아 제시하였다. 옵션1과 옵션2의 경우, 옥상정원의 바닥마감면은 중층보다 60cm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옥상정원 연결부의 기존천장을 제거하여 천장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 옵션 2는 기존 구조에 대한 진단과 보강이 필요하며 옵션 3의 경우 테라스를 지지할 신설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측창의 높이는 1.5m로서 연결부분의 창호는 제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3 철거 감시초소 문화예술공간 조성 (1단계)

- o 최근에 남북이 함께 한 협력 중 가장 상징적 공간으로 분단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공간에는 잔해만 남은 감시초소와 철조망이 남겨져 있으며 조성된 길을 따라 멀리 북한을 조망하며 분단의 현실, 공존을 위한 노력의 현재를 느낄 수 있다.
- o 감시초소를 통해 적대적으로 대립했던 지난 역사를 체험하고, 장소 및 공간을 조형화 한 작품 및 공연 등 전세계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예술을 매개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4.3.1 철거 감시초소 현황

- o 휴전선 감시초소(Guard Post)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하고 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평화를 약속하며 남북이 함께 폭파시킨 철거 감시초소는 유엔관리 구역이지만 평화의 길로서 제한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위. 철거 전 및 철거 후 | 아래. 현황 - 소개 판넬 및 철거 후 남겨진 감시초소의 벽체

4.3.2 기본 구상

- o 남북이 합의한 철거의도를 유지하며 현황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 o 현재 남아 있는 지형 및 지장물 이상으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물은 협의가 필요하다.
- o 전파장벽, 소음제한 등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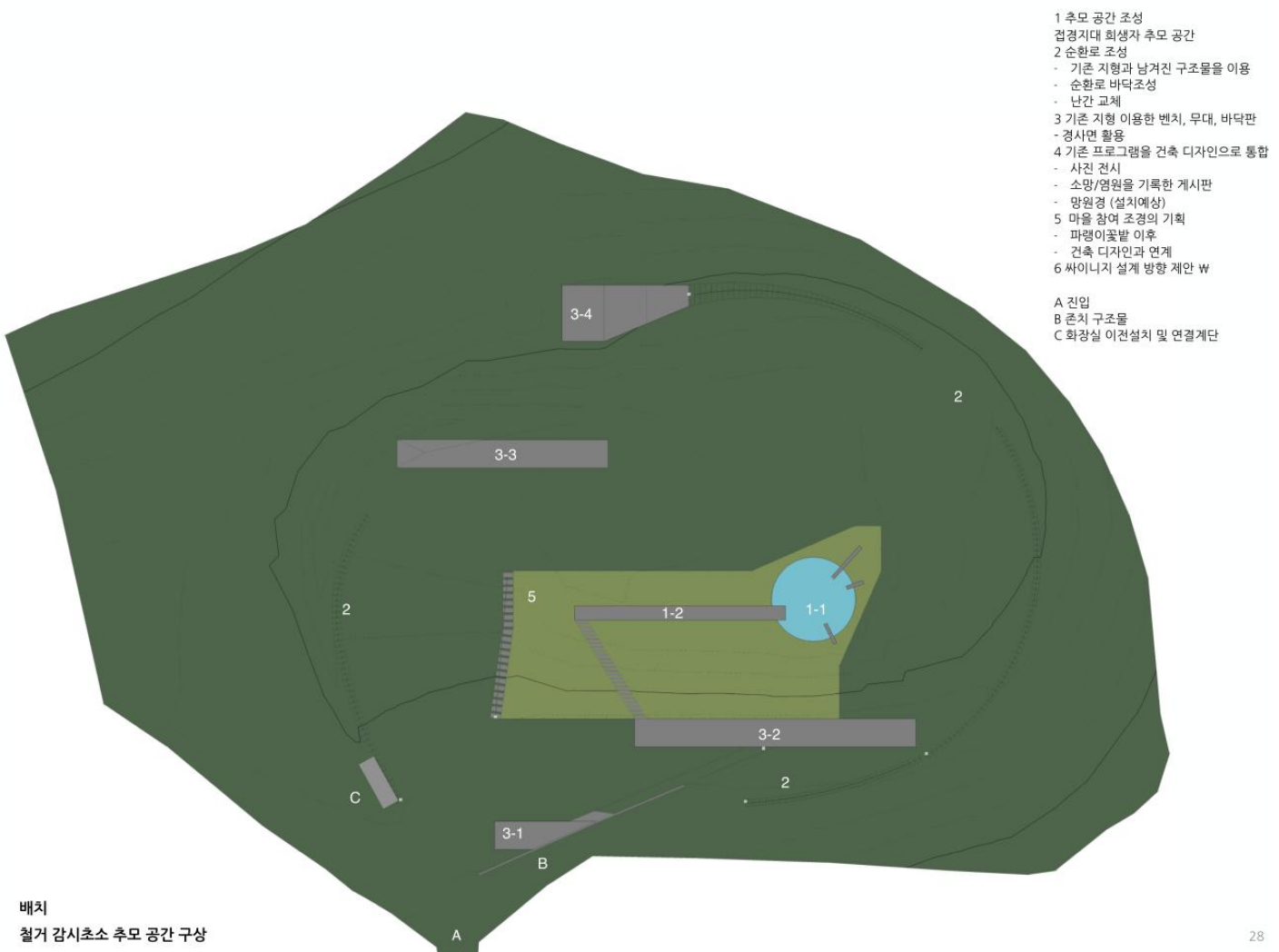
- o 기본 구상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순환로 조성
 - 기존 지형과 남겨진 구조물을 이용하여 야외 전시 및 추모 공간에의 접근을 위한 순환로를 조성한다.
 - 바닥데크 및 간접 조명을 일부 설치할 수 있다.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난간의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
 - 2) 기존 지형을 이용한 무대, 벤치 및 바닥판 조성
 - 두 개의 구릉 경사면을 활용하여 순환로의 일부에 조성 가능하다.
 - 3) 기존 프로그램 요소를 통합하는 디자인
 - 사진 전시, 소망/염원을 기록한 게시판, 망원경 (설치예상) 등을 재배치하여 디자인에 반영한다.
 - 4) 마을 참여 조경의 기획
 -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파랭이꽃밭이 이미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이 조성될 조경 계획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5) 사이니지 방향 제안
 - 이번 과업에 사이니지 설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o 추모공간 사례 - Memorial to the Sinti and Roma Victims of National Social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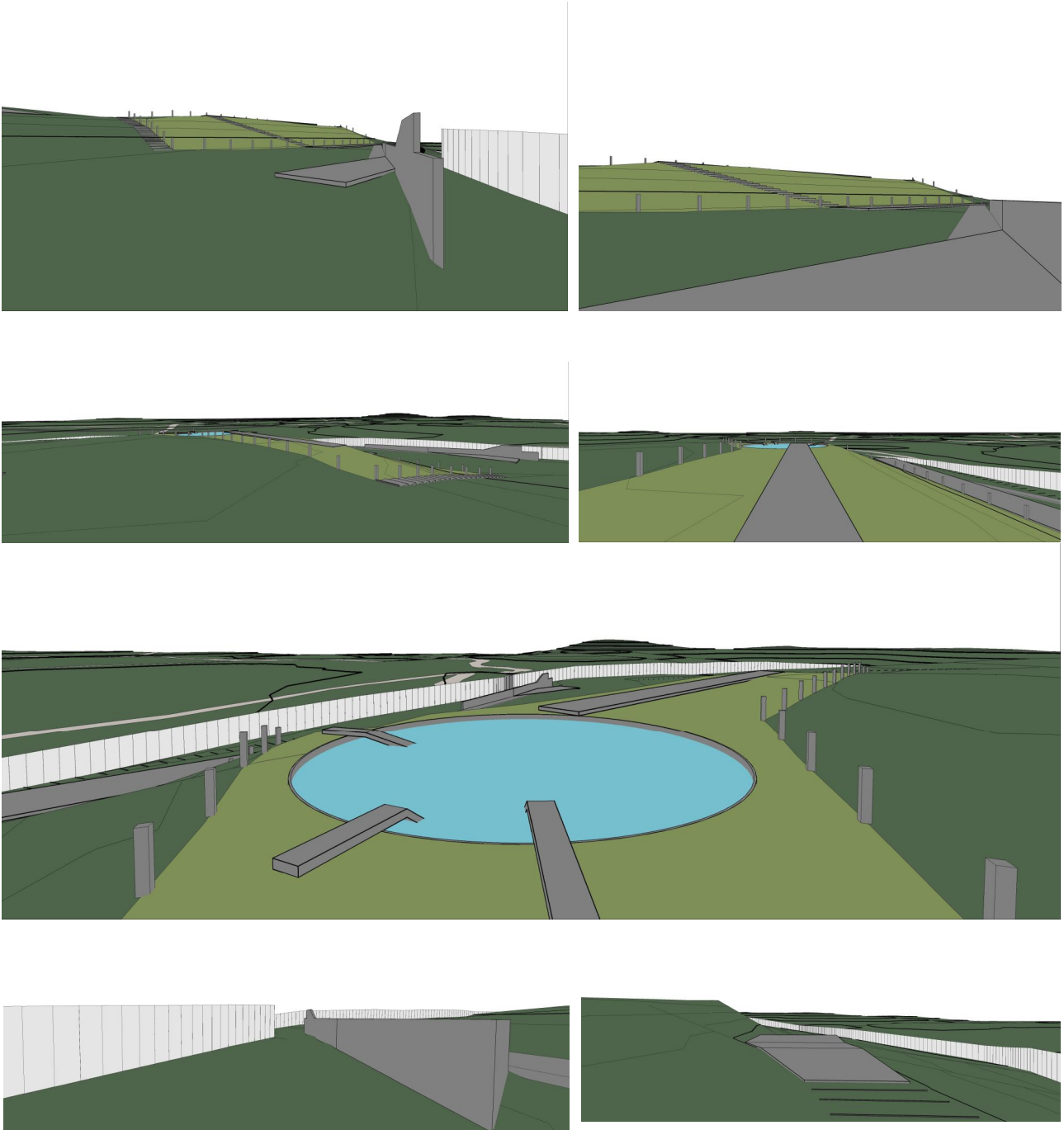


출처: 위키피디아

- 베를린에 위치한 추모연못은, 국가사회주의 신티/로마 집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포라모스에서 벌어진 유럽 신티/로마 민족에 대한 나치의 인종 몰살 시도 희생자 220,000-500,000명의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은, 이스라엘 예술가 다니 카라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원형의 연못과, 연못 중심에 설치된 삼각형 석재로 구성된다. 삼각형 석재는 수용소에 갇혔던 수감자들이 달아야 했던 배지를 참조해 디자인되었고, 매일 생화가 놓여지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다. 비록 이 연못은 포라모스에서 살해된 모든 집시를 애도하는 기념비이기는 하나, 연못의 가장자리를 따라 브론즈로 새겨진 글자는 특별히 산티노 스피넬리라는 로마 집시민족의 시인의 '아우슈비츠'라는 시이다.



[중 간 보고 기본 구상 - 배치]



[중 간보고 기본 구상 - 순환로 및 추모연못]

4.3.3 과업 개요

- o 과업명 : 철거 감시초소 문화예술공간 조성
- o 과업일정 : 2020년 8월 용역수행자 선정
 2020년 9월~10월 설계용역
 2020년 11월 공사용역 수행자 선정
 2020년 12월 준공

- 사업비 : 금 1,738,484,000원 (설계비 83,613,000원, 감리비 20,926,000원, 시공비 1,630,196,000원, 시설부대비 3,749,000원)
*구 출경동 리모델링 및 철거 및 보존 감시초소 사업비 포함된 금액임.

○ 과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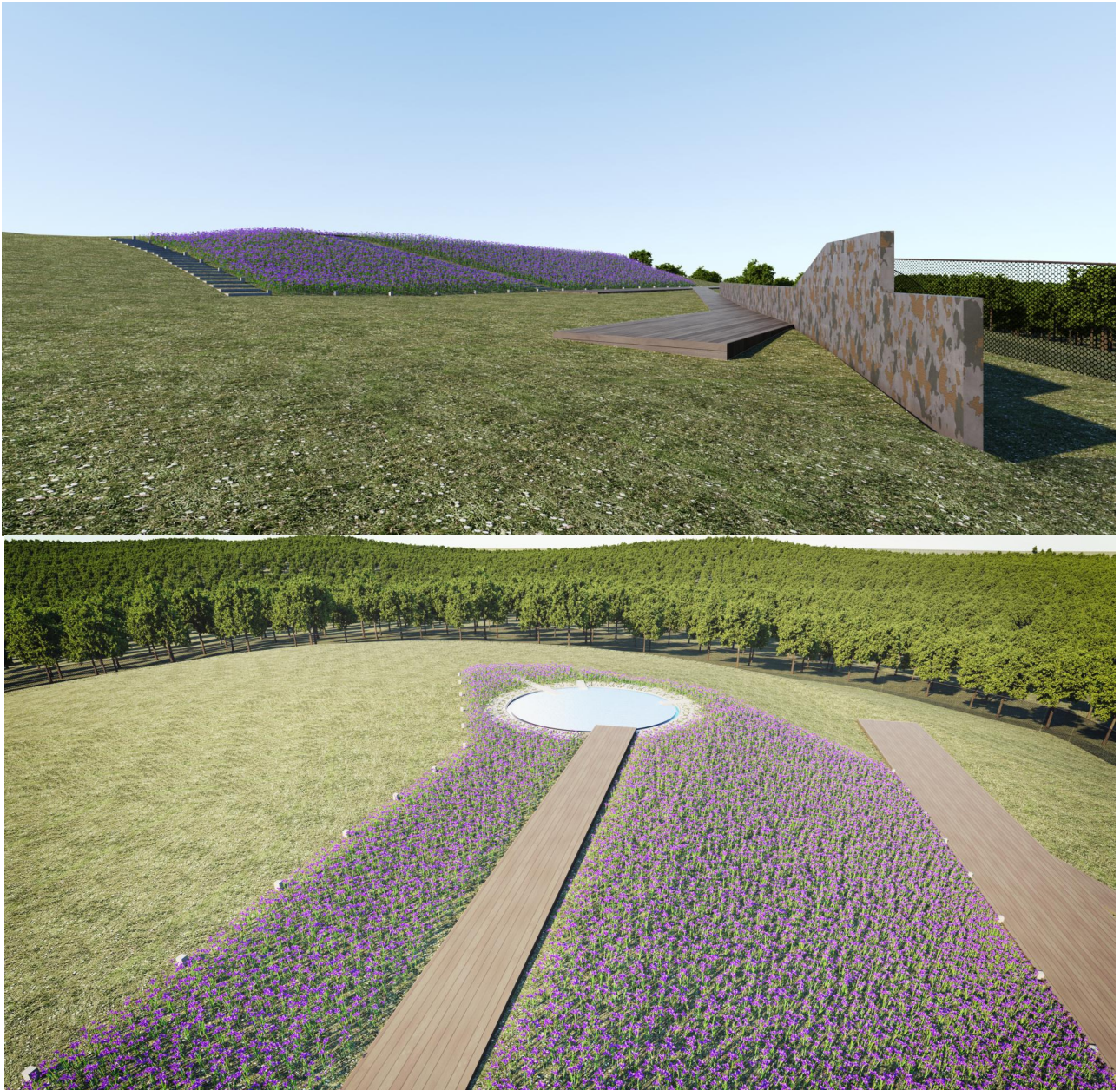
철거 감시초소	기존	조성 후
조성년도	철거- 2018년	2021년 예정
용도	조망데크, 조경, 전시물 등	야외 순환로 및 추모공간
부지면적	약 1400m ²	약 1400m ²
조성면적		데크 560m ² 순환로 211m ² 추모연못 80m ²
규모	지상 1층	지상 1층

○ 과업의 범위: 현재 난간 및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획 중 진입이 가능한 범위이며 기존 초소 건물의 위치는 말뚝 표식으로 가늠 가능하다. 과업의 범위는 전시 및 산책을 위한 순환로, 추모공간(연못 및 조경) 조성과 기존 시설물(사진 전시, 소망/염원을 기록한 게시판, 망원경 등)의 재배치, 간이화장실 재배치, 싸이너지 설계방향 제안 등을 포함한다.

- 1) 순환로 및 추모공간 조성
- 2) 기존 프로그램 요소를 담은 시설물을 통합하는 디자인
- 4) 마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경 계획
- 5) 싸이너지 방향 제안

4.3.4 기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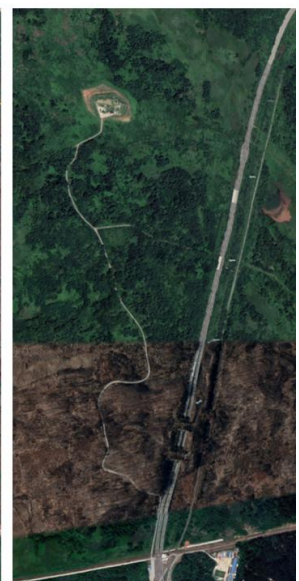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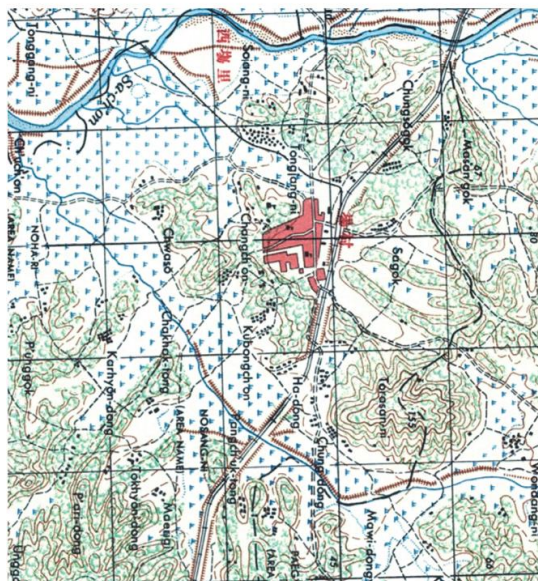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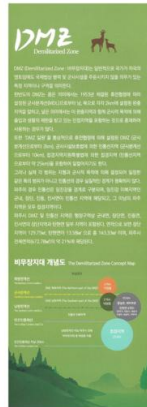




[야외 순환로 및 추모 공간 이미지]

4.3.5 기타

-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파주 평화의 길의 코스에 위치한 '구 장단면 사무소'가 철거 감시초소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515에 위치한 파주 구 장단면 사무소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이 일대 장단면의 행정업무를 관할하던 면사무소 건물이며 현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 76호로 지정되어 있다.
- 상흔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보강이 되어 있다.
- 파주 중앙도서관은, 지역사회 공모로 구 장단면 마을에 관련된 아카이빙 전시를 기획, 진행한 바있다.



[위. 출처 - 위키 피디아, 파주 중앙도서관 | 아래. 출처 - 발주처]

4.4 보존 감시초소 문화예술공간 조성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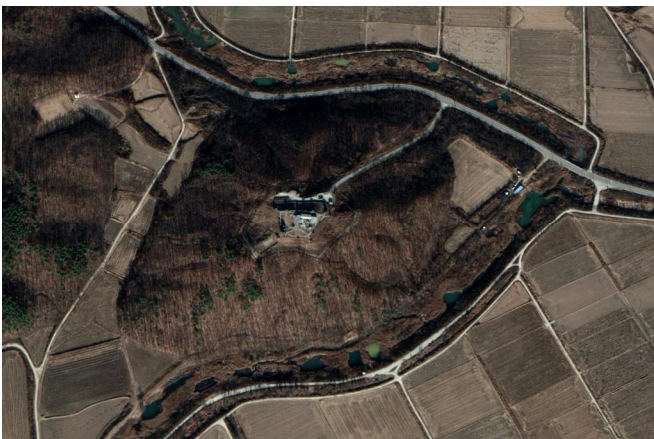
4.4.1 현황 - 파주 보존 감시초소, 고성 보존 감시초소

o 파주 보존 감시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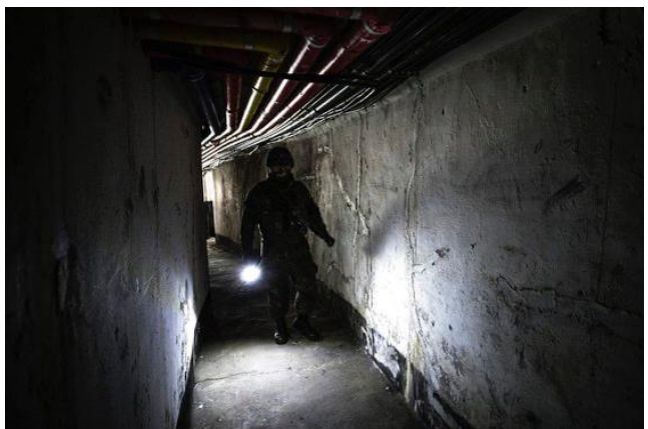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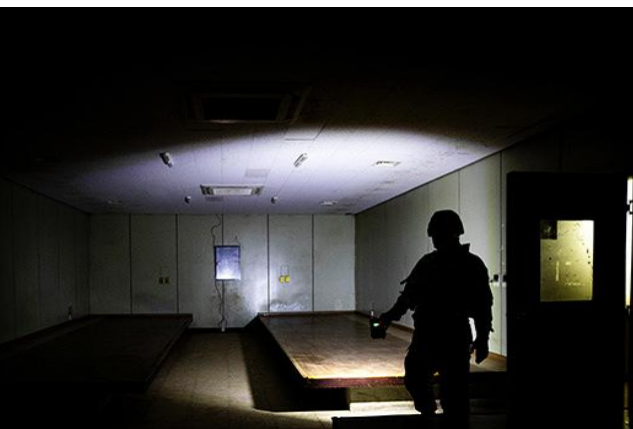
- 규모: 약 900m²
- 건물용도: 지상건물 및 지하 벙커로 구성된다. 내무반과 식당이 위치하며 비상주 시설로 수십년 간 방치상태이다. 석면 천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고성 보존 감시초소 2개소

- 규모: 약 330m², 700m²
- 건물용도: 파주 보존 감시초소와 유사한 배치로 추측된다. 1개소는 문화재 등록되어 있다.



좌. 파주 보존 감시초소 | 우. 고성 보존 감시초소



감시초소 내부 현황

4.4.2 과업의 범위

- 보존 감시조소는 원형 보존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한다. 일정시간에 제한된 수의 인원이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운영될 예정이나,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 개선 및 보수를 고려한다.
- 먼저 현장 방문을 진행하여 현황 조사를 진행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업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하도록 한다.
- 진입로 보행환경의 안전과 쾌적성을 검토 후 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 및 방수성능을 확인하여 보수계획을 수립, 방안을 수립한다.
- 전시 및 공연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고려한다.
- 진입로에 면하여 간이 화장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4.5 도라산역 문화예술공간 조성 (2단계)

-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된 역사적 공간이자 언제든 현재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미디어 갤러리로 조성한다. 남북 교류의 상징이 된 역사적 공간이자 출입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이며 미래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 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미디어콘텐츠를 기획, 운영한다.
- 미디어월은 출경/입경의 경험을 역동적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메시지의 전달과 함께 교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한다. 방문객들이 남북교류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존 남북교류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미디어자료 제공, 관객들이 남북교류에 대한 희망을 담을 수 있는 참여형 미디어 작품을 설치한다.

4.5.1 도라산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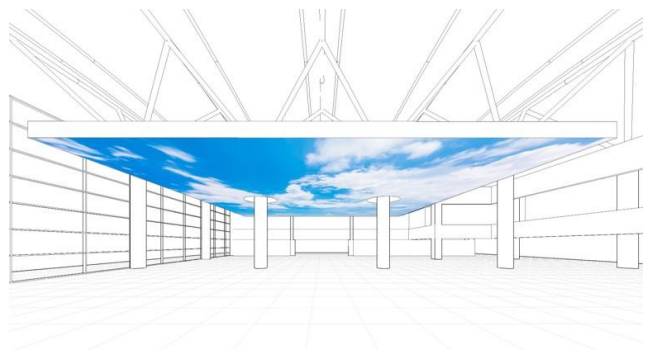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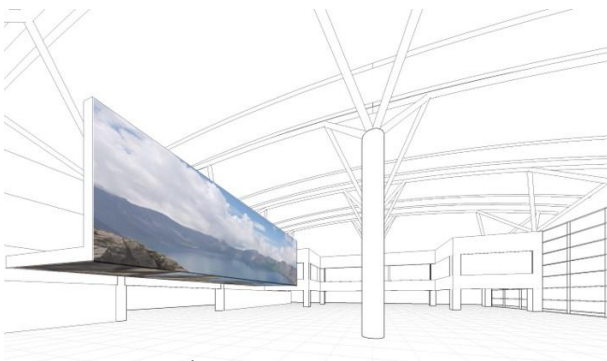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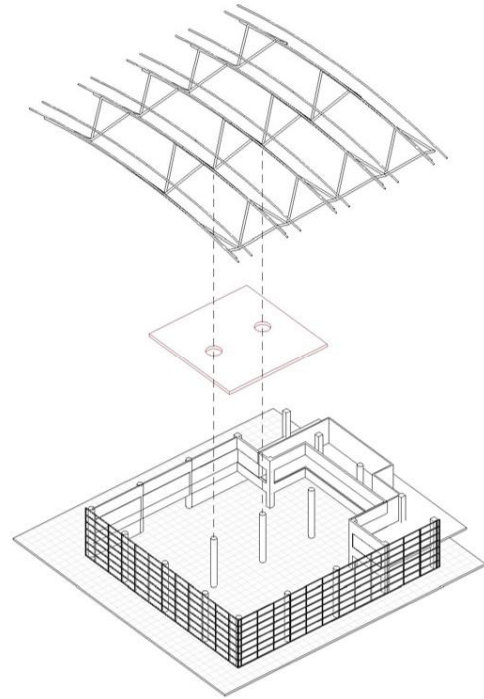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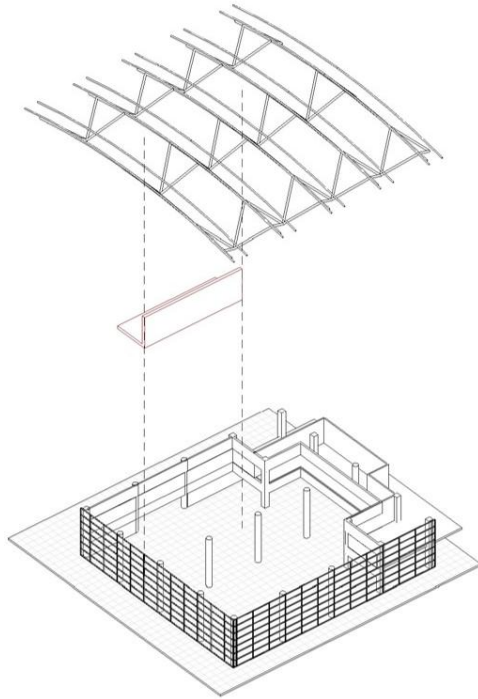
- 도라산역은 서울역에서 원주까지 이어진 철도가 정차하는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역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교류의 주요한 육로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비교적 최근에 정비된 기차역에는 출경 절차를 밟는 공간이다. 유리 와 스틸의 건축구조물이 특징적이며 남과 북의 물류 및 인적 교류가 있던 역사적이고 현재적 장소이다.



[현황]

4.5.2 기본 구상 및 방향

- 초기 기본 구상은 건축구조물의 특성을 살려 '떠있는 천장'으로 미디어 갤러리를 조성하는 안과 입경과 출경의 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출입경의 경험을 강조하는 깊이감있는 미디어천 장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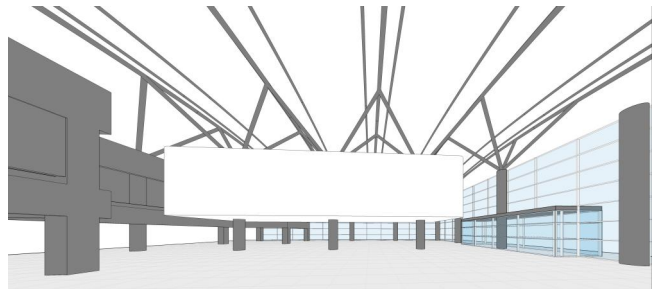


[초기 방향 - 착수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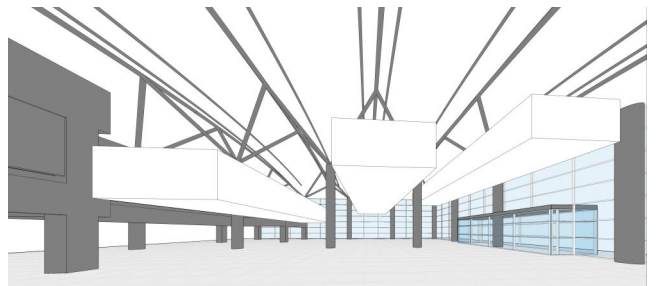
- 미디어 아카이브이자 다수의 동선이 교차되는 현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서가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안의 검토를 거쳐 미디어 월 조성으로 방향을 확정지었다.
- 미디어 월의 설계 및 콘텐츠 제작 발주는 2단계('2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발주는 다음의 과업 내용으로 발주할 수 있다.
 - 도라산역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담는 콘텐츠 기획
 - 콘텐츠에 맞는 미디어 컨셉 제시
 - 미디어 형태 제안

o 콘텐츠 우선으로 기획하는 경우, 이를 최적화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미디어 월의 설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라산역의 구조적 특성이 강하고 출입경의 기능과 라운지 등 복합기능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건축적 공간감에의 대응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컨셉과 경험에 맞는 미디어 월의 다양한 방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이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미디어 효과를 평가하였다. 발주 시 참고자료로로서 건축설계와의 협업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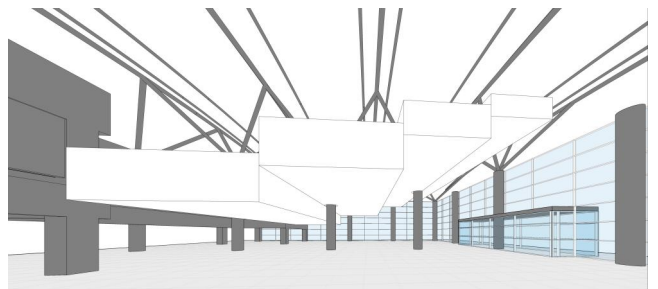
특성: 공간의 중앙에 떠있는 하나의 박스
장점: 대담하면서 압축된 공간감
단점: 도라산역 공간경험과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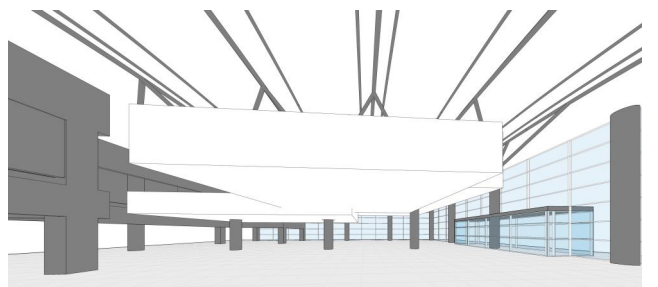
특성: 공간의 중앙에 떠있는 세개의 박스
장점: 도라산역 공간감을 강조
단점: 미디어 효과의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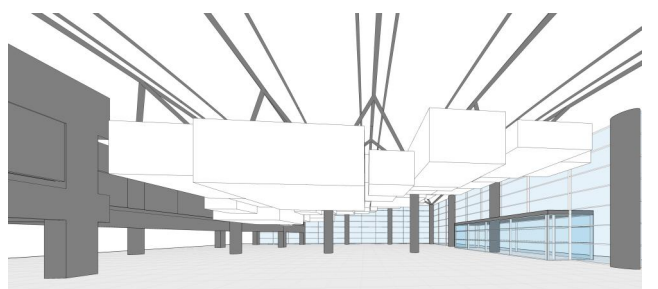
특성: 계단식으로 연결된 하나의 천장
장점: 출경의 경험을 극대화
단점: 미디어 효과의 간섭



특성: 출입동선을 반영하는 하나의 천장
장점: 단일면으로 미디어 표현에 간섭없음.
단점: 동선 표현이 추후 단점이 될 수 있음.



특성: 기하학적 패턴으로 분절된 천장면들
장점: 그 자체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
단점: 미디어 효과의 간섭 및 분산



o 다섯 옵션의 검토를 토대로, 미디어 효과와 공간감 경험의 균형,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개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공간의 중앙에 떠있는 하나의 박스 | 아래. 계단식으로 연결된 하나의 천장

o 본 연구의 옵션에 표현된 미디어 월의 크기는 밑면 면적 175~400m²까지 다양하며, 단면 또한 1~5m의 다양한 깊이를 검토하였다. 콘텐츠의 기획과 공간감의 특성에 따른 미디어 형태를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모를 결정하여 제시하도록 과업 지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4.5.3 추가 검토 사항

- 도라산역이 설계된 당시 구조계산서를 토대로 미디어 월의 고정에 대한 추가 구조 보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현재 시공된 구조 단면 검토, 내진 설계 보강 및 추가 하중을 위한 보강 설계를 함께 발주할 수 있다.
- 운수시설로서 연면적 약 1,000㎡ 이상일 경우 적용 설비를 검토하여야 하며, 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형 발신기 및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있다면 미디어 월 혹은 천장에 화재감지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상기 용도 및 연면적이 상이할 경우 적용 설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방 도면 및 설치계획표를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제안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스탠드형 실내기 공조방식으로 천장으로 간접되는 기계 설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소방설비가 설치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미디어 월이 설계되어야 한다.
- 최근 설치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사 례. 공공미디어아트 “웨이브”
크기. 80.1m(w) x 20.1m(h)
장 소. 코엑스 K-POP 광장



사 례. 현대 모터스튜디오 하남
크기. 4면 미디어 월
(총 규모 442㎡)
장 소. 스타필드 하남



4.6 DMZ 조망 보도육교 조성 (2~3단계)

- o 도라산역과 구 출경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는 출입경 보안절차, 차량 및 화물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현재 내, 외부 공간 및 동선의 특성으로 인해 상호 보행 접근이 어려운 현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 o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철도보호지구내의 저축 여부 및 현재 계획 중인 도라산역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하면서도 DMZ를 따라 걷는 특별한 경험, 문화예술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기획한다.

4.6.1. 사업의 범위

폭 5m, 길이 650m, 높이 3-4m의 고가 보행로와 길이 50m, 높이 4.2m이상의 보행교와 결합된 보도육교로서 접근을 위한 수직동선, 주요 지점에서 조망 및 휴식의 역할을 하는 조망데크로 구성된다. 또한 보도육교 주위를 따라 주변 식생에 맞는 조경작업이 포함된다.



1~3, 5 : 보행로
폭 5m, 길이 650m, 높이 3~4미터
4 : 보행교
폭 12m, 길이 50m, 높이 4.2미터 이상

4.6.2. 예시 사례

- o 예시 사례 -영국 왕립식물원, 큐가든의 트리탑 워크웨이 Treetop Walkway
 - 1840년부터 운영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식물 컬렉션을 자랑하는 영국 왕립 식물원의 큐가든 트리탑 워크웨이는 숲을 새로운 높이, 새로운 각도에서 경험하는 시설이다. 18m로 올려진 200m 길이의 워크웨이는 밤나무와 오크나무사이를 관통하며 계절별 변화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 런던아이 등 구조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축가 막스바필드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사업비 약 60억원에 2008년 준공되었다. 구조물은 자연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능에 충실한 간단한 형태, 재료, 구조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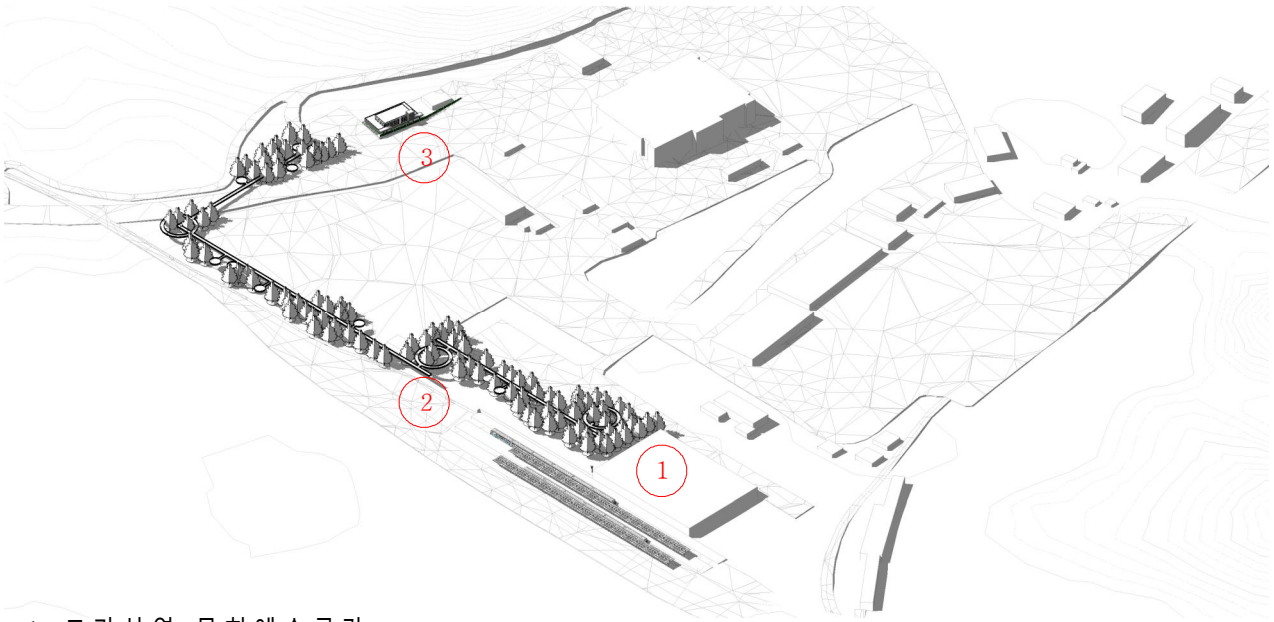
- o 예시 사례 - 콘스탄스 호수 스카이워크 | 산타 폴라의 스카이워크
- 100미터 길이로 산타 폴라에서 베니돔에 이르는 해안 조망을 위한 보행로를 제안한다. 약 4억2천만 원에 2015년 준공되었다.



- o 예시 사례 - 충남 서천군 장항리 스카이워크
- 2015년 설치된 장항 스카이워크는 바닷가 갯벌 근처의 곰솔 숲인 장항송림산림욕장에 높이 15m, 길이 250m로 설치되었다. 송림숲과 바다 사이에 놓여 숲의 감상과 바다의 전망을 동시에 제공한다. 사업비 48억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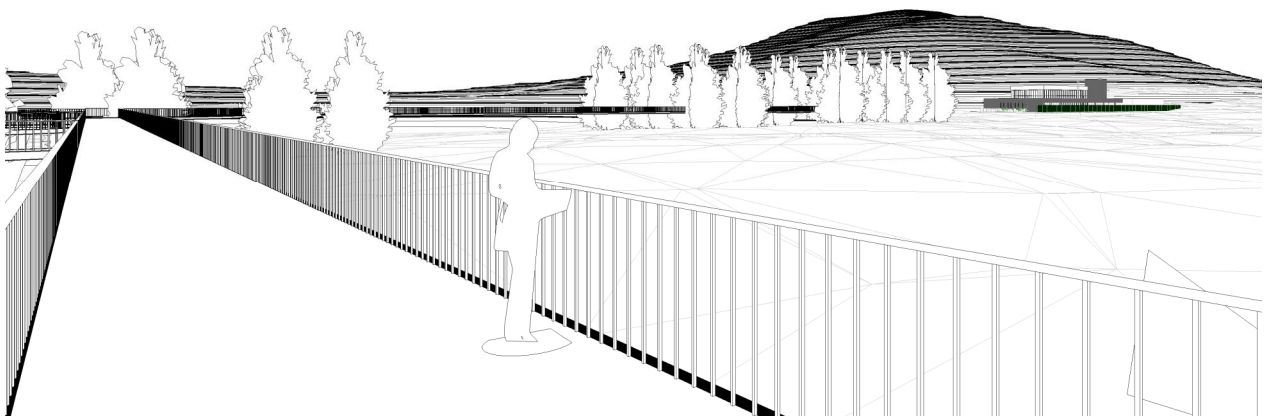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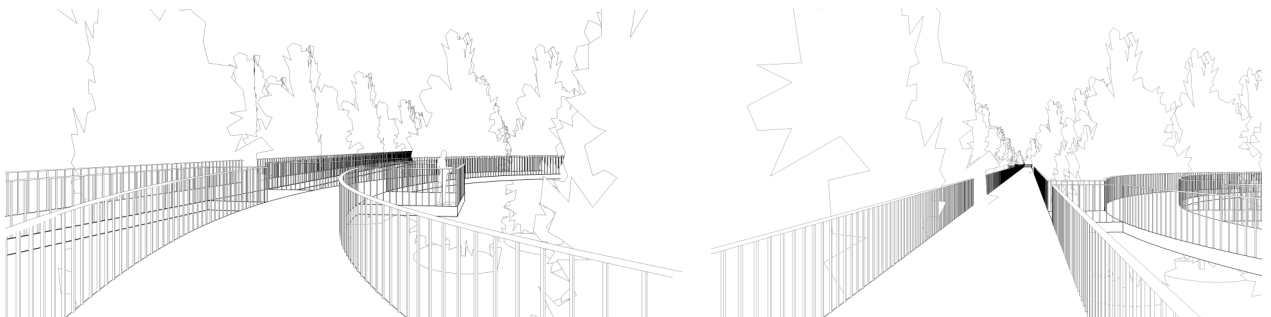


4.6.3. 기본 구상



1. 도라산역 문화예술공간
2. 보도육교
3.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o 도라산역 문화예술공간과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을 연결하며, 고가 보행로, 지상과 연결하는 수직보행체계(계단 및 엘리베이터), 조망 데크 및 육교로 구성된다.





[보도육교 배치]

4.6.4. 추가 검토 사항

-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한다. 과업 발주전 인허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예상 소요 일정 및 관련 법규를 과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 이격 거리에 따라 DMZ 환경에의 영향, 풍하중 및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 등에 대한 부지의 안전성 검토와, 이 외에 운영 및 관리, 보안, 안전 및 피난 등 복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5. 1단계 전시계획

5.1. 전시개요

5.1.1 기본개요

광복 이후 75년간 엄존해왔던 냉전과 분단체제의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 주도로 끊임없이 전진해왔던 평화의 약속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적 상상력이 동작되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화가 생성되는 지점들에 집중하고 기억의 장소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을 다시 호출하고자 한다.

○ 전시명 : 평화의 시계 視界(가제)

○ 전시 예정 기간 : 2020년 12월 - 2021년 5월

○ 전시 예정 장소 : 도라산역, 구 출경동, 제진역 및 일대

○ 참여 미술가 : 김준, 김진주, 슬기와 민, 양아치, 이부록, 임흥순, 이소요, 남화연, 정태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홍영인, 정크하우스, 양민하, 이경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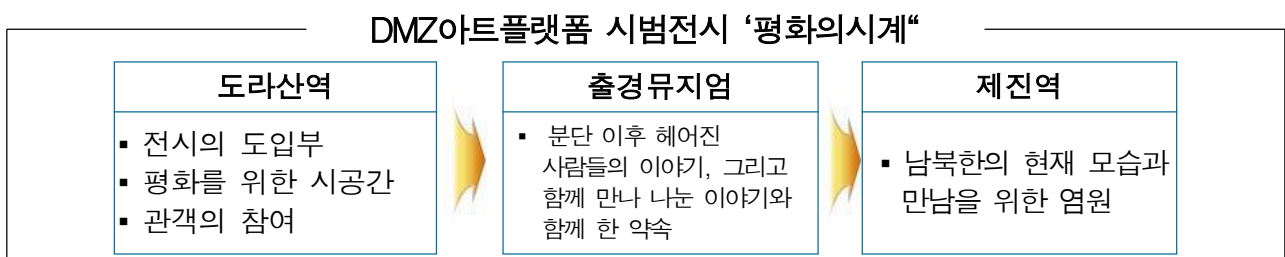
5.1.2 추진방침

○ DMZ와 관련 시설물에 서린 역사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첨단 미디어 기술과 조형 언어를 예술적으로 활용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소프트하고도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

○ 전시 및 관람 공간 구성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여 완공된 공간의 박제화, 퇴락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활력을 부여한다.

○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등 타 부처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등 관련 기업과 접경지역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5.1.3 전시구성



5.1.4 부대 행사

○ 작가 워크숍

- 참여 작가와 전시 스태프가 선정되면 주최 측은 전시의 기본 취지 및 작품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참여 작가 워크숍을 진행한다.

- 참여 작가는 자신의 작품 내용과 제작 과정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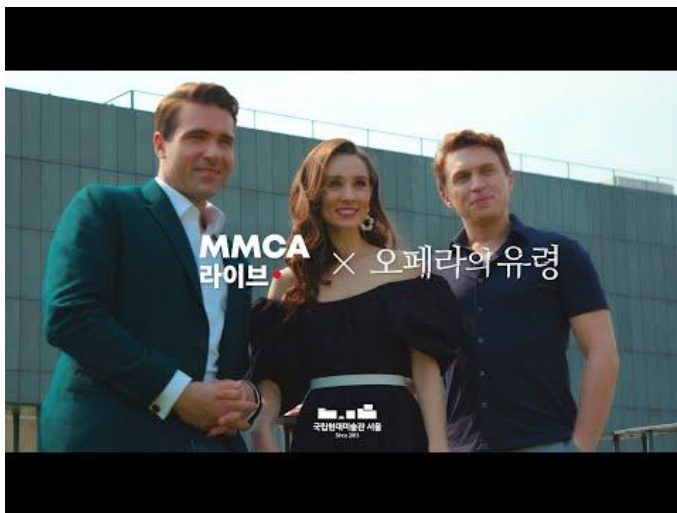
- 주최 측은 작가계약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예산과 관련한 내용(계약금의 지급 및 정산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 전시의 일정 및 추진 과정 등을 공유한다.

○ 전시 개막식

- 전시개막일을 3개월 앞둔 시기에 오프닝 행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행사의 내용과 예산규모, 초대 손님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한다.
- 행사장이 파주와 고성으로 나누어진 점을 고려해 진행한다.
- 개막 시점의 유명 공연과 협업하여 개막식을 개최한다. 문화계의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과 장소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현 시대에 맞는 대중적인 서사를 부여하여 과거의 아픈 역사의 기억에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공한다.
- 사례: 국립현대미술관X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이미지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 국립현대미술관과 공연제작사 에스앤코의 협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주요 곡을 공연하였다. 이 공연은 현장 관객 없이 네이버TV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으며, 현재 55,000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미국의 현대미술관(MOMA)나 영국의 테이트 뮤지엄의 평균 조회 수(약 15,000)를 훌쩍 넘는다. 이 공연 영상에서 월드투어 팀은 출연진들의 한국 미술의 홍보를 비롯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으로 한국에서 공연을 지속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 이 동영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생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 미술의 홍보는 물론 나아가 한국의 홍보 효과도 있다.

○ 프로그램 운영

- 전시기간 중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전시의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확장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된 관람환경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
- 관련 상품의 개발, 전시장내 휴게공간의 구현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 작가와의 대화

- 전시기간 중 참여 작가의 작품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폭넓은 청중을 확보한다.

5.1.5 사업홍보

○ 기자간담회

- 전시 개막식 이전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 서울 광화문의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하며 향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닝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 기자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일괄 배포한다.
- 전시기간 중에도 다양한 홍보 포인트를 찾아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광고

- 미술전문지 및 온라인 전문지 광고
- 방송사 중 1곳 선정하여 광고, 및 연계 프로그램 출연
- 옥외 광고판 활용, 일간지 등 지면 광고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배너 등 제작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 전시 홈페이지 구축, SNS 활용

○ 웹페이지 제작

-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웹페이지의 설계를 추진한다.
- 전시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다수 관람객을 고려해 일부 작품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뷰잉 페이지를 제작한다.
- 출품작의 온라인 뷰잉 페이지 제공 사례

<https://www.vip-hauserwirth.com/online-exhibitions/>(하우스위드)

<https://www.lissongallery.com/online-exhibitions>(리슨갤러리)

- 작품 해설 및 작가 인터뷰 동영상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사례)

5.1.6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1,154,000,000원

○ 작가비 및 작품 제작지원비 (500,000,000원)

구 분	산출근거	예 산 (원)
도라산역	20,000,000×5건 =	100,000,000
구출경동	30,000,000원×5건 =	150,000,000
제진역	30,000,000원×5건 =	150,000,000
「평화의 길」조형물(교육원)	100,000,000원×1건 =	100,000,000
합 계		500,000,000

※ 작품 수는 총예산 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음

※ 작품마다 제작지원비는 다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작가에게는 작품제작비와 별도로 전시참여에 대한 작가비를 일괄 지급함
(작가비는 위의 예산 내에서 편성함)

※ 작가비 및 사례비 지급의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마련 2019년 미술창작대가기준(안))

구분	개념 및 내용	비고
작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 ※ 근거 :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에 따라 지급 ○ (산출산식) 1일 기준금액×전시일수×작가별 배분율×조정계수 ○ (적용대상)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p>1일 기준금액(5만원*)×전시일수×작가별 배분율**×조정계수***</p> <p>* 1일 기준금액 = 1일 평균매출액 x 사용요율</p> <p>** 작가별 배분율 = 1 / 참여 작가 수</p> <p>*** 조정계수(0.7~1.0)는 전시예산, 반복출품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p>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 기획, 평론과 관련한 것에 대한 보수. 작가, 기획자, 평론가에게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제작비 별도) ○ (산출산식) 사례비 <p>※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연구보조원 인건비(참여율 100%)를 월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p>	<p>시간 기준금액(15,778원*)×창작시간**×전시유형***×조정계수****</p> <p>* 학술용역 인건비에 연동. 경력에 따라 1.0~1.8배 범위에서 전시기획자가 조정 가능</p> <p>** 창작시간은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작가와 협의하여 결정</p> <p>***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0.7), 40인 초과(0.6).</p> <p>전시기획자가 조정 가능</p> <p>**** 조정계수(0.7~1.0)는 전시예산, 반복출품가능성 등에 따라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p>

(자료출처: 미술창작 대가기준 개선토론회 자료집, 2019)

○ 전시 및 프로그램비 (203,000,000원)

구 분	산 출 근 거	예 산
작 품 운 송 및 설 치 비 (반 입 / 반 출)	10,000,000원 × 2회 =	20,000,000
장 비 (모 니 터, 프 로젝 터, 컴 퓨 터 등) 임 차 비	1식 × 40,000,000원 =	40,000,000
그 래 픽, 공 간 디 자 인 개 발 비 및 관 련 작 업 비	2식 × 10,000,000원 =	20,000,000
도 록 제 작 비	1식 × 30,000,000원 =	30,000,000
전 시 공 간 구 성 비 (가 벽 설 치 / 목 공 / 도 장 등)	1식 × 30,000,000원 =	30,000,000
전 시 실 내 외 부 사 인 물	2식 × 10,000,000원 =	20,000,000
작 가 항 공 료	5,000,000원 × 1인 =	5,000,000
외 부 인 사 숙 박 및 교 통 비	200,000원 × 5인 × 10일 =	5,000,000
원 고 료 및 번 역 료	50,000원 × 60장 =	3,000,000
전 문 가 초 청 행 사 비	1,000,000원 × 10인 =	10,000,000
동 영 상 및 작 품 사 진 촬 영 비	10,000,000원 × 2건 =	20,000,000
합 계		203,000,000

○ 홍보비 및 운영비 (451,000,000원)

구 분	산 출 근 거	예 산 (원)
리 플 릿 제 작 비	2,000원 × 10,000부 =	20,000,000
초 대 장 및 봉 투 제 작 비	2,000원 × 2000부 =	4,000,000
포 스 터 제 작 비	10,000원 × 500부 =	5,000,000
홈 페이지 구축비	10,000,000원 × 1건 =	10,000,000
오프닝 및 각종 행사비	80,000,000원 × 1건 =	80,000,000
지 면 광 고 비	5,000,000원 × 2건 =	10,000,000
외 부 옥 외 광 고 비	10,000,000원 × 2건 =	20,000,000
방 송 광 고 비	100,000,000원 × 1건 =	100,000,000
홍보비 소 계		249,000,000
전 시 총 괄 코 디 네 이 터	1인 × 6개 월 × 5,000,000원 =	30,000,000
코 디 네 이 터 (홍 보, 전 시, 교 육) 인 건 비	3인 × 4개 월 × 4,000,000원 =	48,000,000
전 시 관 리 원 인 건 비	15인 × 2개 월 × 2,000,000원 =	60,000,000
셔 틀 버 스 운 영 비	20,000,000원 × 2개 월 =	40,000,000
공 간 관 리 비	2,000,000원 × 2개 월 =	4,000,000
회 의 운 영 비	100,000원 × 6개 월 × 10회 =	6,000,000
여 비 교 통 비	200,000원 × 5개 월 × 4인 =	4,000,000
통 신 비	3식 × 2,000,000원	6,000,000
운 영 위 원 회 운 영	5인 × 200,000원 × 4회	4,000,000
운 영 비 소 계		202,000,000
합 계		451,000,000

5.2. 도라산역

5.2.1 기본개념

- 도라산역은 남북 철도가 이어지는 기차역으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멈추는 남한 내의 최북단 정차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내리게 된다. 분단된 남한사회에서 기차역으로서는 유일하게 국경을 오고가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접경지역에 대한 일반적 인식-남북 분단의 슬픔, 적대적 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관계들을 예술작품을 매개로 드러냄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과 그 성과, 협력을 통한 소통으로 지금의 평화적 일상이 만들어졌음을 재인식한다.

5.2.2 참여작가

- 김준, 슬기와 민(제진역 포함), 양아치(제진역 포함), 김진주

5.2.3 설치작품

- 작품목록

작가소개	작품내용
<p>김준</p> <p>지질학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관찰 및 탐구하고, 녹음한 결과물을 아카이브 형태로 재구성한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꾸준히 선보여 왔다.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초기작 <피드백 필드>(2012)는 지역별 산업 발전의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독일의 역사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흥미에서 비롯된 작업으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시설물의 전자기적 파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오디오 생태학(Acoustic Ecology)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p>	<p><신호대항></p> <p>남한의 신호와 북한의 신호가 동시에 만나고 교차하는 여러 경로와 특징성을 -발현되고 소멸되어지지만 경계라는 영역을 유일하게 넘어서 - 일방적 전달의 목적지향성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목소리(신호)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운드 설치로 구현 보는 프로젝트이다.</p> <p>도라산역 내외에 혼 스피커가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하고 전파 수신장치를 활용해 한쪽에는 남한의 신호(라디오, 군사 송수신, 민간방송, 자연의 소리 등), 다른 한쪽에 경계를 넘어서는 북한의 신호를 대치하여 양쪽의 스피커가 마치 대화하는 유형으로 설치할 것이다.</p> 

슬기와 민

슬기와 민(최슬기, 최성민)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2001년 미국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며 만났고, 네덜란드 안 반 에이크 미술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후 2005년 서울에 돌아와 정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미술과 디자인을 아우르며 국내외 여러 전시회에 참여했고, 2017년에는 페리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들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홍콩 M+, 뉴욕 쿠퍼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미술관, 파리 장식 미술관,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등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출발 도착>

도라산역의 이상을 표현하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는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카자흐어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언어를 모두 연결하게 된다. <출발 도착>은 이처럼 다양한 유라시아 언어가 공존하는 풍경을 제시한다. 도라산역 로비 공간과 주변 도로에 광고판과 배너 형식으로 설치되는 <출발 도착>은, 제목이 암시하듯, 출발역과 도착역의 이중적 위상을 지니는 도라산역의 정체성을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연결하는 언어들로 압축해 표현한다.



김진주

김진주는 미술작가, 큐레이터, 연구자 또는 유사 아키비스트, 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한다. 양극성과 파편성, 수행적 발화, 기억과 아카이브가 주요 작업 주제이다. 그의 작업은 한 매체에 몰입하기보다는 확장된 현대 시각예술의 다양한 미디어와 포지셔닝을 제한 없이 활용하는 대화 행위에 가깝다. Ashkal Alwan(베이루트)의 <Home Workspace Program 2013-14> 등에서 배웠으며, 《Home Works 7》(2015)의 스크리닝 프로그램, 《2015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동송세월》(2015), 《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2016), 《고향》(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비서구권 전시 시리즈 중 중동, 2019) 등의 전시에 작가로 참여했다. 메인 진행자(2015~2016)로 <팟캐스트: 말하는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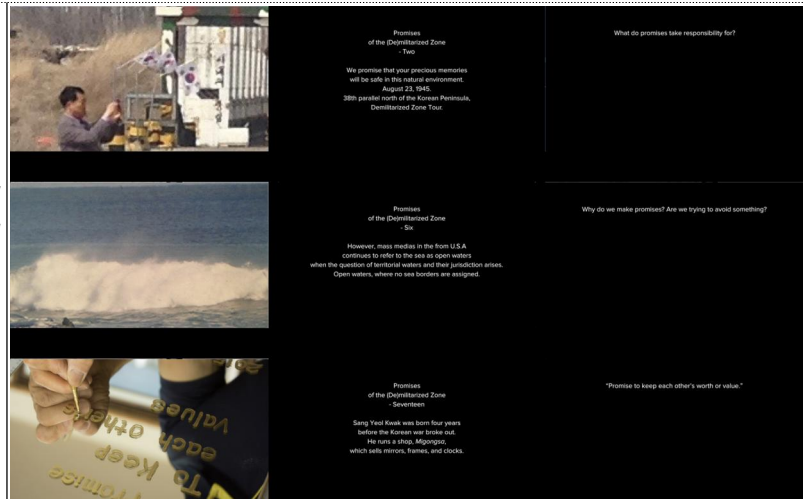
<약속한 시간의 선>(가제)

작가 김진주에게 '약속'이라는 주제는 남겨진 이미지를 상상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테마이다. 관련해서 김진주는 전작 남북 분단으로 형성된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약속을 반추하는 작업인 <약속한 시간의 흐름(동송)>이라는 한 주제의 작업을 3가지 버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버전은 전방부대가 위치한 철원군 동송읍 시내에 있는 군장병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보관소를 활용한 현장성 강한 작업이었다. 이 첫 버전에서 작가는 비무장지대의 약속을 17개로 추려 관객에게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두 번째 버전은 서울의 한 미술관(아트선재센터)의 전시를 위해 약속을 쓴 전신 거울과 영상을 틀어 놓은 휴대폰 설치로 구성된 버전, 세 번째 버전은 베이루트의 한 비영리 미술공간의 기획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약속의 메시지들을 영문으로 번역한 스크리닝 버전의 영상 작업화였다.

술>를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고, 기획/출판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를 결성해 웹진 <SEMINAR> (2019~)의 공동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저작물로는 「선언의 관점에서 본 예술가의 사회적 발화」(201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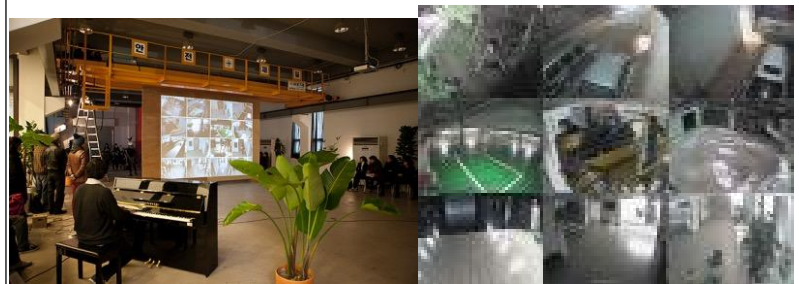
김진주, 약속한 시간(동송), 2015. 비디오 스틸. 영상, 컬러, 사운드, 9분 10초.

양아치
양아치는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미디어의 언어를 개발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한 양아치는 전시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자신의 작품을 구축하고 있다.

<미들코리아 Middle Korea>

Middle Korea, 신세계(新世界)는 가상의 국가, Middle Korea의 한 도시를 상징한다. 한 도시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그린다. 그것은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삶, 비슷한 도시 등을 그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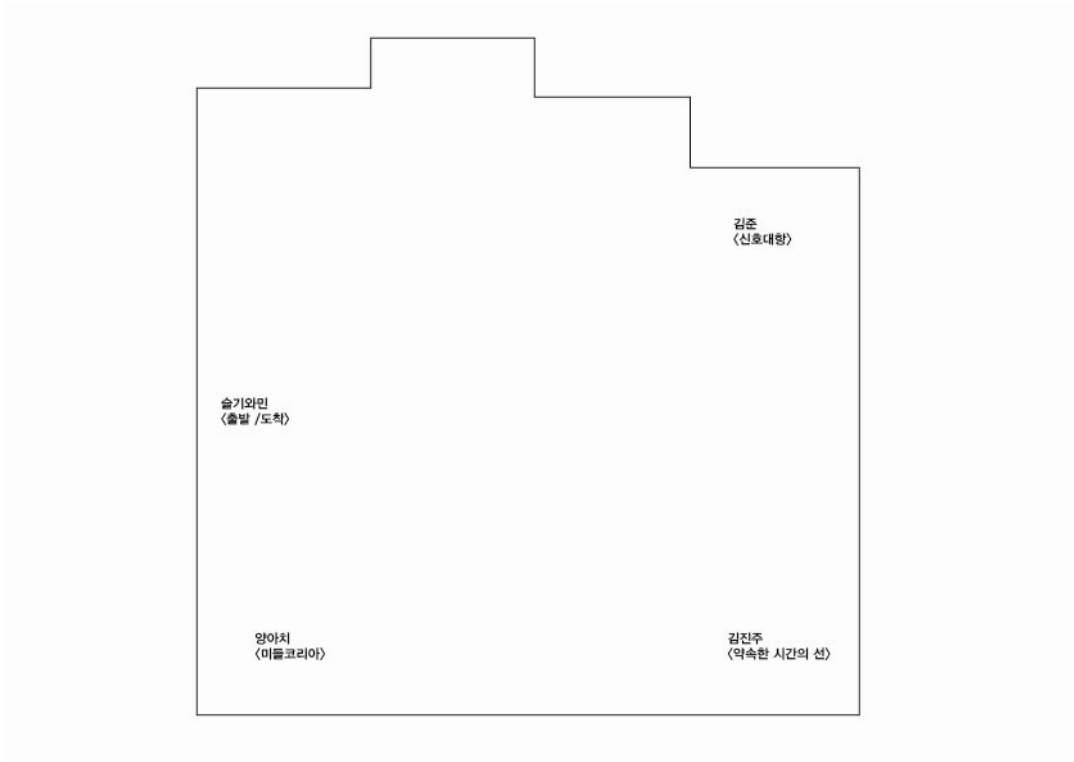
Middle Korea, 신세계(新世界)는 도라산역과 제진역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 설치작업이다. 도라산역과 제진역에는 두 개의 스크린과 두 개의 설치물이 있다. 한 곳 장소, 도라산역에서는 하나의 시선으로 장면을 감상할 것이고, 다른 한 곳, 제진역에서도 하나의 시선으로 장면을 감상할 것이다. 물론, 두 곳의 장소, 도라산과 제진역에서의 작업을 모두를 감상한 사람들은 완결된 이야기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제안된 작품들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 있음

※예산범위 내에서 작품수와 작가수가 늘어날 수 있음

5.2.4. 배치도



5.3.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출경 뮤지엄'

5.3.1 기본개념

- 출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담은 이 곳은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던 시절에 남쪽의 기업들이 출입 절차를 밟던 곳이다. 육로를 이용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이지만 현재는 막혀있는 상황이고 공간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상시적 교류를 꿈꾸며 과거의 교류를 기록하고 향후 남북교류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 겨레말 사전, 농업협력사업, 개성한옥사업 등 분단 이후 진행된 남북문화교류의 성과와 그 과정을 드러내고 공통의 서사와 경험을 제공한다. 분단 이후 진행된 남북 회담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를 시청각 정보로 제공하여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평화를 위한 과정물을 보여준다.

5.3.2 참여작가

- 이부록, 임흥순, 이소요, 남화연, 정태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5.3.3 설치작품

- 작품목록

.작가소개	작품내용
<p>이부록 이부록은 그래픽, 설치, 출판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및 타장르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성장과 개발, 체제논리에 의한 파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된 가치들을 찾는 작업을 해왔다.</p> <p>주요 전시로 <slowseason project- 탐 구 생 활 부 록 > 2 0 0 3 , <Warvata-Sticker project>2007, <Newism movement-palefaceproject>2008, <파블로프의 사나운 개와 슈뢰딩거의 게으른 고양이> 2010, <금지된 숲>2013, <건축적부록>2014, <금단의 서재>2016, <로보다방>2018 등이 있다</p>	<p><좌우합작운동> 또다시 남북관계의 위기에서 놀라운 순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싶으며, 70여년의 협상사의 전략가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인류학으로 본 냉전을 재해석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고, 냉전의 다원주의적 재해석은 좌우합작 의식을 소환하고 있다. 이 시대의 소음을 충분히 귀기울이기 위해 마이크는 상대방의 소리를 자신에게 들려주는 확성기의 반대개념이다. 접촉, 소통, 파기, 전복의 희귀한 역사의 축적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충돌했고, 그 충돌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어떻게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미래를 엿보기 위해 협상장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한다.</p> <div data-bbox="651 743 1034 111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043 743 1426 1115" data-label="Image"> </div> <p><로보다방잡화점> 개성공단의 물건들과 남북이 공유된 문화적 물건들을 활용한 설치미술 작품</p>
<p>남화연 남화연(b.1979)은 덴마크 쿤스트할 오르후스 개인전 «Abdominal Routes»(2019)를 포함하여 «임진가와»(시청각, 2017), «시간의 기술»(아르코미술관, 2015)을 진행한 바 있다. 남화연은 2019년 제 58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정은영, 제인 진 카이젠과 함께 참여했다.</p>	<p><에헤라노아라> 최승희가 1933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표했던 조선 무용인 <에헤라 노아라>와 동명의 제목으로 구성된 퍼포먼스의 아카이브이다. 최승희의 <에헤라 노아라> 기록 사진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움직임을 상상한다.</p> <div data-bbox="651 1527 1018 1760"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027 1527 1444 1760" data-label="Image"> </div> <p><자오선> 최승희가 1933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표했던 조선 무용인 <에헤라 노아라>와 동명의 제목으로 구성된 퍼포먼스와 연결된 노트 또는 각주와 같은 작업이다.</p>

이소요

이소요는 생물과 문화 소속이며, 생물과 생태를 시각정보와 예술로 환원해온 문화적 관습에 관심을 가지는 미술작가이며, 생물학-자연사-예술에서 공유하는 방법론과 가치관을 탐구한다. 서울에서 일인 출판사 '생물과 문화'를 운영하면서 생물을 다루는 예술작품을 책의 형식으로 펴낸다. 미국 렌슬리어 공과 대학 예술학과에서 시각 예술과 생명과학 학제간 연구로 학위를 받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호주국립미술관, 필라델피아 의사협회 산하 워터 의학박물관 등에서 작품을 발표했다

<도봉섭과 정찬영의 식물학 도해(가제)>

약학자 도봉섭과 화가 정찬영 부부가 함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편찬한 문헌 속 식물학 도해를 비교하면서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던 식물에 대한 시각 표상의 흔적을 찾아본다. 또한 자생 식물이 사람의 손을 거쳐 분류학적 정보로 해석되고, 표본과 그림으로 기록되고, 다시 출판을 위해 판화로 옮겨지는 표상의 경로를 따라가본다. 이 여행기를 도봉섭과 정찬영이 남긴 문헌(혹은 그 복제본), 생물 표본, 글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다매체 설치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도봉섭, 정찬영의 식물학 도해(가제) 시점 남긴 미처잡아본 표본과 논문

임흥순

임흥순은 2015년 노동과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 작품 '위로공단'으로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이후 퐁피두 센터, LA 카운티 미술관, 샤르자 아트 파운데이션, MoMA PS1 등 세계 유수의 미술기관에 작품이 소장되거나, 전시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본래 회화를 전공한 작가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미술과 영화의 표현양식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영상언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고야>

이번 작품은 남과 북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장단면, 마정리, 대성동 등)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할머니, 밤, 전설이라는 키워드로 비극적인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만들고자 했던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 염원, 공간의 흔적을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작품제작을 목적으로 한다.(다큐멘터리 단편 or 2채널 1편과 VR영화 1편을 제작할 예정) 할머니, 밤, 전설과 같은 키워드는 어둠, 무서움, 미지와 같은 부정적인 세계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경계, 접속, 도모 등 교류와 만남을 상징하기도 한다.



정태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

'정태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의 모임'은 암흑한 일제 치하의 민족 문화 탄압과 한국전쟁의 격랑 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북한지역(함흥 영생여고보)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남한지역(조선어학회)에서 <큰사전>을 만들며 우리말을 연구에 매진하다 세상을 떠난 석인 정태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는 단체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문화를 발양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정태진선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선생의 고향이자 남북의 접경지대인 파주를 기반으로 우리말과 민족문화를 빛내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자유로 끝 마을 마정리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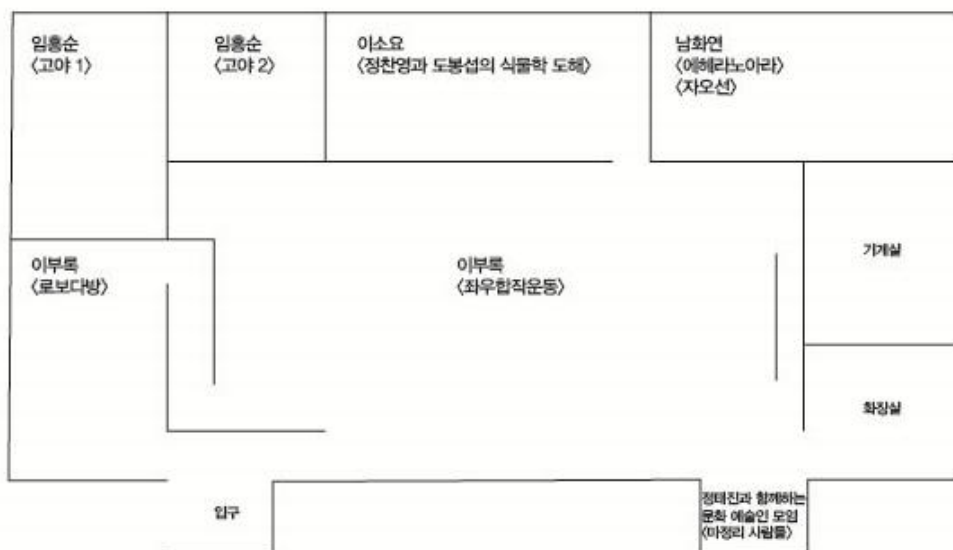
한국전쟁 70년. 전쟁의 시작과 끝, 격전의 전장이었던 자연 생태부락 마정리. 600년 이상 살아온 밀양 박씨 후손들과 업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해방전후와 전쟁 전후, 미군의 주둔 시기까지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메이킹 영상과 스토리북으로 제작한다.



※현재 제안된 작품들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예산범위 내에서 작품수와 작가수가 늘어날 수 있음

5.3.4 배치도



5.4. 제진역

5.4.1 기본 개념


-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동해북부선의 유일한 남한의 기차역으로 현재 북쪽으로만 연결된 기차역이다. 동해북부선은 조선총독부가 건설한 노선으로 원산에서 시작하여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태평양 전쟁으로 양양까지만 완성된 노선이다. 이 노선은 한국 전쟁 때 거의 사라졌으며 간간히 흔적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 각 장르에서 평화적 메시지를 담아온 국내외 예술가를 초청하여 공간과 장소를 작품화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의 과정을 발신한다.

5.4.2 참여작가

- 권하윤, 홍영인, 정크하우스, 양민하, 양아치(도라산역 포함), 슬기와 민 (도라산역 포함), 한석경

5.4.3 설치작품

- 작품목록

작가소개	작품소개
<p>홍영인</p> <p>홍영인(1972~)은 최근까지 영국을 본거지로 하여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2014)와 런던 ICA(fig-2, 2015) 등에서의 전시와 공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폭 넓은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작가는 '동등성'이라는 주제와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미술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치, 퍼포먼스, 드로잉, 자수,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질문해 왔다</p>	<p><제일 가슴이 아픡니다> (가제)</p> <p>제진역은 선로가 없는 역으로, 남북출입사무소로 기능하지만 실제로 열차가 다닌 적이 없는 역으로 사이트가 가지는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작업을 위해 분단 전후의 문학을 리서치 하고, 그 과정에서 찾아지는 어구를 사용하고자 의도한다. 제진역 입구에 이를 상징하는 어구를 네온사인으로 설치하고 역 내부에는 사운드 작업을 통하여 남북이 겪는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p> 
<p>소수영</p> <p>소수영은 그래픽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로 서울에서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했고 호주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했다.</p>	<p><몬스터가 점유했던 출입사무소 풍경></p> <p>지금은 제진역이 비어있지만 언젠가는 활발하게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활기와 설렘 등 공항 출국장의 긴장 가득한 상황들이 상상 된다. 이 빈 공간들에 가상의 캐릭터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이곳을 출입 사무소를 활기차게 이용하며 점유했고 있는</p>

2005년부터 수 많은 그룹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모습을 연출하고자 한다. 수하물을 올려 검사하고 검역하고 몸을 수색하고 출입 심사를 하는 각기 공간들에 역할들을 살려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풍경들을 연출설치하려고 한다.



정소영

197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정소영은 2003년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조형성을 기반으로 공간의 속성을 구축하고 해체하는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공공미술,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장소성에 관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2007년 귀국한 이후 금호미술관, 사루비아 다방, OCI미술관, 구슬모아 당구장, 오프사이트 아트선재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여러 국내외 그룹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 발굴 >

만월대 남북 발굴작업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와 현재 분단 이후의 대지의 사용과 이해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질문한다. 정치적 이념이나 평화의 상징정보다는 접경지역의 지질적/지리적 관계성을 발굴함으로써 인간사로 결정지어진 장소를 자연의 시간 층위를 드러낸다.



양민하

양민하는 서울대학교 학부에서 산업디자인을, 대학원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웹 작업 및 인터랙티브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 및 웹 디비전 관련 어워드를 수상하며 미디어 아트계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아 왔다. 이는 실용성이라는 측면과 시장, 클라이언트의 요구 및 충족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디자인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는 현재 다양한 미디어 아트 및 디자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 평등한 대칭적 대화 >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평등한 대화는 가능한가? "평등한, 대칭적 대화"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다. 마주하는 두 지점 사이의 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빛과 그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대칭적으로 혹은 평행하게 움직이는 빛의 대화는 비대칭적이고 불완전한 파장의 개입을 통해 완성된다. 사라지고 생성되기를 반복하며 빠르게 전환되는 빛의 움직임은 안정감과 동시에 각자 혹은 두 지점 사이의 대화에 담긴 긴장감과 불편함 그리고 불안을 보여준다.



권하윤

권하윤은 2006년 보자르 낭트에서 조형예술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동대 시각예술 석사 학위를 마친 후, 2011년 프랑스 현대미술 스튜디오 르 프레누아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7년 빨레 드 도쿄의 [새 여인], 2018년 두산 갤러리의 [공중부양]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진행하였고, 2014년과 2018년 두 번의 부산비엔날레,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불확정성의 원리], 백남준 미술관의 [Imaginary Asia], 2016년 메이악 현대 아트 센터의 [MADE IN SEOUL]등 다수의 그룹전에 초대되었다. 2017년 두산연강예술상과 2015년 팔레 드 도쿄 신인작가상, 2014년 유러피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다수의 국제 무대에서 수상하였다.

<피레네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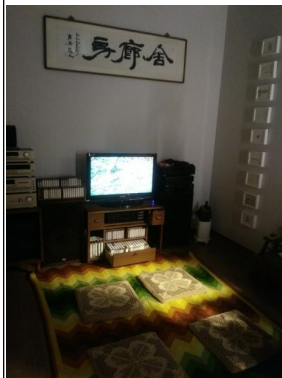
DNZ에서 생활했던 군인들의 증언을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재해석하여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표현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으로서 동영상 작업이다.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차용한 제목은 공중에 떠있는 섬을 연상하게 한다.

감시 초소의 긴장감과 공중에 떠있는 아름다운 섬의 이미지를 대조시켜 DMZ내부의 역설적인 공간을 표현한다.



<489> 설치장면

한석경(1982-)은 동덕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소재삼아 사물과 공간이 맺는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다매체로 시각화해 구현해왔다. 2016년부터 한국사회분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해왔다.



<시연, 시대의 언어>

늘 고향을 그리워한 한국전쟁 실향민인 작가의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 구현한 작품이다. 외할아버지는 비디오카메라로 북한과 관련한 것들을 촬영하고 녹화해 많은 양의 영상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작가는 외할아버지가 말년을 보낸 작은 컨테이너하우스를 따라 지은 공간에 할아버지가 기록한 북한의 모습을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양아치

<Middl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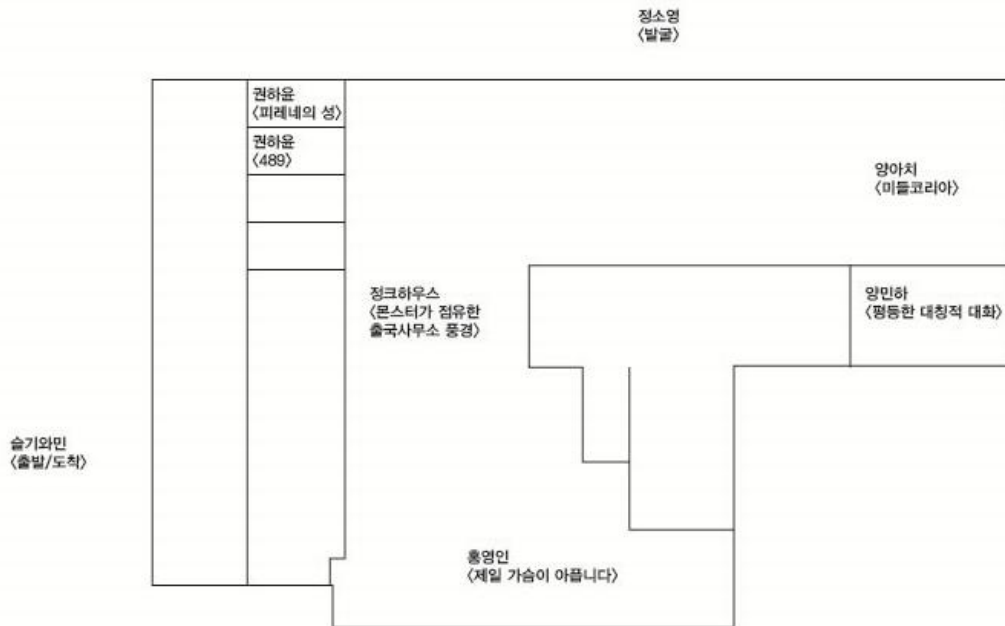
도라산역 설치 연작

슬기와 민

<출발/도착>

도라산역과 일부 동일

5.4.4 배치도



5.5. 통일교육원

5.5.1 기본개념

- 서울 수유리에 위치한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소속의 정부기관으로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곳이다. 건축가 김원이 설계한 교육원의 건물들은 북한산 자락의 풍경을 건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설계되었다. 교육관, 생활관, 후생관이 있으며 교육관은 대강당, 8개 강의실, 10개 분임토의실을 갖추었다
- 남북간 화해·협력과 통일에 관한 교육, 학교·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통일문제 전문가와 교육자를 훈련·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에 관한 사진과 물품 등을 전시한 전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중 원내 교육과정을 평성하여 운영하면서 과정 중에 판문점 · DMZ 접경지역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한다.
- 2019년 교육원 집합교육 인원 5,726 명 중 5,233명이 판문점,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강화 교동도 등 DMZ 접경지역을 견학했다. 이에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이 교육원에 설치된 작품을 관람하고 버스에 탑승해 판문점 등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향후 교육원부지가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 되도록 한다.
- 코로나 및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 판문점 · DMZ 접경지역 현장체험이 곤란하더라도 교육생들이 교육원 내에서 야외 조형물을 관람함으로써 DMZ 평화의 길을 간접 체험 가능

5.5.2 참여작가

o 이경복

5.5.3 설치작품

o 작품목록

작가소개	작품소개
<p>이경복</p> <p>이경복은 주로 공공미(예)술에 기반을 두어 작가와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작품(또는 디자인)을 목표로 기본활동(공공미(예)술)외에 관련 프로젝트 기획, 연구, 전시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 조경, 디자인, 도시재생 등 인접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업하고 있다. 현재 '술래집'이라는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국내 공공예술의 기록과 성찰, 경험의 사회적 축적과 공유 등을 고민하고 있다</p>	<div data-bbox="579 562 1193 1137"> </div> <div data-bbox="1198 562 1449 1137"> </div> <p><평화의 길(좁은문)></p> <p>올해로 분단 75주년이 되었다. 그 간의 수많은 노력은 적지 않은 제약 속에 좁은길을 위태로이 걷는듯하고 통일의 문은 여전히 드나들 수 없는 좁은문처럼 느껴진다. 눈으로 보이는데도 넘어갈 수 없는, 공간적 작업과 GP철거 잔해 등을 통해 통일염원 75년의 서사와 여전한 현실을 몸과 움직임 그리고 참여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을 구상했다. 작품은 길과 투명유리벽, G.P잔해들, 모니터, 잔디밭 등으로 이루지는데, 관람객들은 통일광장에 좁게 난 길을 따라 유리벽 앞에 도달한 후 Gp의 잔해들을 보거나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유리벽에 관람객들이 자신의 견해를 남길 수 있게 하여 통일에 대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남겨지도록 한다. 또한 유리벽의 주변은 관객참여를 통해 다양한 길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의도한다.</p>

6. 2단계 전시계획

6.1. 사업 개요

6.1.1 기본 개념

- DMZ 문화플랫폼의 시범운영 첫 단계로 예술을 매개로 DMZ가 갖는 평화의 의미를 전파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교류의 힘을 만들어가기 위해 접경지역 내에 거점공간을 조성해 활용한다.
- 철거 및 비상주 감시초소 등 의미가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파주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DMZ를 하나의 아트벨트로 조성하여 확장시킨다.

6.1.2 추진방침

-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DMZ 문화플랫폼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 과제 등 정책연구를 통한 비전 체계를 수립한다.
- DMZ 및 남북 교류와 관련한 학예 연구와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
- 감시초소, 도라산역 등의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 기획전 및 상설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예술프로젝트를 실천한다.
- 감시초소와 도라산역의 리모델링 후 예술프로젝트를 운영한다.
- 2022년 DMZ 평화예술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6.1.3 사업 예산

o 도라산역 미디어월 운영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원)
사업비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비 1식×120,000,000원	120,000,000
운영비	작품 심사비 1식×3,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식×25,000,000원 기타 운영비 1식×2,000,000원	30,000,000
합계		150,000,000

o 출경뮤지엄 전시 및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원)
구입비	자료 및 작품 구입비 1식×100,000,000원 =	100,000,000
작품비	작품제작지원비 5명×20,000,000원 작가비 5명×1,000,000원 =	105,000,000
연구비	운영방안 연구비 1식×40,000,000원 =	40,000,000
전시비	전시비 1식×109,000,000원	109,000,000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1식	46,000,000
합계		400,000,000

o 감시초소(철거/비상주) 작품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천원)
사업비	작품제작비 1식×5개×50,000,000원	250,000,000
운영비	작품심사비 1식×10,000,000원 프로그램운영비 1식×30,000,000원 기타운영비 1식×10,000,000원	50,000,000
합계		300,000,000

6.1.4 사례

o 그뤼네스반트 (GrünesBand)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의 '철의 장막'은 총 길이 1,400km, 폭은 50m에서 최대 200m로 지뢰와 철조망으로 가득한 죽음의 선이었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며 이 죽음의 선은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의 보고인 '녹색선'으로 바뀌었다. 민간 환경단체인 분트Bund가 정부 지원을 받아 보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그뤼네스반트는 숲, 초지, 강, 호수, 덩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 5,30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이 중 48%는 독일 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 DMZ는 현재 민간에게 닫힌 공간으로 많은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Z아트 프로젝트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닫힌 공간이 아니라 국민에게 열려져 널리 알려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기에 참고의 의미가 있다.

o 바르샤바 역사지구 (Historic Centre of Warsaw)

1944년 독일 점령군은 폴란드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시의 85%를 파괴하였다. 이후 주민들의 결의와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바르샤바는 역사적인 모습과 건축의 형태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다. 바르샤바는 또한 1791년 5월 유럽 최초로 성문헌법을 채택하여 선거권과 관용성의 상징이 되었던 곳이다. DMZ아트프로젝트는 DMZ의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자 하기에 바르샤바 역사지구의 재건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바르샤바역사지구 Historic Centre of Warsaw (사진출처: www.aviontourism.com)	<그뤼네스반트GrünesBand> (사진출처 : www.bfn.de)>
	

6.2 도라산역

6.2.1 사업개요

- 도라산역은 남북철도가 이어지는 기차역으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멈추는 최북단의 지역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내리게 된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기차역으로서는 유일하게 국경을 오고 가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평화의 통일시대 시공간을 체험하게 한다.
- 출경이라는 실제 용도를 위해 구성된 기차역에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한 작품을 설치하여 평화로 가는 여정의 시작인 도라산역을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관객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타임캡슐 프로그램 혹은 작품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6.2.2 추진방침

- 도라산역으로 들어가는 로비에 초대형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5감 체험형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전시한다. 이를 통하여 압도적 화면과 음향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방문객들은 판문점선언 등 분단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걸어온 주요 아카이브 내용 및, 철도를 따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평화통일시대의 시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 도라산역 메인 로비에 설치되는 거대한 미디어월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첨단기술로 제작된 영상작품이 과거에 멈춰있던 남북관계의 변화와 미래에의 희망을 일깨울 수 있게 한다.
- 남북 관계의 서류, 구술, 사진 자료들을 아카이빙하여 관람객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2.3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억 5천 만 원
- 소요내역

구분	산출내역	예산(천원)
사업비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비 1식×120,000,000원	120,000,000
운영비	작품 심사비 1식× 3,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식×25,000,000원 기타 운영비 1식×2,000,000원	30,000

6.2.4 사례

- 안양 파빌리온 공공서가
 -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안양파빌리온은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조형예술가인 알바루 시자 비에아라가 2005년 설계한 작품으로 국내 최초 공공예술 전문 서가이다. 이곳에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작품 도면, 스케치, 작가와의 서진 등 공공예술 관련 기록과 자료들이 보관된 아카이브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 도라산역에서는 미디어어 월의 주요 콘텐츠를 통일세대들이 함께 하는 타임캡슐 프로젝트로 진행하여 방문객들이 공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에 안양파빌리온은 참고할 사례로 의미가 있다.

안양 파빌리온의 공공서가 벽면 (출처 : www.noblesse.com)



o 더 넥센 유니버시티 미디어월

넥센타이어의 신사옥 1층에는 가로 30미터, 세로 7미터의 미디어월이 압도적인 화면으로 영상을 송출한다. 미디어팀 D'strict가 제작한 이 영상은 끝없이 화면으로 쏟아지는 파도로 "끝없는 도전"이라는 넥센 타이어의 기업정신을 표현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상은 방문객들의 시야를 끌어당긴다. 이러한 대형 미디어월은 규모와 시각적 자극에서 공간을 점유하는 좋은 방식일 뿐 아니라 예술영상 이외에도 정보 전달면에서 함께 이용가능하기에 실용적이다.

더 넥센유니버시티 1층 미디어월 (출처: <https://www.nexentire.com/>)



o NC SOFT사옥 미디어월

NC SOFT는 1층 로비에 가로 15미터 높이 5미터의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NC ART PROJECT>라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게임을 둘러싼 문화적 환경을 깊이 탐구하고 그 속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견하는 실험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게임은 가상과 현실이 연결된 일종의 문화 환경이며, 이 프로젝트는 게임이라는 거대한 환경이 생겨난 근원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재

해석해 예술적 형태로 실체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 3월, 첫 번째 프로젝트인 양민하 작가의 '차원의 혼합(Mixed Dimension)'은 엔씨소프트의 게임 속 세계관과 교감하는 미디어 아트로 게임을 둘러싼 문화의 형태적 재해석을 보여준다. 제진역에 설치될 미디어 작업 또한 이처럼 은유적으로 남북한의 관계와 그 변화를 표현할 수 있기에 참고할만 하다.

NC SOFT 사옥 1층 미디어월 (출처:<https://blog.ncsoft.com/>)



6.3 출경뮤지엄

6.3.1 기본 개념

- 상시적 교류를 꿈꾸며 과거의 교류를 기록하고 향후 남북교류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약속'이라는 주제로 거래말 사전, 농업협력사업, 개성 한옥사업 등 분단이후 진행된 남북문화 교류의 성과와 그 과정을 드러내는 전시를 기획한다. 시청각 정보로 제공되는 남북 공통의 서사와 경험은 분단 이후 진행된 남북회담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평화를 위한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6.3.2 추진방침

- 구 출경동은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던 공간이며 위치적으로도 남북의 경계선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 '출경뮤지엄'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구 출경동에서는 주변의 도라산역과 야외 전시공간을 포함한 DMZ 문화 플랫폼의 핵심 전시공간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한 전시와 연구, 조사 등의 학예업무가 이루어진다.
- 구 출경동 건축의 새로운 리모델링에 맞는 입체, 영상, 퍼포먼스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전시된다.

○ 주요사업

주 제	구 성	내 용
남 북 문 화 교 류	전 시	- 남 북 한 문 화 교 류 에 관 한 기 획 전 시 (예 시 : 남 북 한 무 형 문 화 재 전 수 자 의 교 류 와 관 련 작 품 전 시 및 상 품 판 매) - 도 라 산 역 라 운 지 작 품 설 치 (상 설 전) 및 프 로 그 램 운 영
	프 로 그 램	- 상 설 전 (도 라 산 역) 및 기 획 전 (출 경 동) 연 계 프 로 그 램 운 영
	아 카 이 브	- 남 북 교 류 자 료 조 사 및 수 집
	연 구	- DMZ 문 화 플 랫 폼 정 책 연 구

6.3.3 사 업 예 산

○ 소 요 예 산 : 4억 원

○ 예 산 내 역

구 분	내 용	산 출 내 역	예 산
구 입 비	자 료 및 작 품 구 입 비	1식 × 100,000,000원 =	100,000,000
정 책 연 구	운 영 방 안 연 구 비	1식 × 40,000,000원 =	40,000,000
작 품 비	작 품 제 작 지 원 비	5명 × 20,000,000원	100,000,000
	작 가 비	5명 × 1,000,000원 =	5,000,000
전 시 비	작 품 운 송 및 설 치 비 (반 입 / 반 출)	12,000,000원 × 2회 =	24,000,000
	장 비 (모 니 터, 프 로 젝 터, 컴 퓨 터 등) 임 차 비	1식 × 20,000,000원 =	20,000,000
	전 시 그 래 픽 디 자 인 개 발 비	1식 × 5,000,000원 =	5,000,000
	전 시 공 간 구 성 비 (가 벽 설 치 / 목 공 / 도 장 등)	1식 × 15,000,000원 =	20,000,000
	전 시 실 내 외 부 사 인 물	2식 × 10,000,000원 =	20,000,000
	전 시 출 판 물	1식 × 20,000,000원 =	20,000,000
운 영 비	동 영 상 제 작 비	1식 × 20,000,000원 =	15,000,000
	원 고 료 및 번 역 료	50,000원 × 60장 =	3,000,000
	전 시 관 련 전 문 가 초 청 비	1,000,000원 × 4인 =	4,000,000
	작 품 사 진 촬 영 비	4,000,000원 × 1건 =	4,000,000
	프 로 그 램 운 영 비	1식 × 50,000,000원 =	20,000,000
합 계			400,000,000

6.4 감 시 초 소

6.4.1 기본개념

- 남북은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 군사분계선 안쪽의 임시 감시초소(GP)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양측은 시범 철거를 상호 진행하여 각각 11개의 GP를 철거했으며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각각 1곳을 원형 그대로 남겼다.
- 현재 고성과 파주에 존재하는 철거GP와 보존GP는 남북의 역사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 장소를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여 GP아트파빌리온을 건립한다.
- 철거 GP는 건축적인 해석에 기반한 공간을 조성한다. 분단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철조망이 GP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밖으로는 DMZ의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이 둘러싸고 있다. 이 철조망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설치한다.
- 철조망을 따라 GP를 걷는 시간 동안 관객이 가질 시각, 촉각, 후각, 청각의 총체적인 경험과 사유는 DMZ라는 공간에 대해 가진 일반적인 이미지를 더 개인적인 기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보존 GP는 실제로 사용하던 감시초소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건물외부와 내부를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며 작가들이 이를 이용한 장소특정적인 작품을 제작한다.

철거 GP와 보존 GP (사진출처: 연합뉴스)



6.4.2 추진방침

- GP아트파빌리온은 옛 감시초소의 터와 보존된 공간을 이용하여 조성된다. 이 공간을 통해 관객은 적대적으로 대립했던 지난 역사를 체험한다.
- 외부간접조명 및 전열 등 인프라가 매입된 바닥판과 조경을 이용해 '최소한의 갤러리', 아트 파빌리온을 조성한다.
- 이 특수한 장소 및 공간을 조형화한 작품 및 공연 등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며 예술작품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의 수평적 교류를 위한 전 세계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 낭송회, 사운드아트, 퍼포먼스, 빈집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전시 및 행사가 실행되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
- GP아트파빌리온은 이곳이 감시초소이며 군사지역이라는 특수한 장소적 특성과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작가에게 주어질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계획한다.

6.4.3 사업예산

○ 소요예산 : 3억원

○ 예산내역

구분	내용	산출내역	예산(천원)
사업비	작품제작비	1식×5개×50,000,000원	250,000,000
운영비	작품심사비	1식×10,000,000원	50,000,000
	프로그램운영비	1식×30,000,000원	
	기타운영비	1식×10,000,000원	
합계			300,000,000

6.4.4 사례

○ 구소련 공군부대 잠벡 (Zsambek)

잠벡은 복합적인 문화 기능이 개발된 사례로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중거리 미사일 부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후 한 동안 폐허 상태로 남겨져 있다가 잠벡 지역 관광청으로 국영 소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지역은 야외극장과 군 박물관 두 구역으로 구분되어 활용되고 있다. 공군 박물관은 헝가리 최초의 박물관으로 헝가리 공군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곳이다. 박물관이 구 공군부대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방문객들은 구 전투사령부, 정찰 레이다 2곳, 6개 미사일 발사대 설치 구역, 즉시 대피 미사일호, 기타 건물 구조물 등 20세기 후반에 지어진 방어 시설, 병커, 건물, 기타 군 설치물을 관람할 수 있다. 잠벡 연극제는 이렌 마티야스와 예술가들이 마을 야외 공간에 아방가르드 연극 공연을 초대함으로써 1985년에 시작된 축제이다. 버려진 장소에서 최초의 연극 공연이 이루어진 후 1995년 관광객들의 증가로 군지역 내로 이전하였으며 미사일 발사대나 병커 같은 공간을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이동식 기술 설비가 갖춰진 야외 무대와 이동식 미사일이 있는 대형 병커 속 일부 폐쇄형 무대가 있으며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무대와 강당이 있는 공연홀이 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연극과 워크숍, 전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구소련 공군부대 잠벡 Zsambek 내에서의 공연장면 / 입구

(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참고자료 : (헝가리)부다페스트 근처 구소련 공군부대인 잠벡 군 지역의 문화적 재활용, 이스트반

바르가, 2019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9, pp.75-77.)

o 에치코츠마리 빈집프로젝트

1회 때 처음 시도되어 2003년부터 본격화된 '이에(家)프로젝트'는 에치코식의 공존을 매개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이 지역의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다. 인구가 줄고 빈집과 폐교가 늘어나면서 고안된 이 프로젝트는 '팬클럽제도'라는 민간후원으로 마련된 재정을 통해 가능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50여 개의 폐교와 빈집이 활용되고 있다. <우부스나의 집>은 100년이 된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을 구입해 복원한 대표적인 '이에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완고한 주인을 설득해 복원함으로써, 이 지역 전통민가를 보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방문객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폐교프로젝트 역시 빈집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된 학교 공간을 예술가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을 초청해 장소의 의미와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빈집프로젝트 <우부스나의 집> (사진출처: 에치고츠마리 공식홈페이지 www.echigo-tsumari.jp)	폐교프로젝트 크리스티앙 불탕스키 <마지막 교실> (사진출처: 에치고츠마리 공식홈페이지 www.echigo-tsumari.jp)
	

6.5 야외광장

6.5.1 사업개요

- o 도라산역과 제진역 외부에는 넓은 광장이 있으며 단체, 개인으로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필히 거쳐 가게 되는 공간이다.
- o 남북의 소통과 교류를 주요한 주제로 하여 그 과정을 표현한 작품으로 출경뮤지엄, 도라산역, 제진역 내부의 작품과 연결성을 가진다.
- o 북으로 향하는 기차역, 여행의 시작이라는 설레임과 희망을 담은 작품이 이 넓은 광장에 도착한 관람객들을 반기게 된다.

6.5.2 추진방침

- o 넓은 광장, 열린 야외 공간에서 방문객에게 존재감을 가져야 하기에 고정된 평면, 입체 작품이 아닌 미디어 등의 확산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 조명, 배너부착용 기둥, 음향장치 등 외부에 기존 구조를 이용하는 작품으로 공간을 넓게 점유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6.5.3 사업예산 : 없음

6.5.4 예시

○ 베를린 문화 프로젝트, 베를린

베를린 주정부 기업 산하의 비영리 기업 문화프로젝트 베를린(Kulturprojekte Berlin)은 베를린 시의 위임을 받아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25주년을 기념하여 도미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30주년에 맞추어 대규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09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이하여 넓이 1미터 폭 40센티의 도미노 스톤 1,000여개를 2km에 걸쳐 설치하였다. 각 도미노 스톤에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젊은 미술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한 그림을 그렸다. 이 도미노를 전시 후 행사 마지막날 저녁 7시에 장벽 붕괴와 마찬가지로 넘어트리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2019년 30주년에는 베를린의 7개의 장소에 미디어 파사드, 증강현실을 이용한 베를린 장벽 재현, 평화의 시위를 비롯하여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나치 정권과 분단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미디어 파사드로 상영하였으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모여 10만명이 대규모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또한 MauAR 앱을 개발하여 휴대폰으로 베를린 장벽을 장소에 맞추어 증강 현실화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사진 및 자료 출처 <https://www.kulturprojekte.berlin> / <https://froma.co.kr/385>)

도미노 스톤 프로젝트 (2009)	베를린장벽 프로젝트(2019)
	

6.6. 제진역

6.6.1 사업개요

○ 제진역은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동해남부선의 최북단으로 민통선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의 도라산역과 동쪽의 제진역은 DMZ의 동과 서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로 각각 북으로 향하는 통로로서 역할하기 위해 지어졌다.

○ DMZ 아트 프로젝트는 도라산역과 제진역을 예술작품을 통해 연결하여 DMZ를 동서로 이어

지는 아트벨트로 자리매김 한다.

o 제진역은 출경을 위한 기능적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6.6.2 추진방침

o 화이트 큐브가 아닌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고정된 평면, 입체 작품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o 조명, 배너부착용 기둥, 음향장치 등 외부에 기존 구조를 이용하는 작품으로 공간을 넓게 점유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6.6.3 사업예산 : 없음

6.6.4 예시

o 함부르거 반호프-현대미술관, 베를린

함부르거 반호프 역은 최초의 독일 철도 시스템 승강장 중 하나로 현재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함부르거 반호프 역은 1846년 12월 함부르크와 베를린을 잇는 노선으로 후기신고전주의 스타일로 프리드리히 뉴하우스 (Friedrich Neuhaus) 가 디자인하였다. 이 스타일의 기차역은 19세기 후반까지 베를린의 다른 기차역의 표본이 되었으며 오늘날 유일하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1884년 철도 노선의 개편으로 기차역으로서 문을 닫았고, 주택 및 행정처리 기관으로 활용되다가 1904년부터 교통 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증축공사를 거쳤으며 세계 1차 대전의 와중에도 완공하였다. 그러나 1943년 세계 2차대전시 심각한 파손이 가해졌으며 동서독의 교류가 없었기에 방치되고 있었다. 1984년 2월 서독의 행정부 하에 베를린 750주년을 맞이하여 일부 복원이 되었으며 1987년 '베를린으로 여행'전시를 하였다. 이후 프러시안 문화재단로 건물 감독이 이관되었고 조셉 폴 클리휴Josef Paul Kleihues가 오랜 시간에 걸쳐 건물을 복원하였다. 그리고 1996년 11월 2일 마르크스 컬렉션의 소장품을 위한 국립 현대 미술관으로 재개관 하였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20016007>

<https://www.smb.museum/museen-einrichtungen/hamburger-bahnhof/home>)

o 유럽 미술 박람회, 마스트리히트(TEFAF The European Fine Art Fair, Maastricht)

유럽 연합이 탄생한 도시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의 아트페어로 고전 미술과 고대 유물, 보석과 가구 등을 판매하는 행사이다. 마스트리히트는 벨기에와 독일의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EU와 관련된 주요 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1988년에 시작한 이 아트페어는 골동품 아트페어와 고미술 아트페어가 합쳐져 시작된 만큼 고전 미술을 주로 다루고 있다. 20여 개국의 275개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아트 바젤 다음으로 큰 유럽의 프리미엄 아트 페어로 주로 유럽과 미국 각지의 미술관 관장들과 학예사들, 그리고 후원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뉴욕에

서도 가을과 봄에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년 열흘간 열리며 같은 기간 마스트리히트의 본판텐 미술관 Bonnefantenmuseum과 얀 판 아이크 아카데미 그리고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 예술 주간으로 진행된다. (글 및 사진출처 : <https://www.tefaf.com/>)

유럽미술박람회 전경	베를린 현대미술관-함부르거 반호프
	 <p>(사진 출처 : www.smb.museum/en/exhibitions/detail/?tx_smb_pi1%5Bexhibition%5D=1316&cHash=039be381b1630b9efea4613abac7ff26)</p>

7. 3단계 전시 계획

7.1. 사업개요

7.1.1 기본방향

-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내외 국민과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행사로 남북 문화 교류의 테마를 선정해 관련 예술가들 및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DMZ의 역사, 문화, 생태를 주제로 한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평화적 교류의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DMZ비엔날레를 통해 DMZ에 대한 기록들은 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축적되어 DMZ가 가진 평화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7.1.2 개요

- 사업명 : DMZ 남북 평화예술제
- 행사장소 : 도라산역 내외부, 출경동, 감시초소 등을 포함한 주요 거점 공간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금강산 전망대 등)
- 행사기간 : 7~9월
- 참여작가 : 50여팀
- 전시주제 : 변화하는 땅(가제)
- 주최 및 주관 :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

7.1.3 추진방침

- 출경뮤지엄을 포함한 DMZ의 주요 거점 공간들을 연결하고 주변지역으로 확장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비엔날레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 매년 이루어지는 기획전과 학예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국제적인 범위의 작가를 초대한다.
- 신생 비엔날레로 향후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 비엔날레를 통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남북교류의 의미와 평화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여 DMZ 평화예술공간을 국제적으로 알린다.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감독 및 스태프를 선발하여 비엔날레의 실행부서를 구성한다.

7.2 사업내용

7.2.1 전시구성

- 전시주제 : 변화하는 땅
 - 분단된 이후의 시간 동안 남북한의 상황이 그러했듯이 DMZ 지역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DMZ가 멈추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o 구성 개요

- 도라산역 및 제진역 일대 전시장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국제적 무대로 확장한다.
- DMZ 평화예술제는 관람객에게 DMZ라는 외부환경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장소 특정적 작품들과 DMZ가 가진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 형태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내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한다.
- 지난 2년간 발굴된 거점 공간들을 중심으로 예술제 기간 동안 이들을 연결하고 전시 주제에 맞추어 전시 및 이벤트, 학술행사, 공공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도라산역을 포함한 DMZ 문화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아카이브로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 지역민과 작가, 자원봉사자와 관람객 등 DMZ에 거주하고 이를 거쳐가는 이들이 소통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다.

o 전시내용

키워드	장소	프로그램
공존+지역	도라산역 및 제진역	- DMZ를 주제로 한 전시회 개최 - 접경지역 연구에 기반한 작품 제작 지원 -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및 결과 전시
교류+연구	출경뮤지엄	- 남북교류를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 자료 전시 -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 및 결과 전시 - 전세계 연구자 및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기능+예술	오두산전망대 및 금강산전망대	- 전망대의 장소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곳을 지정하여 기능이 있는 작품 제작 - 작가와의 협업프로젝트
평화+생태	감시초소	- 자연, 생태, 평화등을 주제로 한 장소특정적 예술프로젝트 진행 - 작품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예술가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깊이 있는 작품이 제작되도록 함

o 아트 프로젝트 : DMZ 다큐 프로젝트

- DMZ와 그 주변은 일반인들에게 일상과 분리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삶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민통선 북쪽에 자리하고 있어 민북마을이라 불리는 양지리마을, 통일촌마을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간 남북의 관계변화를 고스란히 보고 느껴온 증인들이다.
- DMZ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군인들은 북한군인과 서로 마주보며 밤과 낮을 보낸다. 이러한 접경 지역의 시간과 목소리들을 작가, 예술가, 영상감독 등이 일정기간 DMZ안에 머물며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 기록물들은 전시의 형태나 낭독회, 상영회 등의 형태로 공개된다. 접경지역 삶의 기록은 일반 시민들에게 철책과 군인들의 사진으로만 보여지는 DMZ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2.2 사업예시

o JTBC 창사기획다큐멘터리 DMZ

- JTBC가 창사기획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DMZ는 그동안 가까이 만나볼 수 없었던 DMZ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DMZ가 담고 있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DMZ는 66년간의 분단 기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남과 북의 숨겨진 이야기, 방송 최초로 북한 쪽에서 바라보는 DMZ의 모습, 야생 동식물의 생태를 통해 '한국의 세렝게티'라 불릴 만큼 종 다양성이 풍부해진 DMZ의 생태학적 가치 등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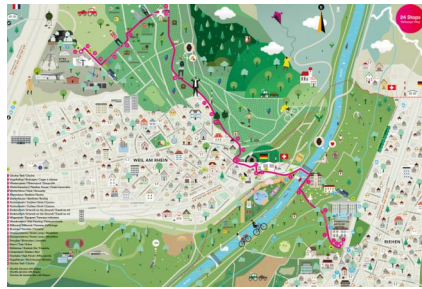
JTBC창사기획다큐멘터리DMZ,2019 (사진출처 : JTBC)	미디어아트전문레지던스프로그램 Fuse artist in residence, Videotage, Hong Kong (사진출처: www.chinaresidencies.com)
	

o 미디어 아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디오타지(Videotage)는 미디어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1986년에 설립되었다. 홍콩을 대표하는 비영리기구 중 하나인 비디오타지(Videotage)는 UNESCO에 개제된 미디어아트 협회이기도 하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소개, 제작, 프로모션이다. Videotage는 홍콩을 기반으로 하지만 오랜기간의 활동을 통한 세계적인 커넥션으로 미디어작가들과 문화 플랫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홍콩예술개발협회의 서포트 아래 Videotage는 레지던시 이외에도 전시와 워크숍,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o 24 Stops Rehberger-weg

24 Stops Rehberger-weg는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의 국경을 넘어 두 시간 동안 걷는 노선을 따라 연결되는 예술의 길이다. 작품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 이들을 안내하며 도시와 풍경 속으로 방문객들을 이끈다. DMZ는 남과 북의 경계로 스위스와 독일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은 아직 불가하다. 하지만 이 경계를 걷고 그 위에서 남과 북에 대한 고민과 희망이 담긴 작품을 보는 경험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o 뮌스터조각 프로젝트 (Skulptur Projekte Münster)

- 독일의 뮌스터는 1648년 유럽의 30년 종교 전쟁을 끝낸 '베스트 팔렌 평화 협정'을 맺은 도시이자 2차 세계대전 때 90%이상 파괴되었던 도시이다. 현재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로 문화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큐레이터 클라우스 부스만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조형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문을 시에게 의뢰 받았다. 그러나 구입 과정에서 조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포기하였다. 이후 시민들에게 미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방송까지 출연하여 설득하였고 시민 단체와 협의하여 1977년 '20세기 조각의 역사' 전시를 기획하였다. 길거리에 전시된 미술은 미술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다수 시민들의 문화 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10년마다 개최하여 새로운 경향의 미술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 전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최신 경향의 미술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전시를 시작하기 2년 전부터 미술가들을 초청하여 뮌스터에 체류하며 어떤 조각을 전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설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비롯하여 대중이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몇 작품은 시에서 구입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된다.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미술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알렉산드라 피리치 (Alexandra Pirici) '새는 영토(Leaking Territories)' 공연 장면 © Skulptur



© Skulptur Projekte 2017, photo by Henning Rogge



7.3 사업 홍보

7.3.1 홍보 개요

- 주요방향 : DMZ 평화예술제의 브랜딩화,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 SBS 런닝맨 등 방송 연계, 유튜버 컴피티션, 시민참여형 SNS 이벤트
통일부 소속기관 활용, 행사 장소의 지역조직 연계
- 주요 홍보채널

구분	내용
온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카카오톡
오프라인	서울역, 광화문 전광판 등 파주, 고성, 연천군 내 가로등 배너 및 옥외광고판 행사장 일대
매체광고	중앙 일간지, 주요 미술잡지, 지하철 역사 등

7.4 사업예산

7.4.1 소요예산 : 3,500,000,000원

○ 작가 참가비 및 작품 제작지원비

구분	산출근거	예산(원)
도라산역 및 제진역	30,000,000원×10건	300,000,000
야외광장	2건×2000,000,000원	400,000,000
출경뮤지엄	5건×20,000,000원	100,000,000
오두산 전망대 금강산 전망대	50,000,000원×8건	400,000,000
통일미래센터	10건×20,000,000원	200,000,000
감시초소	50,000,000원×10건	500,000,000
기타 프로그램 운영	5건×20,000,000원	100,000,000
합 계		2,000,000,000

○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구분	산출근거	예산
작품 운송 및 설치비(반입/반출)	20,000,000원×2회 =	40,000,000
장비(모니터, 프로젝터, 컴퓨터등)임차비	1식×80,000,000원 =	80,000,000
그래픽 아이덴티티 개발비	1식×10,000,000원 =	10,000,000

전시공간구성비(가벽 설치/목공/도장 등)	2식 × 30,000,000원 =	60,000,000
전시실 내외부 사인물	5식 × 10,000,000원 =	50,000,000
그래픽 디자인 업무	1식 × 30,000,000원 =	30,000,000
홍보물 제작비	1식 × 20,000,000원 =	20,000,000
도록제작비	1식 × 20,000,000원	20,000,000
작가 항공료	5,000,000원 × 6인 =	30,000,000
작가 숙박 및 교통비	200,000원 × 30인 × 10일 =	6,000,000
원고료 및 번역료	60,000원 × 200장 =	12,000,000
세미나 등 행사비	1식 × 50,000,000원 =	50,000,000
사진 및 동영상 촬영비	10,000,000원 × 4건 =	40,000,000
합 계		448,000,000

○ 홍보비

구 분	산출근거	예 산(원)
전시 리플렛, 포스터 제작비	5,000원 × 10,000부 =	50,000,000
초대장 및 봉투 제작비	3,000원 × 3000부 =	9,000,000
홈페이지 구축비	10,000,000원 × 1건 =	10,000,000
오픈 행사 용역비	90,000,000원 × 1건 =	90,000,000
지면 광고비	5,000,000원 × 10건 =	50,000,000
외부 옥외 광고비	30,000,000원 × 3건 =	90,000,000
방송 광고비	100,000,000원 × 1건 =	100,000,000
어플리케이션 제작비	10,000,000원 × 1건 =	10,000,000
홍보부스 운영	10,000,000원 × 5건 =	50,000,000
홍보물 제작비	30,000,000원 × 1건 =	30,000,000
합 계		489,000,000

○ 인건비 및 운영비

구분	산출근거	예 산(원)
예술감독 인건비	1인 × 11개월 × 7,000,000원 =	70,000,000
큐레이터 인건비	1인 × 10개월 × 4,000,000원 =	40,000,000
	3인 × 9개월 × 4,000,000원 =	108,000,000
코디네이터 인건비	3인 × 9개월 × 3,500,000원 =	126,000,000
전시관리원 인건비	30인 × 2개월 × 3,000,000원 =	108,000,000

셔틀버스 운영비	25,000,000원 × 2개월 =	50,000,000
공간 관리비	2,000,000원 × 2개월 × 5개 =	20,000,000
회의 운영비	100,000원 × 2개월 × 80회 =	8,000,000
여비 교통비	300,000원 × 2개월 × 10인 =	6,000,000
자료조사 및 출장비	1식 × 15,000,000원	15,000,000
자문 및 집행위원회 운영비	2식 × 1,000,000원 × 6회	12,000,000
합 계		563,000,000

8. 소 요 예 산 계 획

8.1 1단계 소 요 예 산 계 획

8.1.1 공간 조성 예산

o 1단계('20년) 총 사업비 : 2,892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적용요율	예산액(원)					
1.건축 설계 및 공사비		-	1,738,484,000					
				구분	연면적 (㎡)	공사비 (억)	공사단가 (원/㎡)	비고
				구 출경동	759.76	13.1	1,724,228	-
				철거 감시초소	851	3.18	364,277	파주 철거감시초소
				합계	1354.5	16.3	평균 100.5만원	-
설계비(420-01/02)		5.129%	83,613,000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기준」 (종 별 : 제3종 복잡 / 도서의 양 : 중급)				
공사비(420-03)		100%	1,630,196,000	총 공사비(16.3억) ※공사비 상세내역 참조				
감리비(420-04)		1.283%	20,926,000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기준」 (종 별 : 제3종 복잡)				
시설부대비(420-05)		0.23%	3,749,000	총 공사비(16.3억)x0.23%				
소 계			3,476,968,000원					

8.1.2 1단계 전시 예산

o 사업예산 : 1,154,000,000원

o 작가 참가비 및 작품 제작지원비 (500,000,000원)

구 분	산출근거	예 산(원)
도라산역	20,000,000원×5건 =	100,000,000
구출경동	30,000,000원×5건 =	150,000,000
제진역	30,000,000원×5건 =	150,000,000
「평화의 길」조형물(교육원)	100,000,000원×1건 =	100,000,000
합 계		500,000,000

※ 작품 수는 총예산범위 내에서 늘어날 수 있음

※ 작품마다 제작지원비는 다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o 전시 및 프로그램비 (203,000,000원)

구 분	산출근거	예 산
작품 운송 및 설치비(반입/반출)	10,000,000원×2회 =	20,000,000

장비(모니터, 프로젝터, 컴퓨터 등)임차비	1식×40,000,000원 =	40,000,000
그래픽,공간 디자인 개발비 및 관련 작업비	2식×10,000,000원 =	20,000,000
도록제작비	1식×30,000,000원 =	30,000,000
전시공간구성비 (가벽 설치/목공/도장 등)	1식×30,000,000원 =	30,000,000
전시실 내외부 사인물	2식×10,000,000원 =	20,000,000
작가 항공료	5,000,000원×1인 =	5,000,000
외부인사 숙박 및 교통비	200,000원×5인×10일 =	5,000,000
원고료 및 번역료	50,000원×60장 =	3,000,000
전문가 초청 행사비	1,000,000원×10인 =	10,000,000
동영상 및 작품사진 촬영비	10,000,000원×2건 =	20,000,000
합 계		203,000,000

○ 홍보비 및 운영비 (451,000,000원)

구 분	산출근거	예 산(원)
리플릿 제작비	2,000원×10,000부 =	20,000,000
초대장 및 봉투 제작비	2,000원×2000부 =	4,000,000
포스터 제작비	10,000원×500부 =	5,000,000
홈페이지 구축비	10,000,000원×1건 =	10,000,000
오프닝 및 각종 행사비	80,000,000원×1건 =	80,000,000
지면 광고비	5,000,000원×2건 =	10,000,000
외부 옥외 광고비	10,000,000원×2건 =	20,000,000
방송 광고비	100,000,000원×1건	100,000,000
홍보비 소계		249,000,000
전시 총괄 코디네이터	1인×6개월×5,000,000원	30,000,000
코디네이터(홍보,전시,교육) 인건비	3인×4개월×4,000,000원	48,000,000
전시 관리원 인건비	15인×2개월×2,000,000원	60,000,000
셔틀버스 운영비	20,000,000원×2개월	40,000,000
공간 관리비	2,000,000원×2개월	4,000,000
회의 운영비	100,000원×6개월×10회	6,000,000
여비 교통비	200,000원×5개월×4인	4,000,000
통신비	3식×2,000,000원	6,000,000
운영위원회 운영	5인×200,000원×4회	4,000,000
운영비 소계		202,000,000
합 계		451,000,000

8.2 2단계 소요 예산 계획

8.2.1 공간 조성 예산

- o 2단계('21년) 총 사업비 : 32.7억 원
- 도라산역 라운지 전시공사비 산출 내역 : 18억 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적용요율	예산액(원)															
도라산역 라운지 미디어월 전시(설계/제작/설치)		-	1,800,000,000	<table><tr><td>구분</td><td>설치규모</td><td>공사비 (억)</td><td>공사단가 (원/m²)</td><td>비고</td></tr><tr><td>도라산역 맞이방</td><td>240m²</td><td>15</td><td>6,250,000</td><td>-</td></tr></table>					구분	설치규모	공사비 (억)	공사단가 (원/m²)	비고	도라산역 맞이방	240m²	15	6,250,000	-
구분	설치규모	공사비 (억)	공사단가 (원/m²)	비고														
도라산역 맞이방	240m²	15	6,250,000	-														
설계비(420-01/02)	7%	105,000,000	총 공사비(15억)x7%(복합공정 할증률 적용)															
공사비(420-03)	100%	1,500,000,000	총 공사비(15억)															
감리비(420-04)	3%	45,000,000	총 공사비(15억)x3%															
컨텐츠제작비(420-05)	-	150,000,000	1식x150,000,000원															
소 계			3,600,000,000원															

- DMZ 조망 보도육교 설계비 산출 내역 : 2.74억 원

구분	내용	단위(m²)	단가/m	합계	비고
설계비(420-01/02)	공사비의 3.09%	-	-	274,878,000	'21년 완료(2.74억)
공사비(420-03)	데크보행로(635m x 5m)	3,250	1,150,000	3,737,500,000	'22년 추진(90.4억)
	보행교(30m x 12m)	600	8,597,000	5,158,200,000	
공사비 소 계				8,895,700,000	
감리비(420-04)	공사비의 1.45%	-	-	128,988,000	
시설부대비(420-05)	공사비의 0.27%	-	-	24,019,000	
총 사업비				9,323,585,000	'21~'22년 (93.2억)

8.2.2 2단계 전시 예산

- 소요 예산 : 1,350,000,000원 (미디어월 150,000,000원 + 출경동 1,200,000,000원)
- 도라산역 미디어월 제작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원)
사업비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비 1식×120,000,000원	120,000,000
운영비	작품 심사비 1식× 3,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식×25,000,000원 기타 운영비 1식×2,000,000원	30,000,000
합계		150,000,000

○ 출경뮤지엄 전시 및 사업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원)
구입비	자료 및 작품 구입비 1식×100,000,000원 =	100,000,000
작품비	작품 제작 지원비 5명×20,000,000원 작가비 5명×1,000,000원 =	105,000,000
연구비	운영방안 연구비 1식× 40,000,000원 =	40,000,000
전시비	전시비 1식×109,000,000원	109,000,000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1식	46,000,000
합계		400,000,000

○ 감시초소(철거/비상주) 작품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천원)
사업비	작품제작비 1식×5개×50,000,000원	250,000,000
운영비	작품 심사비 1식× 10,00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1식×30,000,000원 기타 운영비 1식×10,000,000원	50,000,000
합계		300,000,000

○ 출경뮤지엄 홍보 및 프로그램비

구분	산출근거	예산(원)
홍보물 제작비	출경뮤지엄 브랜딩 개발비 1식×30,000,000	30,000,000
	각종 홍보물 제작비 3식×10,000,000원	30,000,000
	아트상품 개발 및 제작비 1식×20,000,000원	20,000,000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비 1식×10,000,000원	10,000,000

행사비	오프닝 및 각종 행사비	1식 × 30,000,000원	30,000,000
광고비	지면 광고비	1식 × 20,000,000원	20,000,000
	야외 광고	1식 × 30,000,000원	30,000,000
합계			170,000,000

○ 출경뮤지엄 운영비

구분	산출내역		예산(원)
인건비	학예사 인건비 관리원	2인 × 10개월 × 5,000,000원 = 100,000,000 4인 × 12개월 × 4,000,000원 = 192,000,000	292,000,000
관리비	제세공과금	1식 × 1,000,000원 × 12개월	12,000,000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비	1식 × 2,000,000원	2,000,000
임차비	사무실 장비 임차비	1식 × 10,000,000원	10,000,000
소모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1식 × 5,000,000원	5,000,000
회의비	회의 식음료비	1식 × 200,000원 × 25회	5,000,000
여비교통비	국내 여비	1식 × 200,000원 × 2인 × 10개월	4,000,000
합계			330,000,000

8.3 3단계 소요 예산 계획

8.3.1 공간 조성 예산

- 3단계('22년) 총 사업비 : 137억원
- DMZ 조망 보도육교 공사비 등 산출 내역 : 90.4억

구분	내용	단위(m ²)	단가/m	합계	비고
설계비(420-01/02)	공사비의 3.09%	-	-	274,878,000	'21년 완료(2.74억)
공사비(420-03)	데크보행로(635m x 5m)	3,250	1,150,000	3,737,500,000	'22년 추진(90.4억)
	보행교(30m x 12m)	600	8,597,000	5,158,200,000	
공사비 소 계				8,895,700,000	
감리비(420-04)	공사비의 1.45%	-	-	128,988,000	
시설부대비(420-05)	공사비의 0.27%	-	-	24,019,000	
총 사업비				9,323,585,000	'21~'22년 (93.2억)

8.3.2 3단계 전시 예산

o 소요예산 : 3,500,000,000원

o 작가 참가비 및 작품 제작지원비

구 분	산출근거	예 산 (원)
도라산역 및 제진역	30,000,000원×10건	300,000,000
야외광장	2건×2000,000,000원	400,000,000
출경뮤지엄	5건×20,000,000원	100,000,000
오두산 전망대 금강산 전망대	50,000,000원×8건	400,000,000
통일미래센터	10건×20,000,000원	200,000,000
감시초소	50,000,000원×10건	500,000,000
기타 프로그램 운영	5건×20,000,000원	100,000,000
합 계		2,000,000,000

o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구 분	산출근거	예 산
작품 운송 및 설치비(반입/반출)	20,000,000원×2회	40,000,000
장비(모니터, 프로젝터, 컴퓨터등)임차비	1식×80,000,000원	80,000,000
그래픽 아이덴티티 개발비	1식×10,000,000원	10,000,000
전시공간구성비(가벽 설치/목공/도장등)	2식×30,000,000원	60,000,000
전시실 내외부 사인물	5식×10,000,000원	50,000,000
그래픽 디자인 업무	1식×30,000,000원	30,000,000
홍보물 제작비	1식×20,000,000원	20,000,000
도록제작비	1식×20,000,000원	20,000,000
작가 항공료	5,000,000원×6인	30,000,000
작가 숙박 및 교통비	200,000원×30인×10일	6,000,000
원고료 및 번역료	60,000원×200장	12,000,000
세미나 등 행사비	1식×50,000,000원	50,000,000
사진 및 동영상 촬영비	10,000,000원×4건	40,000,000
합 계		448,000,000

o 홍보비

구 분	산출근거	예 산 (원)
전시 리플렛, 포스터 제작비	5,000원×10,000부	50,000,000

초대장 및 봉투 제작비	3,000원 × 3000부	9,000,000
홈페이지 구축비	10,000,000원 × 1건	10,000,000
오픈팅 행사 용역비	90,000,000원 × 1건	90,000,000
지면 광고비	5,000,000원 × 10건	50,000,000
외부 옥외 광고비	30,000,000원 × 3건	90,000,000
방송 광고비	100,000,000원 × 1건	100,000,000
어플리케이션 제작비	10,000,000원 × 1건	10,000,000
홍보부스 운영	10,000,000원 × 5건	50,000,000
홍보물 제작비	30,000,000원 × 1건	30,000,000
합 계		489,000,000

○ 인건비 및 운영비

구분	산출근거	예산(원)
예술감독 인건비	1인 × 11개월 × 7,000,000원	70,000,000
큐레이터 인건비	1인 × 10개월 × 4,000,000원	40,000,000
	3인 × 9개월 × 4,000,000원	108,000,000
코디네이터 인건비	3인 × 9개월 × 3,500,000원	126,000,000
전시관리원 인건비	30인 × 2개월 × 3,000,000원	108,000,000
셔틀버스 운영비	25,000,000원 × 2개월	50,000,000
공간 관리비	2,000,000원 × 2개월 × 5개	20,000,000
회의 운영비	100,000원 × 2개월 × 80회	8,000,000
여비 교통비	300,000원 × 2개월 × 10인	6,000,000
자료조사 및 출장비	1식 × 15,000,000원	15,000,000
자문 및 집행위원회 운영비	2식 × 1,000,000원 × 6회	12,000,000
합 계		563,000,000

9. 사업 추진 계획

9.1 사업 추진 일정

9.1.1 3개년 추진 일정

○ 1단계('20년)

-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용역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시범전시 기획 및 운영 용역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시공 용역

○ 2단계('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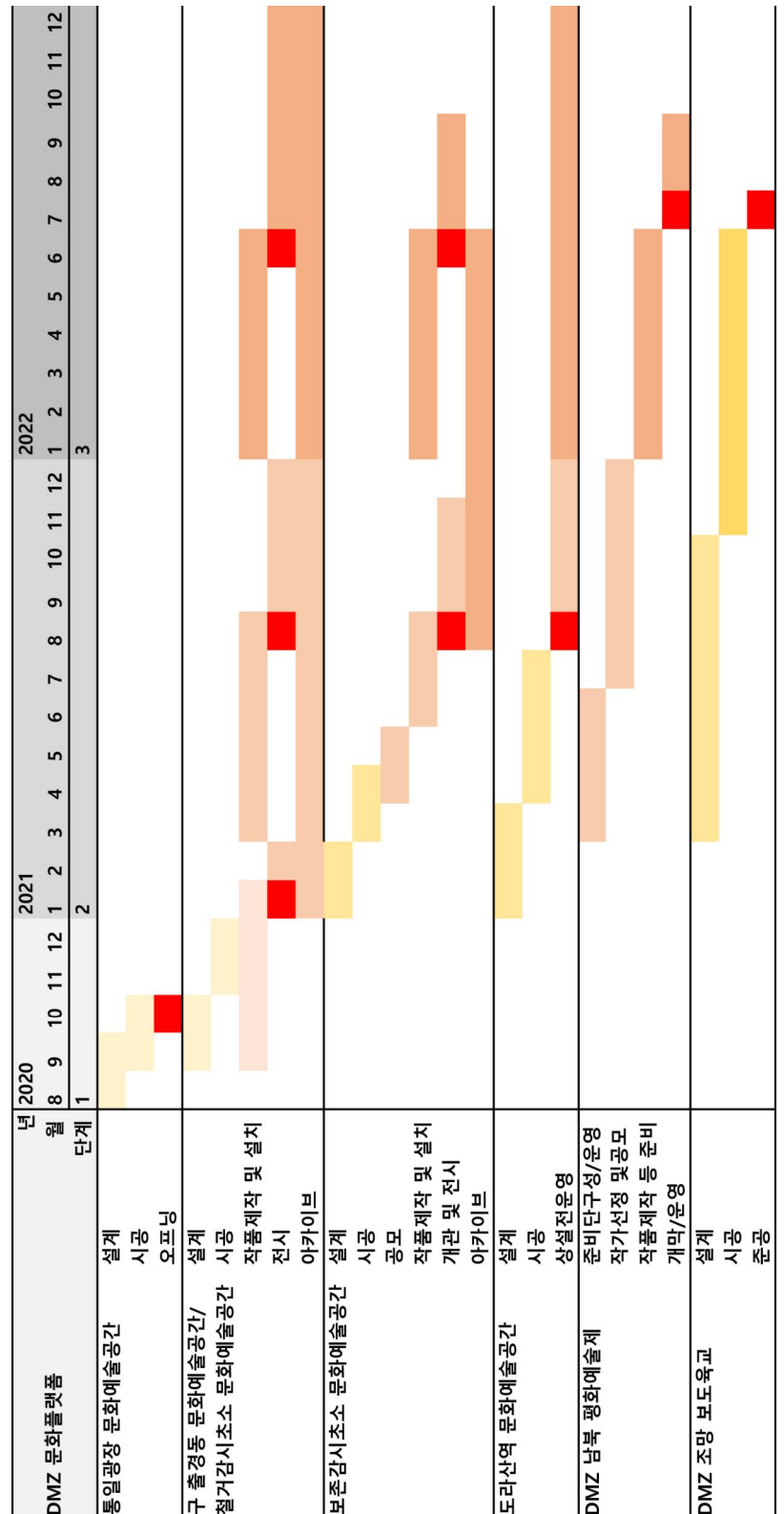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시범전시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가칭 출경 뮤지엄) 운영조직 구축, 기획전시 및 아카이빙 착수
- 도라산역 문화예술공간(가칭 미디어 갤러리) 조성 용역
- DMZ 도보육교 조성 설계용역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가칭 출경 뮤지엄) 아카이브 구축 시스템 및 운영 연구용역 발주 (본 사업과 별도)

○ 3단계('22년)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가칭 출경 뮤지엄) 운영 및 기획전시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가칭 출경 뮤지엄) 아카이빙 인력 확보
- DMZ 도보육교 조성 시공용역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가칭 출경 뮤지엄) 아카이브 구축 예산 확보 (본 사업과 별도)



9.1.2. 1단계 일정 ('20년)

○ 8월

-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용역 수행자 선정 및 착수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수행자 선정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시범전시 기획 및 운영 용역 수행자 선정

○ 9월

-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용역 계획안 확정 및 설치 착수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시범전시 기획 및 운영 용역 착수

○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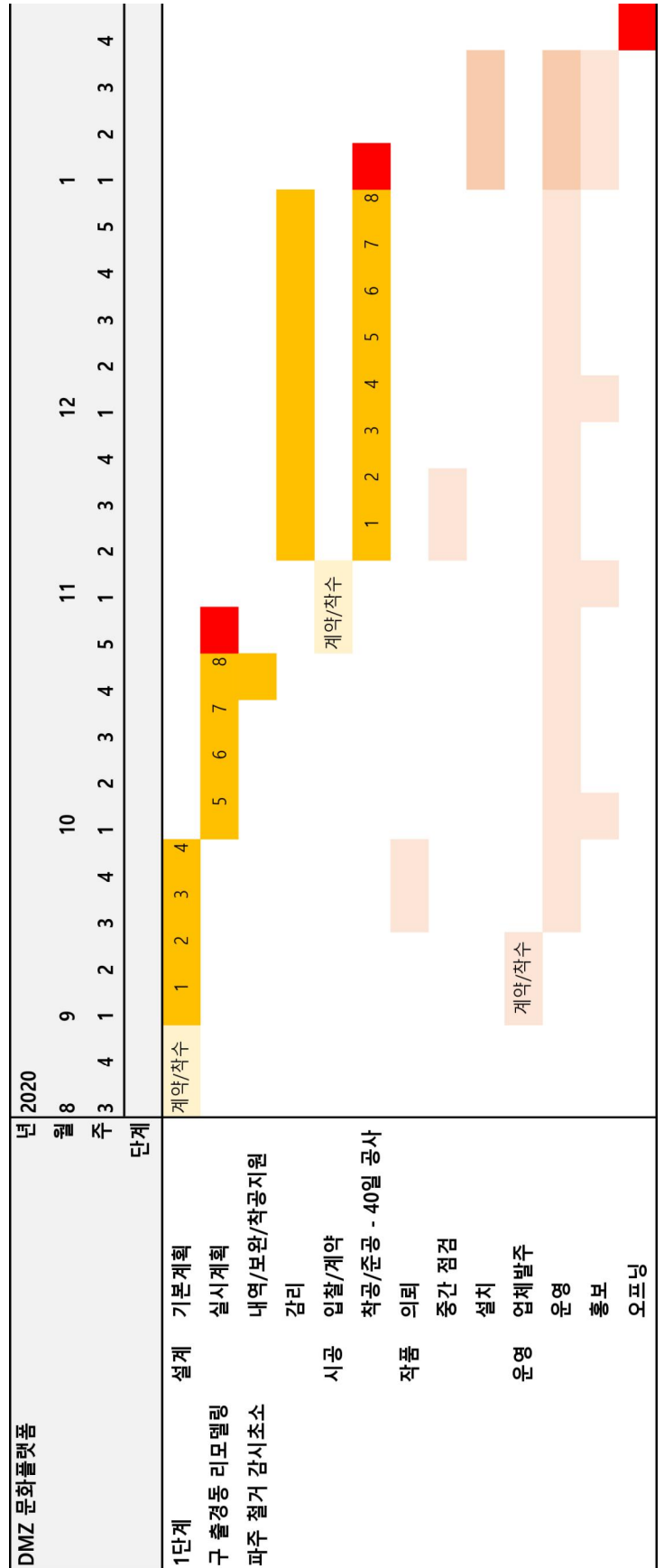
- 통일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용역 설치 완료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완료

○ 11월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시공 용역 착수

○ 12월

- 구 출경동 리모델링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시공 용역 완료
- 구 출경동 문화예술공간 시범전시 설치 착수



9.2 단계 별 운영 관리 방안

단 계	구 출경 동 문화예 술공 간 (가 칭 출경 뮤지엄)	감 시 초 소 문 화예 술공 간	도 라 산 역 문 화예 술공 간 (가 칭 미 디 어 갤 러 리)	DMZ 남 북 평 화예 술제
1 단 계 2020	전 시 기 획 /홍 보 /오프 닝 행 사 /관 리 운 영 통 합 발 주			
2 단 계 2021	큐 레 이 터 1인 /아 키 비 스트 1 인 /관 리 요 원 4인 으 로 구 성 된 운 영 조 직 구 축		전 시 기 획 /홍 보 /오프 닝 행 사 /관 리 운 영 통 합 발 주	
3 단 계 2022	큐 레 이 터 1인 /아 키 비 스트 1 인 /관 리 요 원 4인 으 로 구 성 된 운 영 조 직 구 축	홍 보 /공 모 /작 품 선 정 및 제 작 의 회 /프 로 그 램 운 영 통 합 발 주		예 술 제 기 획 /홍 보 / 오프 닝 행 사 /관 리 운 영 통 합 발 주, 청 년 예 술 가 /사 회 적 기 업 /지 역 사 회 와 협 력 하 여 운 영 하 는 방 안 검 토
2023~	DMZ 문 화플 랫 폼 운 영 재 단 설 립			

9.2.1 1단계 (2020)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DMZ 문화플랫폼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DMZ 문화플랫폼 운영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련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남북출입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
- DMZ문화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는다.

○ 사업의 추진

- 단계별 사업(리모델링, 전시)의 과정을 정리하고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자 공모가 필요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 시범 전시는 구출경동 리모델링이 완성된 후 진행된다.
- 시범 전시는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진행한다.
- 필요시 임시 계약직원을 두고 1단계 사업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 시범사업 추진 일정

단 계	구 분	내 용	비 고
1	구 상 및 계 획	전시기본 개념 수립 전시 기본 계획 수립	내부
2	시나리오 완성	작가 및 작품 선정 공간별 스토리 연출 확정 작가 계약 확정	내부 + 외부업체
3	시각화	전시 공간 디자인 전시 그래픽 디자인 홍보 계획 수립	내부 + 외부업체
4	실행	전시작품 반입 및 설치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내부 + 외부업체
5	개막	전시오픈행 행사 전시 안내 전시도록 발간 / 프로그램 운영	내부 + 외부업체
6	폐막	전시 작품 해체 및 반출	내부 + 외부업체

○ 전시 업무

1) 홍보

- 홍보 전략 수립, 홍보 기획 및 진행
- 국내외 언론 및 방송 홍보 관련 기획 및 진행 업무
- 인터넷 홍보 기획 및 진행
- 보도 자료 배포 업무 지원 및 기자간담회 진행
- 홍보 및 관광 업계와의 연계 등 기타 홍보와 관련 사항 지원
-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매체 관리

(시내 전광판, 전시장 주변 유도 안내판설치, 버스 및 인터넷 광고게재, 방송 및 온라인 매체, 국내외언론 매체)

- 행사 초청 리스트 작성 및 초청장 발송

2) 행사

- 개막식 및 프레스 오픈 행사
개막식 기획 및 진행,
VIP 오픈, 프레스 오픈 기획 및 진행(초청, 식사, 차량 임대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제반 시설 준비 및 설치(음향, 조명, 의전, 사회자)
개막 리셉션 준비 및 VIP 인사 의전
- 연계 프로그램 및 부대 행사 진행

3) 전시운영

- 전시운영 인력 채용 및 관리, 교육
- 전시장비 임차 및 모바일앱 등의 제작
- 관람객 설문 통계 분석 및 설문 응답자 기념품 제공

- 4) 행정지원
 - 전시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 및 관련 인건비 지급
 - 디자이너, 테크니션, 코디네이터, 추진위원의 인건비, 체제비 지급
 - 출판, 행사 등 관련 통역,, 번역료 지급
 - 홍보 관련 비용 지급
- 5) 전시의 구현
 - 그래픽 및 공간 디자인, 작품의 설치, 장비의 임차 등
 - 전시실 공사 및 부대공사
 - 작품의 반입 및 설치 지원
 - 관람객 휴게 공간 지원
 - 전시실 연출 사인물 제작 및 설치
- 6) 작품 운송 및 보험
 - 작품의 운송 및 통관 관련업무
 - 작품 운송 보호 및 전시 종합보험 가입 및 처리
 - 참여작품 설치, 관리 및 철거
- 7) 전시 운영 및 관리
 - 전시실 관리원 교육 및 관리
 - 작품 관리 및 관련 소모품 관리
 - 전시장비 등 기자재 관리
- 8) 참여작가 작가비 및 작품제작비
 - 참여작가비 지급
 - 작품 제작지원비 지급
- 9)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전시도록 발간
 - 사업의 정산 및 결과보고

9.2.2 2단계 (2021)

o 기본방침

- 다양한 성격을 가진 DMZ 내 거점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미션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인력 및 조직과 차별화된 관련 조직과 전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해서 남북출입사무소의 전문 인력의 연차적 확보 시급하다.

o 조직현황

-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 운영과와 동해선 운영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문화협력과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대응하도록 조직 구성 시급하다.

-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시, 교류, 교육 등을 위한 관련 전문 인력 집중 투입하여 일사불란한 대응 필요하다.
- 적기 개관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자료와 양질의 전시품을 단기간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료 수집 관리 전문 인력 필요하다.- 사업의 홍보,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자인 및 마케팅을 위한 디자인 및 홍보 전문인력 필요하다.
- 시설의 운영을 위해 공간을 관리하고 인력을 운영할 관리, 시설, 전산 전문인력 필요하다.

o 조직구성(안)

- 현재 남북출입사무소는 2개 과로 운영되고 있다.



[현 남북출입사무소 조직도]

- 현재의 조직체계에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의 신설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 남북출입사무소의 특성을 고려해 과장(1인), 행정 총괄 (1명), 학예 총괄(전문임기제1인) 학예(전문임기제 2명), 디자이너(전문임기제 1인), 전산(1인), 시설(1인)로 구성된 문화협력과 신설을 제안한다.



[향후 남북출입사무소 조직도]

- 신설과 업무표
- 문화협력과(가칭)

담당자			업무
문화 협력 팀	과장 (1인)		총괄
	행정	행정 (1인)	사무업무 총괄 - 주요 업무보고 작성 - 규정 및 매뉴얼 수립 총괄 - 현안사항 대응
		시설 1인	- 시설공사 계획·설계·감독업무 - 전시관 제반시설 관리·현안 대응 - 전시관 재난안전 관리업무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전산 (1인)	- 전시관 홈페이지 및 전산 관리 - 남북협력기금 편성/집행/결산 - 서무(조직/인사) 업무 - 국정과제·정부업무평가 - 방문객 민원 사항 관리
	사업	학예 (전문임기제 나급)	전시업무 총괄 - 자문·심의 위원회 운영 - 소장품 및 아카이브 관리 - 대외 홍보·협력업무
		학예 (전문임기제 나급)	- 상설전시 운영 관리 - 특별전시 기획 추진 -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제교류, 대외협력망 관리 - 전시 해설사 관리
		학예 (전문임기제 다급)	- 전시작품 아카이브 관리 -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작품 조사·연구·구입 - 소장작품 실태조사 - 기증 작품 관리 및 소장작품 등록 - 소장품 출납 - 연구총서, 도록 발간
		디자이너 (전문임기제 다급)	- 전시 연출, 공공디자인 개발 - 웹진, 뉴스레터, 출판디자인 - 미디어·콘텐츠, 문화상품 개발 - 기타 홍보물(SNS/영상/리플렛) 및 언론취재지원

- 운영위원회 구성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DMZ 문화플랫폼 운영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련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남북출입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

- 자문내용 : DMZ문화플랫폼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9.2.3 3단계 (2022)

○ 주요 과제

- DMZ문화플랫폼 운영이 시범운영을 넘어 정상화를 맞이하게 되는 3단계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DMZ문화플랫폼 거점 공간 활성화
 - 2) DMZ문화플랫폼을 활용한 예술제 개최
 - 3) DMZ문화플랫폼 안착을 위한 방향성 검토
- 평화예술제의 개최는 향후 DMZ문화플랫폼의 정상화를 가능하는 중요한 행사로 2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전을 기한다.
- 첫 번째 평화예술제는 문화협력팀 부서 내에서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추진한다.
- 향후 평화예술제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 추진 단계

- 공간별 추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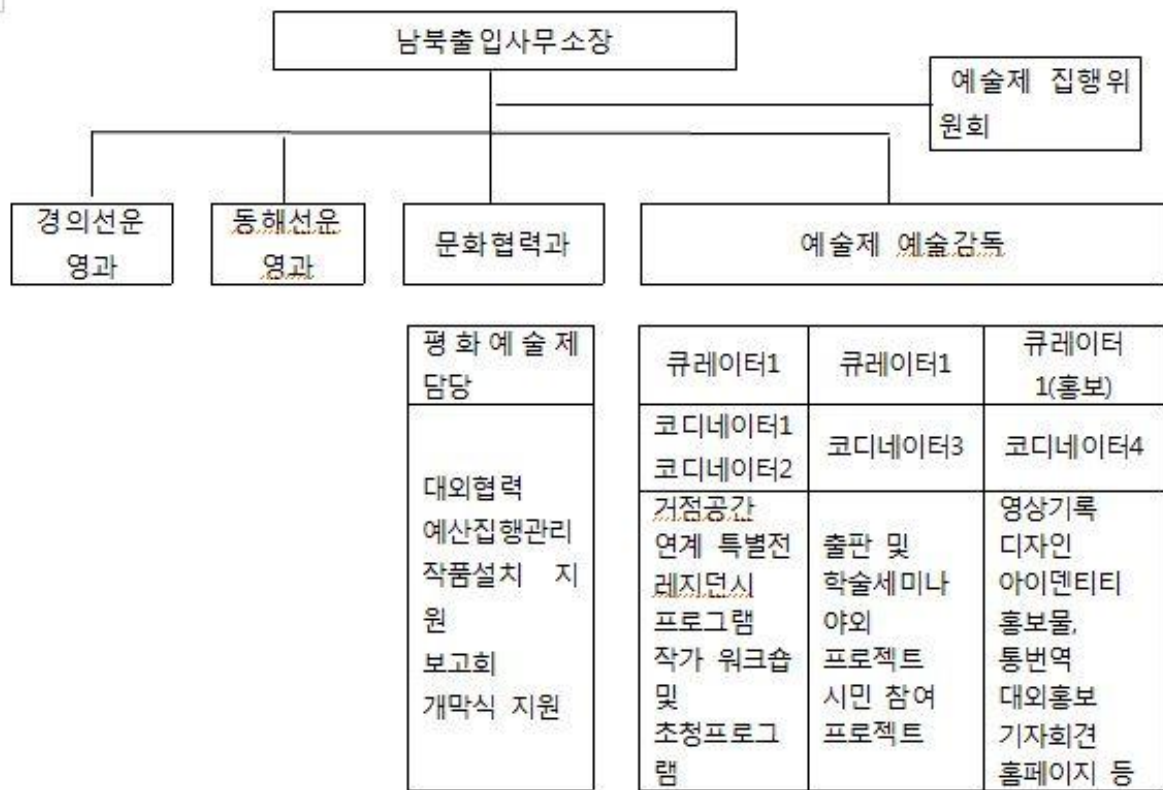
지역	공간	1단계	2단계	3단계
파주	도라산역	시범전시	미디어월구축 상설전 운영	DMZ, 남북교류 정보 공간 운영
	(구)출경동	리모델시범 시범전시	학예업무 시범운영 -자료 수집및연구 -기획전 운영 -공공프로그램운영	남북 교류의 거점 공간 -남북예술가 교류프로그램 운영
	감시초소	예술가 공모 예술가 워크숍	예술 프로젝트	예술 프로젝트
고성	제진역	시범전시	예술+지역 협력 프로젝트	현대미술전시관
연천	통일미래센터	야외조형물 설치	공공프로그램 예술가 레지던시	야외프로젝트 예술가 레지던시

-DMZ 문화플랫폼 운영의 단계

단계	구분	내용	비고
1	구상	- 조성방안 연구 - 공간 리서치 및 리모델링	2019년~2020년

		- 시범전시 운영	
2	시범운영	- 출경뮤지엄 개관 - 예술가 공모 시범운영 - 평화예술제 기본안 수립 및 개최 - 문화플랫폼 시범운영 - DMZ 문화플랫폼 운영 정책 연구	2020년~2021년
3	정상화	- 평화예술제 조직체계 정비 - 남북문화재단 설립 준비 - DMZ 문화플랫폼 정상 출범	2021년~2022년

- 평화예술제 관리 체계



10. 연구의 기대성과 및 효과

10.1 정책적 측면

-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거점으로 조성, 남북주민간 한민족 동질성에 대한 감동을 제공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 DMZ 내 남북간 평화교두보로서 DMZ 평화지대화가 국제정세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특히 외국인들이 세계 유일 분단 상징 DMZ가 평화의 상징물로 변했음을 체감함으로써 DMZ 내 생태·문화 등 관련 국제기구 유치 여론 조성에 기여한다.

10.2 학술적 측면

- 공간기획, 전시/공연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간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로 연계될 수 있다.
- 문화플랫폼을 통한 DMZ 접경지역 사회적 생태계 조성 및 장소 재생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10.3. 향후 활용 방안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산성 관점'에서 관련 기업들과 협력, 접경지에 'DMZ 문화예술 및 패션산업 생태계' 조성, 경제 활성화 기여한다.
 - 동대문 중소패션업체, 개성공단 관련 업체와 연계, 접경지 문화예술 및 패션섬유산업 플랫폼 조성 등, 생산성 제고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 DMZ 문화 거점 조성을 통해 침체된 접경지 경제를 활성화
 - 접경지역은 전쟁 前 남북이 함께 어울려 살던 삶의 공간이었으나, 분단이라는 단절과 역사적 상처, 남북관계 교착,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문화 거점 조성을 통해 접경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2동 192-1) 태백관 2, 3층 (200-701)

전화번호. 033)250-6938 (산학연구지원부)